



3

198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3호

(루게 425)



◆◆◆◆◆◆◆◆◆◆ 차 례 ◆◆◆◆◆◆◆◆◆◆

배움의 천리길	3
농립모에 대한 이야기	4
김정일 그이는 인민의 희망.....	5
향도의 태양을 우러러	5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	6
세상에 자랑높은 내 나라.....	6
영원히 타오르라 불멸의 화불이여!.....	7
충성의 메아리로 울려퍼지는 심장의 노래	10
군당책임비서	14
가슴마다 불을 안고	51
수호자들	52
가리라, 더 깊은 막장으로!.....	64
용해공의 노래	65
망양나루.....	66
우러러 사는 마음	66

농민 박길호	67
출근길	76
씨앗	78
이른 봄날에	80

배움의 천리길

리광선

자욱자욱
혁명의 뜻이 어리어 천리
걸음걸음
위대한 사랑 깃들어 천리

팔도구에서
만경대는
산너머 구름너머
천리런가 만리런가

이 길따라 걸을수록
이리도 생각은 끝없고
뜨거운 이 마음 진정할길 없나니

아 열두살 어리신 그 시절
눈덮인 광야
찬바람 몰아치는 산밭을 넘어
이 길을 걸으신
우리 수령님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가슴아파 들으시며 한발자욱...
광복의 새날을 그려보시며
또 한발자욱...
조국으로 나오신
우리 수령님

광복의 이 길우에
조국의 이 길우에
끝없이 새겨진 그 자욱 따라
우리 걸으며
다시금 가슴뜨거이 생각하노라

얼음덮인 압록강을 건너지어
눈쌓인 밀림의 오가산령
가파로운 직고개...

수령님 이 길을 걸으시며
조국을 알으시고
수령님 이 길을 걸으시며
위대한 뜻을 키우신 영광의 로정이여

이 길을 이어서
광복의 봄이 오고
이 길을 이어서
배움의 창문들이 이땅에 열리고
위대한 전변의 력사가 펼쳐졌나니

위대한 천리길
이 길에 새겨진 거룩한 자욱따라
우리 인민이 걷고 또 걸어도
다 걸을수 없는 수천수만리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걸어도
인류가 이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어도
다 배울수 없는 수천수만리

혁명의 길을 이어갈
만년초석이 이 길에 다져지고
조선의 명맥이 피줄기처럼 높뛰고
민족의 운명이 이어진 천리길

이 길우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뜻
가슴마다 안으며
신념과 투지 충성은 높뛰나
이 길다 더 빛나는 길
이 길보다 더 영광찬 길
이 세상 그 어데 있으랴

아, 수령님 몸소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새 력사의 려명을 밝혀준
영광의 길
위대한 천리길이여

농립모에 대한 이야기

-한 농민의 말-

신병강

팔월 복중이라 어쩌나 날도 물쿠던지-
수령님 부르심 받고 정원에 들어서다
나는 그만 제 눈을 의심했소
글쎄 수령님께서 농립모를 쓰시다니?!...

뻔어오르는 호박순도 올려주시며
화분의 물온도도 살펴보시며
팔월의 한낮 시험포전에 계시는 수령님
농사일을 의논해보자고 부르셨다고
실히 자란 벼포기를 손에 드시고
-몇달 시험해보니 이 품종만 심으면
어떤 왕가물도 이겨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기쁘신듯 농립모를 벗어드리고
활-활- 부채삼아 흔드시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겠소?!
그 농립모가, 그 농립모가
몇해전 수령님 우리 농장 오셨을 때
리상점에서 사서 쓰셨던것일줄...

그땐 그저 나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 만든 농립모의 질을 보시려느줄 알았지
차라리 이리질줄 알았다면...
내사 머리를, 머리를 들지 못했소
가슴을 파고드는 후회와 송구스러움에...

세상만민이 높이 우러러 모시는 우리 수령님
인민을 못잊으시는 그 마음이야
우리 어이 모르랴만
글쎄 우리 농군들이나 쓰는 그 농립모를
어떻게 수령님께서 쓰시리오
나는 목매여 떠뜰떠뜰 아뢰었소
-수령님! 그 농립모만은...

헌데 이 어인 말씀이겠나, 호탕히 웃으시며
그때 그 농립모를 정말 귀히 쓰신다고
오히려, 오히려 송구한 이 마음앞에...
그러시고 환히 웃으시며
-인민들이 쓰는 농립모를
내라고 왜 못쓰겠습니까
팔월 복중에야 이 농립모이상 있습니까

어쩔 그리도 소탈하시고 너그러우시겠소
진정. 우리 수령님 농민이 되시려
어느 농장원명단 첫자리에
친히 자신의 존함을 올리셨던가!
진정 농민의 이 심정 아시려
우리 수령님 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셨던가!

종다리 우짖던 근거지의 그 봄날엔
로인들과 함께 손수 보탑도 잡으시고
전화의 날엔 최고사령부 마당가 터전에서
속이 드는 통배추도 몸소 묶으시더니...
또 어느해였소
땅길 서리는 어느 밭이랑우에서
우리 수령님 걸이대 드시고
농민들과 함께 거름을 퍼시던 그 새벽은...

그제사 나는 깨달았소
하늘에 불덩이가 떠도는 왕가물에도
어째서 조선의 대지만은
저리도 푸르디 푸른지
세계가 굶어죽는 통곡소리 높은 때에도
어째서 조선의 땅우에선
저리도 풍년농악소리 높은지...

평생을 땅 걸구며 살아온 농군도,
평생을 탐구에 머리 흰 농학박사도 미처 모른
이 땅의 기후풍토에 맞는 주체농법-
자신께서 직접 농민이 되시여
자신께서 직접 시범하신 조선의 농법을
천하 만민에게 가르쳐주시는 우리 수령님!

오늘도 평범한 농민이 되신듯
수수한 농립모를 쓰시고 환히 웃으시는
참으로 자애로운 수령님 영상을 우러르니
-위대한분입니다!
내사 온 세상 가슴터쳐 웨치고싶었소

그래 내사 누구에게라없이 이야기하오
이 땅. 이 하늘에 천지조화가 일어
때아닌 왕가물에 땅이 타고 지구가 탄대도
어림도 없지, 없지 않구
우리 수령님 쓰신 농립모의 그늘아래
조선의 대지는 것처럼 푸르오
조선의 물소리는 것처럼 유정하오

김정일 그이는 인민의 희망

동고도 무싸

김정일 그이는 탁월한 지도자
그이는 혁명의 아들
전설적영웅 김일성 원수님께서
광복의 성전을 벌리시던 날에
포연서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였어라

김정일 그이는 인민의 희망
혁명의 불길속에서 태어나 자라셨기에
인민 위한 끝없는 헌신성을 지니셨기에
절세의 애국자로 되시였어라

어린시절 그이께선
간악한 원썬을 쳐부시는
총포탄소리를 들으시였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는 나날에
조선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대되시였어라

그이의 숭고한 품모를 칭송하는 인민들
그이를 끝없이 신뢰하며
그이께 운명을 맡기고
그이의 손길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어라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로
천리마조선은 질풍같이 내달리여라
더 좋은 미래으로
그이의 향도의 해발

공장과 농촌, 광산과 건설장들에 비쳐가나니
결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일 동지께
영명하신 조선의 젊은 지도자
그이께 가장 뜨거운 축하를 드리노라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 원수님께서
주체의 혁명위업 이어가실 힘과 예지를 심
어주시였나니
그이께선 그 예지와 비범한 정력으로
당을 이끄시고
인민을 이끄시고
조선을 이끄시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온 평양이 환희로 들끓는 이 기쁜 명절에
모든 조선사람들의 축원의 목소리에
머나먼 중앙아프리카 시인의 목소리 합쳐
진정어린 뜨거운 인사를 드리노라
그이의 만수무강과 행복을 축원하여

인민의 희망이신 김정일 동지이시여
먼곳에서 보내는 인사를 받으시라
충심으로 존경을 담아 노래하노라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을 가장 열렬히 축하하
노라

(필자는 중앙아프리카 기자, 시인임)

향도의 태양을 우러러

플 가파

조선에 솟아오른 향도의 태양
찬란한 빛발을 뿌리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김일성 주석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인민에게 영원한 불을 안겨주시네

위대한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주체의 찬연한 빛을 만방에 뿌리시나니
사상리론활동으로

그이는 김일성 주주의 세계사적승리를 앞당기시는
력사의 대진군길우에 서계시는 사상리론의 천재
혁명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꿰뚫어보
시고
모든 일을 통이 크고 대담하게 작전하시는
그이는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친어버이 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인민들과 소탈하게 어울리시는
겸손한 인품과 한없이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쉬임없는 로고로
조선로동당을 참다운 주체형의 당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아가시는
그이는 혁명적당건설의
영명한 지도자
아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높이 우러르며 칭송하
노라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세계인민들은 끝없이 부러워하노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있는 조선
인민을

위대한 **김일성** 주주의 기치따라
조선은 힘차게 전진하여라
위대한 주체의 궤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은 세계의 미래
그 미래는 휘황찬란하여라

(필자는 주체사상연구 말파전국위원회 위원장임)

가사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

장윤길

준엄한 시대의 폭풍 헤치는
그대의 발구름 울린다
수령님 높은 뜻 빛내여가는 조선로동당
주체의 기치를 높이 날리며
강철로 다져진 대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백두의 눈보라 헤쳐넘은
그대의 심장은 억세고
불비를 뚫고온 그대의 의지 꺾지 못하리

영광의 기치를 앞에 날리며
강철로 다져진 대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자주의 넓은 길 펼쳐가며
새 세기 밝히는 등대
공산주의 새봄을 꽃피워가는 향도의 기치
당중앙 두리에 굳게 뭉치며
강철로 다져진 대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가사

세상에 자랑높은 내 나라

김영일

만경대 언덕에 해가 솟아
행복의 봄꽃은 피고
사람들 주인된 기쁨 안고
새삶을 노래하네
아 만경대 해가 솟아
꽃피는 내 조국 세상에 자랑일세

백두의 령봉에 별이 솟아
누리에 빛나는 나라
영광의 년대를 수놓으며

미래를 꽃피가네
아 백두산에 별이 솟아
빛나는 내 조국 세상에 자랑일세

위대한 해와 별 함께 모셔
영원히 행복한 나라
천만년 충성의 대를 이어
한마음 바쳐가리
아 해와 별 밝게 빛나
주체의 내 조국 세상에 자랑일세

영원히 라오르라 불멸의 해불이여!

석유군

무릇 여행은 즐거운것이지만 취재에서 취재에 이어지는 직업적타성으로 하여 그 기쁨이 잦아들때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인 왕재산회의 신문을 앞두고 온 성행렬차에 몸을 실은 우리 마음은 어머니 손목을 잡고 유쾌한 여행길에 오른 아이처럼 부풀어 올랐다.

언제나 그림고 정다웁게 안겨오는 영광의 땅. 왕재산 찾게 되었다는 기쁨이 앞섰때문이다.

우리가 탄 기차가 회령역을 떠나자 우리의 시선은 오산덕으로 쏠리었다.

오산덕기슭에 자리잡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의 고향집이 어서 오라 반기는듯싶었다.

못잊을 그 사랑을 두줄기 궤도우에 수놓으며 사립문 열려진 추녀낫은 너사의 고향집을 뒤에 두고 왕재산으로 향한 그날의 뜨거운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깃들어있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의 갈림길에 새기신 거룩한 자욱은 30 년세월이 흘러 우리 당에 의하여 회령의 갈림길로 빛나게 이어졌으니.

참으로 조국과 혁명에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헌신적인 복무와 사랑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충성의 위훈으로 부르고있다.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진 충성의 궤도우를 달리는 우리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수려한 조국강산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꽃피워가는 우리 당의 육친적인 사랑의 손길은 나라의 북방에도 뜨겁게 스며있음을 깊이 느꼈다.

온성역에서 내린 우리는 대기념비가 우뚝이 솟아있는 왕재산에 향하여 곧게 뻗은 길을 따라 걸음을 다그쳤다.

주체의 해불을 높이 추켜드리고 우리 당과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를 마련하시였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왕재산대기념비가 가까와질수록 우리 마음은 더더욱 숭엄해졌다.

혁명의 성산 백두런봉과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유서깊은 왕재산에 배경으로 하여 세워진 대기념비의 중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

상을 모시고 주체의 기치를 상징하는 봉화탑이 높이 솟아있었다.

암운이 짙게 드리운 조국강산에 광복의 려명을 안아오시려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리셨던 반세기전 그날의 그 모습대로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를 한품에 안으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그날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한자한자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로동동맹을 기초로 하여 반일적요소가 있는 각계각층의 군중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단합시켜야 합니다.**》

실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품에 지니시고 혈전만리를 진두에서 헤치시며 항일전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시는 청년장군 **김일성** 동지의 가르치심은 압제의 검은 구름이 드리운 삼천리강산에 광복의 려명을 비쳐주었고 억눌리고 짓밟힌 우리 인민을 투쟁으로 불려일으킨 역사적인 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인민들이 그이를 우러르며 신심도 드높이 조국광복의 성전에 떨쳐나선 불멸의 기상이 그대로 기념비에 세워져있었다.

봉화탑 좌우편부각인-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칠 불같은 결심 품고 눈보라 만리길을 헤치면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일제를 죽친 조선인민혁명군과 혁명적인민들의 멸적의 기세를 보여주는 《전투편》과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것을 깨닫고 혁명군을 도와 조국광복의 성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을 보여주는 《원호편》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 모든것을 바친 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의 혁명적기개를 그대로 볼수 있었다.

그뿐아니라 중심구역을 벗어난 언덕길에 세워진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형상한 화강

석 대군상과 기념비 정면입구좌우에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새세대들을 형상한 조각군상, 그리고 사적비에 아로새겨진 충성의 글발들에는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그대로 수놓아져 있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인양 사철 푸르싱싱한 왕재산의 푸른 숲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솟아있는 대기념비는 왕재산회의 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로천박물관이 었다.

우리는 왕재를 끼고 흐르는 두만강기슭,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진군의 첫자욱을 찍으신 표식비가 있는곳으로 내려갔다.

잊지 못할 그날의 사연 전하려는듯 두만강물결은 도도히 흐르는데 반세기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력사의 자취는 오늘도 력력히 새겨져 있었다.

술골 농막집에 들리시여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 하시며 도끼를 드시고 손수 나무도 패시고 두만강 얼음을 까시고 물을 길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하신 공산주의적덕성이 노래처럼 전해지는 량수천자와 마주선 조국땅 타막골, 얼마나 그립던 정다운 조국의 땅인가!

열네살 어린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지고 압록강을 건느신 우리 수령님, 피어린 항일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남만원정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발전시키시기 위하여 1933년 3월 1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두만강을 건느시여 조국땅에 큰자욱을 내디디시였다.

기슭을 부리던 북방의 추위도 물러가고 따듯한 해빛이 밝게 비치던 력사의 그날, 우리 인민의 마음을 담아 조국산천도 감격에 설레이였다.

준엄한 날에도 행복한 날에도 모두의 마음하나라도 이어지고 결전을 앞에 둔 어려운 순간에도 그 이름 부르면 새힘을 안겨준 정다운 조국,

이국의 하늘아래서도 그대 이름 어머니처럼 부르며 한달음에 달려와 안기고싶어 눈보라 만리길 헤치는 혈전의 날에도, 밀림속 우등불가의 쪽잠결에도 삼삼히 그려지던 그리운 조국, 정녕 조국은 어머니품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모두를 따듯이 안아주었다.

하기에 사립문밖에서 손저어 바래우시던 다심한 어머니의 정다운 모습을 그리며 총잡고 결사전에 나선이 그 얼마이며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내 조국 찾으려 꿈많은 청춘을 바친이 그 얼마였던가.

그토록 그립고 정다운 내 조국 찾으시려 우리

수령님께서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선을 뚫고 몸소 이 땅을 밟으셨던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갔으나 숭고한 조국애가 그대로 스며있는 력사의 지점에 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크나큰 감격속에 맞이하였던 력사의 그날을 되새겨보며 오래동안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예로부터 이깎나무, 참나무 우거진 이 골안에서 솟을 구었다고 하여 불리워진 가막골(원래는 단막골이었다.)은 인적 드물던곳이었던만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기신 숭고한 뜻을 가슴에 간직하려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은 그칠새 없다.

수십수백년 묵은 고목들이 울창하게 우거진곳에 예전 모습 그대로인 왕재산밀영은 혁명군을 도와나선 조국인민들의 그 정성 갈피마다 스며있어 오늘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왕재산밀영을 나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걸으신 영광의 자욱을 따라 소나무, 이깎나무 울창하게 우거져 해빛마저 가리워진 왕재산마루로 뚫아올랐다.

본래 5 개의 봉우리로 되어있는 왕재산중에서 제일 높은 왕재, 여기에 오르면 줄줄이 뻗어간 푸른산줄기며 이 땅을 감돌아 흐르는 두만강이 한눈에 안겨왔다.

우리는 청아한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무성하게 자라나 끝없이 설레이는 유서깊은 한그루 참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왕재산 높은곳에 울창하게 가지를 뻗친 한그루 참나무가 영광의 그날에 아로새긴 뜻깊은 이야기를 전하려는듯 가을바람에 설레였다.

바로 이 참나무가 서있는 공지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정치공작원들 및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였다.

언제나 뵈고싶어 한달음에 달려온 그들은 마음속으로 흠모해오던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러 감격에 목메여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국내형편과 그들의 활동정형을 보고받으시고 그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가지고 **《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발악적인 책동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전반적조선혁명을 가일층 앙양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설명하는 해설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였

다.

《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만강유격구와 잇닿아있는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창설하고 그를 공고히 하는것은 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발전시켜는 정치군사적거점을 꾸리고 후방기지를 마련하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였습니다.》

해설원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조국광복의 혁명적 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문제, 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과 함께 이에 대중운동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그리고 당창건준비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문제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왕재산 회의방침을 깊이 되새기게 되었다.

참으로 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웅대한 전략적구상을 명시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일제의 발굽밑에 신음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투쟁의 진로를 밝혀준 력사적인 선언이다.

하기에 회의참가자들은 우리 혁명의 당면문제와 전망문제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시고 따듯이 손잡아 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여 그이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할 굳은 결의에 차있었다.

회의를 마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잠시 눈길을 드시여 아득히 펼쳐진 조국산천을 바라보시였다.

언제보나 아름다운 조국의 산천경개는 볼수록 깊은 감회를 불러일으키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을 둘러보시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두만강을 끼고있는 온성은 경지도 좋고 땅이 비옥하고 지하자원이 많아서 살기도 좋은곳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조국땅이 지금 원수의 발굽밑에서 신음하고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결코 일제의 노예가 될수 없으며 농들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이 뭉쳐서 원수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가슴의 붉은 피 끓게 하는 어버이수령님의 절절한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들은 한결같이 심장으로 다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 받들고 기어이 내 조국을 찾으리라... 해방된 조국땅에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리라고.

아직은 산도 들도 눈속에 묻히고 강물도 얼어붙었어도 그 눈과 얼음속에서도 봄은 힘차게 태

동하고있었다.

세월의 눈비속을 헤치며 더 깊이 뿌리를 내려 역세계 자라난 왕재산의 참나무는 울울창창 가지를 뽎고 무성하게 자라났다.

력사적인 회의를 지도하신 때로부터 45 년세월이 지난 1978년 6월 왕재산에 다시 찾아오시여 왕재산혁명사적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혁명교양의 학교라고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의 증견자인양 푸르싱싱하게 자란 이 참나무를 감회깊이 보시면서 참나무는 어디에 가나 다 있지만 왕재산의 참나무는 매우 뜻깊은 나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세월은 흘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던 왕재산의 참나무는 력사의 그날로부터 반세기 오랜 세월 새로운 년륜을 새기였다.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조국의 광복을 안아오시고 조국의 룡성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빛나는 년륜을...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더불어 우리 조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변모되었으며 창조의 보람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인민은 시대와 혁명의 주인으로 얼마나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는가.

왕재산 높은 마루에서 굽어보느라니 기와집 즐비하게 늘어선 왕재산마을이며 황금물결 설레이는 전야가 부채살같이 안겨왔다.

행복한 오늘도 좋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 활짝 꽃피워나가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로 속도전의 기상 나래치는 아름다운 내 조국의 래일은 또 얼마나 휘황찬란할것인가!

진정 생각할수록 크나큰 걱정으로 하여 우리의 가슴은 한껏 벅차오르는것이 었다. 우리가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깃들었다.

복된 이 나라 사람들을 축복하는듯 밤하늘에는 금모래 뿌린듯 찬란한 별무리들이 반짝이는데 아름답게 펼쳐진 락원의 이 강산이 못내 그리워져 하늘의 은하수도 내려앉았는가. 아니면 이 나라 인민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밝은불빛이 되어 변함없이 비치는가. 진주구슬 늘어놓은듯 왕재산을 따라 두줄기로 늘어선 수은동의 푸른 불빛은 유정한 가을날의 정취를 더더욱 돋구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퍼올리시여 어두운 조국강산에 광복의 려명으로 붉게 비치던 주체의 해불은 오늘 더욱 밝게 빛나 누리에 찬연한 빛발을 뿌리고있다.

진정 공산주의 새봄을 안아오는 불멸의 해불이여, 영원히 빛나라!

충성의 메아리로 울려퍼지는 심장의 노래

-가사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에 대하여

리효운

문학예술작품이 진실로 훌륭하게 되자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65 돌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면서 창작된 가사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전병구작)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또하나의 명가사이다.

가사는 높은 시대정신이 고상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세차게 나래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명가사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지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 땅우에 건설해나가는 보람찬 시대에 살고있다.

우리 인민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절박한 민족적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주체사상화된 새사회,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이 보람찬 혁명과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 인민은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인간으로 더욱 준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자신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준비함에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실하였던 혁명선렬들의 높은 충성심을 따라 배우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의 가장 고상한 풍모를 이루는 기본특징인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불타는 충성의 일편단심을 노래한 작품은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는 명작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당에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인민들이 즐겨 널리 부르는 기념비적인 명가사, 명곡들이 련이어 창작되여 나오고있다. 가사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에 삼일포를 찾으시여 명사격의 총소리를 울리신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창작되였다. 이 작품은 우리문학사에 깊은 자욱을 남긴 또하나의 인상깊은 명작으로 태어나 우리 인민의 주체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가사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가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그의 깊은 사상주체적내용에 있다.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혁명활동,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배워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념원과 의지, 신념들과 같은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풍만한 서정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충성다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웅심깊은 시대정신, 굳은 각오와 결의로 충만한 감정세계에 깊이 잠기게 한다.

해방된 삼일포에 단풍이 타는데
항일의 녀전사 여기에 오셨네
못잊을 그날에 울리신 총소리
오늘도 울려가네 하늘가 저 멀리

이렇게 시작되는 이 노래의 가사를 심장에 새기노라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귀한 영상을 가슴깊이 그려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된다.

그리고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지

나오신 항일의 혈전만리를 감회깊이 더듬어보게 되고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된다.

잊지 못할 그날의 총소리를 가슴에 받아안노라면 김정숙동지처럼 경애하는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할 각오와 신념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그토록 념원하시고 바라시던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싸울 각오와 결심이 새로와지곤한다.

가사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가 그토록 큰 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우리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것은 바로 높은 충성심으로 일관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의 과거와 현재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로정, 미래에 대한 불타는 혁명적지향을 충성의 메아리로 관통시키면서 작품의 종자를 폭넓고 깊이있게 뿌리내리우고 꽃피운데 있다.

천백번 쓰려져도 다시 일어나 조선혁명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변을 기어이 보위하겠다는 철석같은 신념, 살이 찢기고 뼈가 가루 되어도 조선혁명의 심장이시며 뇌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겠다는 드놀지 않는 의지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언제나 간직하신 김정숙어머님이시였다. 헤아릴수 없는 사선의 고비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최대의 헌신성과 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신 녀사께서는 자신의 모든 념원과 지향, 신념과 량만을 장군님의 높이신 구상을 꽃피우시는데 고스란히 바쳐나가셨던것이다.

가사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가 이처럼 우리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절한 지향, 불타는 사상감정을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형상속에 집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영원하고 참된 삶의 가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구현하는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 있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고 폭넓게 형상한 바로 여기에 작품이 가지는 주제사상적내용의 거대한 의의가 있는것이다.

가사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다른 하나는 시가문학은 사람들이 시의 세계에 끌려들어가 사색할수 있도록 깊이가 있어야 하며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데 있다.

가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

셨던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직선적인 설명이나 개념적인 호소로가 아니라 총소리라는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형상적으로 부각하는데 성공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 가사의 특색은 하나를 통하여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고 알수 있도록 시화한데있다.

가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삼일포에서 울리신 총소리를 하나의 총소리로만 노래한것이 아니라 철학적깊이가 있고 서정적여운이 넘치는 충성의 메아리로 일반화하였으며 녀사께서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충성다하신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영원히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적 량만과 신심에 넘치여 계속 투쟁하여 나가도록 우리의 심장을 뒤흔드는 충성의 메아리로 승화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이름난 명사수였고 능숙한 지하공작원이었으며 모진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강毅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가사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열렬하고 강毅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뛰어난 품모가운데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일편단심을 핵으로 하고 명사격술로 뛰어난 혁명가, 무장으로 싸우신 녀성영웅의 모습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준엄한 항일전의 수 십만리 길에서 울리신 멸적의 총소리를 귀전에 쟁쟁히 들으며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으로 녀사의 숭엄한 모습을 그려본다...

흥기하전투때 자신의 한목숨을 바치시는 한이 있더라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무거운 배낭을 메시고 총탄이 비발치는 속을 뚫고 일제의 《특수부대》놈들을 유인하시여 백발백중의 사격술로 마지막 한놈까지 모조리 쓸어눕히시던 그 고귀한 모습.

안도현 대사하치기에서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안전이 위협에 처하였던 위기일발의 순간에 온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위대한 장군님을 희생적으로 막으시며 무장으로 사수하시던 눈물겨웁도록 숭고한 모습.

안도현 어느 한 밀영에서 사령부에 달려들던 적기관총수를 비롯한 원쑤놈들에게 몰사격을 퍼부으시며 무리죽음을 주던 영웅적모습.

장구한 항일혁명의 나날 녀성영웅으로 적들을 공포와 전율속에 몰아넣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맹렬한 군정훈련의 시기 완전무결한 명사격술을 비롯하여 전투정치훈련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심으로써 영예의 표창, 크나큰 믿음의 표시로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소령권총을 받으시던 그 슬기로우신 모습을 우리는 심장에 새기고 또 새긴다.

점차 심화되어가는 작품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 사색에 잠기노라면 눈보라 휩쓰는 준령을 넘으시고 비바람 사나운 광야를 헤치시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나오신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 그것은 실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혁명의 뇌수이시고 심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로선을 걸음걸음 옹호하고 구현하여오신 영광의 길이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무장으로 사수하신 투쟁의 길, 만대에 길이 빛날 충성의 길이였다는 사상을 가슴깊이 새겨안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앞을 가로막는 고난과 시련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고 영광찬 로정을 걸으시면서 장군님께서 주신 무기를 크나큰 믿음과 투쟁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로서 그리도 소중히 간직하시고 조국에 개신하신 김정숙어머님이시였다.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조국의 절반땅을 가슴아프신 심정으로 지척에 바라보시며 김정숙동지께서 삼일포에서 울리신 그 총소리, 인민의 숙원과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재워 울리신 총소리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뒤흔드는것인가. 그 메아리는 또한 수려한 금강산의 봉우리들을 넘어 원쑤들의 발밑에서 몸부림치는 저 남해가로 울려간다.

이상과 같이 가사는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게 써야 한다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잘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사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작은것을 통하여 큰것을 받아 안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가사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가 보여준 홀

륭한 모범의 다른 하나는 가사는 사상적내용을 깊이있게 담으면서도 시적으로 써야 한다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잘 관철한것이다.

다시말하여 이 가사는 정서가 풍만한것으로 특색이 있으며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감정이 맥맥히 굽이치고 형상적힘이 강하게 안겨오도록 씌여졌다.

가사 1 절에서는 주인공이 처한 정황을 구체적인 생활적계기를 잡아서 노래하면서도 가사 전체를 관통하는 시상을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색채가 진하게 던져준다. 가사에서는 주인공인 항일의 녀전사가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던 조국땅이 해방되어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철에 삼일포를 찾으시여 울리신 그 총소리가 오늘도 하늘가 저멀리 퍼져간다고 생활적으로 소박하게 노래함으로써 긴 여운이 남게 주정화하고있다.

가사에서는 못잊을 그날의 삼일포총소리를 혁명투사의 빛나는 과거와 현재. 나아가서는 미래의 생활과 결부시키는 형상적고리로 반복하면서 총소리를 단순히 사실로 확인하고 관조적으로 기록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인공의 조국광복을 위한 무장투쟁에서의 역할, 참된 삶과 보람찬 투쟁에로의 호소, 미래에 대한 주인공의 숭고한 념원과 련결시키는 형상수단으로 되게 하면서 보다 폭넓은 사상감정을 일반화하였다.

동시에 시적으로 노래된 생활에 시인의 주정화된 감정을 밀착시키는데로 가사를 승화시키면서 하나의 전일적인 주제사상적과제-충성의 메아리로 시인의 목소리가 여운있게 울려퍼지게 하였으며 형상적으로 립체화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가사가 보여준 서정적 전형화의 위력이 있고 형상적특색과 시적발견이 있는것이다.

항일의 명사수로 빛나던 그 모습

푸르른 물결우에 정답게 비졌네

(2 절, 1~2 행)

가사의 2 절을 부를 때 우리는 금수강산에 사시장철 푸르른 소나무와 비취옥같이 맑고 깊은 호수에 금강산의 가을절경이 비치는 삼일포의 거울같은 수면을 그려보며 거기에 비친 항일정전에서 명사수로 이름떨친 김정숙어머님의 존귀하고 빛나는 모습을 숭엄하고 정겨운 감정으로 우러러보

게 된다.

그러나 해빛처럼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으시고 서계시던 너사께서는 아직도 미제원썹놈들의 더러운 발밑에서 신음하고있는 조국의 남녘땅을 준절한 눈길로 쏘아보신다.

너사께서 올리신 총소리는 오늘도 인민들의 가슴에 투쟁의 불씨를 심으며 하늘가 저멀리에 퍼져간다. 조선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치열한 투쟁은 계속되고있으며 그 혁명투쟁의 길에 앞장설 때에만 조국과 인민, 당과 수령을 위한 충성의 길로 나갈수 있다는 사상이 우리 심장에 세차게 메아리친다.

하기에 이 노래의 사상정서적인 흐름의 절정을 이루는 가사의 마지막절인 3절은 뜨거운 걱정과 깊은 혁명적신념, 비장한 투쟁의 결심으로 우리 가슴을 끝없이 설레이게 한다.

동백꽃 피여나는 남해의 기슭에
장군님 모시고갈 그 념원 불탔네
못잊을 그날의 삼일포 총소리
통일의 념원담아 끝없이 울리네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시구인가! 이 얼마나 비상한 결의와 비장한 각오를 가다듬게 하는 절절한 호소인가! 이 얼마나 불요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갈망하셨으나 생전에 그 실천을 보시지 못한 열렬한 념원을 받아안고 우리 인민이 이제 넘어가야 할 험난한 투쟁의 고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정신의 정화인가!

동백꽃 아름답게 피여나는 남해의 기슭까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가는 날, 삼천리의 온 겨레가 통일광장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높이높이 우러르모시고 온 조선이 떠나갈듯 만세를 열광적으로 부를 그 영광스러운 조국통일의 날을 일일천추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시던 김정숙동지!

너사께서 간직하신 열렬한 전인민적념원을 우리는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너사께서 쌓아올리신 빛나는 업적을 잊지 말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심과 혁명적각오를 굳게굳게 가지게 되는것이다.

가사는 바로 이러한 사상감정을 담당한 시구절속에 아무런 과장도 수식도 없이 소박하면서도 평이하게 노래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가사는 시어의 취사선택과 표현수단의 구사에 서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가사는 《항일의 녀전사》(1절), 《항일의 명사수로 빛나던 그 모습》 등 언어구사로 항일의 녀성영웅, 투사로서의 소박성과 비범성을 직감적으로 알기쉽게 표현하고있으며 《못잊을 그날의 삼일포 총소리》라는 내용의 표현을 가사련들의 내용에 맞게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반복함으로써 작품의 종자가 가사 전체에 형상적으로 뿌리내리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주의를 하나의 전형적인 세부총소리로 인상깊게 집중시키고있다.

또한 《해방된 삼일포에 단풍이 타는데》(1절), 《푸르른 물결우에 정답게 비졌네》(2절), 《동백꽃 피여나는 남해의 기슭에》(3절) 등 서정적으로 집약화된 시적묘사로 민족적색채가 짙은 조선화적인 화풍을 적중하게 안배함으로써 작품의 형상적매력과 생동성, 향취를 강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사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념원과 의지, 신념과 같은 주도적인 감정을 풍만한 서정으로 노래하고있으며 철학적내용을 깊이 있게 담으면서도 그것을 직선적인 설명이나 개념으로가 아니라 특징적인 세부와 특색있는 서정적묘사를 통하여 형상화하였다.

그리하여 작품은 우리 인민에게 귀중한 정신적량식으로 되고 《8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부르는 서정적향취 그윽한 노래가 되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구감이시며 우리 인민이 언제나 흠모하며 그 혁명적생애를 따라 배우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명가사에 명곡으로 태어났고 독창과 합창, 관현악 등 여러가지 음악형식을 배합하여 독특한 노래로 형상된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는 또하나의 대작으로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다시한번 과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명작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는 온 누리에 충성의 메아리로 울려퍼지는 심장의 노래가 되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정서적으로 안반침하여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우리 혁명을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되고있는것이다.

군당책임비서

리춘구

우리 나라 중부지구에 웅장히 자리잡은 굴지의 대형화력발전기지-옥천강화력발전소의 위용. 그를 배경으로 화면위에 나타나는 자막.

군당책임비서

여기는 중앙공업이 집중된 영주군당. 책임비서 차석빈의 방에서 밤늦도록 군당확대 집행위원회가 진행되고있다.

모두 피로한 눈길들이다. 그러나 어느때없이 심각한 표정.

옥천강화력발전소 기사장 박우필이가 고통에 몸부림치듯 절박하게 웅청다.

《어제밤... 또다시 전력생산때문에 비판을 받구 우리 화력발전소사람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밤새 피로와했습니다.》

우필의 목소리 가늘게 떨린다.

더욱 무거워지는 실내 분위기,

한숨을 쉬는 박우필기사장.

《물론 25 만키로와트를 다 내지 못해서 련대기업소들의 생산에 지장을 준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룡산탄광 지배인동무!》

도전하는듯 자기쪽에 던지는 격한 어조에 우필 놀라며 박우필을 쳐다보는 몸이 비대한 탄광지배인 엄광준.

그의 눈길을 정면으로 꺾으며 박우필은 절박히 웅청다.

《지배인동무도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수 있습니까?... 아까 차에서 내릴 때 그래도 난 <정말 우리때문에 안됐습니다.>이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웃으면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 때...》

박우필이 목이 메어 더 말을 못한다. 그러나 광준지배인은 별로 자극이 안되는듯 책상우의 성냥갑을 뱅뱅 돌리더니

《난, 피로할 때 우는것은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기쁠 때 우는게 진짜 사내지!》 한다.

《뭐요?!》

기사장 박우필의 눈에 불이 난다.

마치 모욕을 당하는듯한 불쾌감이 우필의 온몸을 휩싼다.

자제력을 잃는 기사장.

순간에 팽팽해지는 장내.

불안한 눈길로 사태를 주시하는 발전소담당 군당지도원 안명준.

때마침 책임비서가 제때에 그들을 제지시킨다.

《아 아.》

참으라는듯 량쪽에다 손을 흔드는 차석빈.

잠시 침묵.

책임비서가 우필에게 눈길을 보내며 묻는다.

《그러니까 기사장동무!》

《.....》

《다섯대의 발전기가 다 제 능력을 내자면 하루에 2 천톤의 석탄을 더 넣어야 한다는거겠지요?》

아직 속이 비틀려서 잔뜩 쇠덩이 낫색을 하고 있던 박우필은 책임비서의 물음에 마지못해 입을 연다.

《예, 최소한...》

《그건 어쨌든 국내연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수 있겠지만. 거 중유는 어떻게 한다?》

차석빈은 대중없이 묻는다. 그 어떤 대답을 바래서가 아니라 뚫고나가기 어려운 장벽앞에 하도 난감하여 던져본것이다. 혹시 사람들의 눈길속에서 그 어떤 실마리라도 찾으려는듯 주의깊이 살핀다.

그러나 모두 넓은 앞상우에 눈길을 펼군채 될 수록이면 책임비서의 시선이 자기에게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뿐.

박우필이가 이 문제에선 내가 주인이라는듯 껴 붙여진 낯빛으로 책임비서를 쳐다본다.

《책임비서동무! 석탄문제만 풀린다면 중유는... 전력공업부에서 추가배정을 받자고 합니다.》

《추가 배정?!》

차석빈이 무슨 소리냐인듯 어지간히 놀란 눈길로 본다. 그리고는 인차 고개를 흔든다.

《아니, 그건 당의 방침과 어긋나요.》

《?!...》

당의 방침이란 소리에 우필이 힐끗 눈길을 돌린다.

그랬건말건 책임비서는 딱 자르듯 말한다.

《수입연료를 최대한 줄이라는데 더 요구하다니?!... 오히려 30 프로이상 줄여야 하우! 계속하오.》

박우필이 뭐라고 반박을 하려다가 차석빈이가 《계속하오.》 하는 바람에 반문을 단념하고 다시 탄광을 건드린다.

별로 선언적이고 령혹해지는 우필의 토론.

《여러말 할것없이, 룡산탄광에서 1 개월안으로 매일 2 천톤의 석탄을 더 밀어넣지 않으면...》

마지막 말에 그 어떤 차후 대책을 암시하는 박우필.

《우리로서도 결정적인 대책을 취해주겠다는결정서에 박아주기 바랍니다.》

《거 너무 위협조로 말하지 마우!》

탄광지배인도 조련치 않은 태도다.

엄광준이 의자를 밀어제끼고 비대한 몸집을 틀면서 거상처럼 일어선다.

일시에 불안과 기대의 눈길이 엄광준의 얼굴에
확 쏠린다.

두터운 안경테속에 번쩍거리는 두눈빛.

무엇인가 탄성이같이 무거운것이 가슴을 압박
하는듯 엄광준은 몸을 비튼다.

《나두... 집행위원회앞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

《우리 탄광을 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구해서,
빵떡이나 국수같은걸 해서 아낙네들이 이고오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진짜로 도와달라는겁니다! 진
짜루! - 이게 답니다.》

그가 집행위원회앞에 던진 말마디는 그 어떤
절박한 호소가 깃들어있다.

모두 침묵.

책임비서는 회의를 결속하려는듯 자리에서 무
겁게 일어난다.

《동무들, 지금 전당, 전국이 <80년대속도> 창
조에 들끓고있는 때에... 우리는 또다시 당에 격
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심중히 듣고있는 군당집행위원들.

잠시 말을 끊고 서있는 차석빈.

그의 맑던 목소리가 갑자기 흥분으로 갈린다.

《만일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을 앞세우면서 당의
요구를 단 하루라도 지연시킨다면 우리가 무엇때
문에 <절대성>, <무조건성>의 구호를 간곳마다
내걸었습니까?》

《.....》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숨을 내쉬는 회의참가자
들.

모두 대책을 못찾은 난감하고 피로운 표정들이
다.

무엇때문에 우리는 당의 구호를 간곳마다 내걸
었던가?

그것이 도시미화의 그 어떤 장식품이었던가?

아니면 결발림의 후과였던가?

우리는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시대
와 인민앞에 지닌 의무로써 당의 《절대성》, 《무
조건성》의 구호를 높이 받들지 않았던가!

누구에게라없이 던져진 책임비서의 이 질문은
확대집행위원회 참가자들의 가장 아픈곳을 여지
없이 찌른다.

침묵, 침묵...

아직은 누구도 대답을 못한다.

차석빈이 껍 같아앉은 목소리로 군당의 결심을
알린다.

《군당위원회는... 현실속에서 바로 이 대답을
찾자는것입니다.

우선 발전소에 나가 중유문제부터 풀고... 탄부
들과 의논해서 2천톤의 석탄도 증산하자는것입니
다!》

현실! - 군당책임비서가 너무도 평범한 《현실》
이라는 이 말에 비상한 의의를 부여해서인지 사
람들의 뇌리속에서는 오래동안 《현실속에서!》란

이 하나의 단어가 좀처럼 떠날줄 모른다.

《이만합시다.》

차석빈이 드디어 책을 덮는다.

화력발전소

거센 숨결을 내뿜는 화력발전소.

검푸른 밤하늘을 배경으로 솟은 발전소의 야경
은 황홀하다.

열 직장

화광이 분출하는 보이라.

책임비서가 여기로 들어온다.

두터운 철문곁에 웅크리고 앉아 이미 불이 꺼
진 생당썩물주리를 입에 물고있는 최관배로인은
갑자기 덜컥하고 철문이 열리는 바람에 와들 놀
란다.

《게 누구냐? 복철이냐?》

《제 차석빈이올시다.》

《아니, 이게 옛날 우리 공장당비서가 아닌가?》

차석빈은 6년전 이 발전소 당비서였다.

《예, 그새 편안하셨습니까?》

《음- 요새 편안칠 못하네. 이리 앉게.》

최관배로인이 깔고앉았던 내화벽돌 한장을 뿔
아서 석빈의 엉치밑에 놓아준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아바이의 인정에
차석빈은 가슴이 뭉클해진다.

왜서인지 로인앞에서 차석빈의 마음은 약해지
는듯하다.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책임비서.

그러는 차석빈을 이윽히 바라보던 최관배는 본
의아닌 힐책을 한다.

《그런데 책임비서의 어깨가 그렇게 푹 꺼져서
야 되겠나?》

관배로인의 탓하는 말에 차석빈은 금시 어린애
마음이 되는듯.

《어깨가 안처지게 됐습니까? 당에선 25 만키로
와트를 정상화하라는건데 우린 겨우 20 만으로
만족하고있으니... 야단이 아닙니까?》하고 내심을
그대로 토설한다.

《야단은 실지인즉 야단일세.》

최관배도 발전소사정이 생각할수록 난감한지
백색화염이 분출하는 미분탄로쪽을 한동안 묵묵
히 바라볼뿐이다.

책임비서는 그래도 뭔가 기대를 품고 로인을
쳐다본다.

《아버님, 그새 뭘 좀 생각한게 없습니까?》

《생각?》

로인은 뜻밖에 놀라며 단번에 밀어치운다.

《난 작년부터 그럴 생각 안하기루 작정을 했
네.》

《예? 아니 왜요?》

저으기 놀라서 반문하는 책임비서.

필시 로인이 이럴진대 그뒤에 무슨 말못할 사

연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차석빈에게 대번 들었다.

《?!...》

대답을 기다리는듯 최관배를 쳐다보는 책임비서.

로인이 책임비서앞에서야 뭘 숨기라 생각했는지 마음 내키는대로 다 털어놓는다.

《아, 간부들이 내려올적마다 이 최관배가 오랜 열관리공이라고 의견을 묻길래 몇번 얘기해주었더니...》

로인의 낯색이 금시 검푸러진다.

노기가 의연히 어리는 최관배의 목소리.

《아 여기 간부들이 <로망을 하오>, <주책머리 없소.> 하더군. 그래 아예 입을 봉했다니!》

《?!》

누구에게인지 모를 로인의 가슴에 맺힌 향의는 차석빈의 마음 한쪽을 띠금하게 한다.

남에게 잔소리 한마디 삼가하는 로인이 이렇게 말할 때야 오죽 그 가슴이 아파서 그랬으랴!

차석빈이 한무릎 나앉으며 《아버님.》 하고 다정히 부른다.

그러나 로인은 오히려 뒤로 물러난다.

《아, 글썄, 난 입을 봉했단िका!》

쉽사리 허물어질 《요새》가 아니다.

차석빈은 로인을 노엽히면서까지 소견을 청할 수 없어서 하는수없이 《우회전술》을 쓰기로 결심한다.

슬쩍 말머리를 돌리는 책임비서.

《참, 아버님, 그새 손녀는 시집을 갔다지요?》

그러자 순간에 낯색이 풀어지는 최관배.

《그럼. 그년이 시집을 가더니 제 서방밖에 몰라!》

《그러니 썩 적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두 잔등이나 굶어주는 로친을 하나 열자하다가 그만뒀네.》

차석빈이 절로 웃음이 나는걸 참는다.

《책임비서두 웃는군... 이제 때가 지났지. 한 10년만 젊었어두 매련을 보는건데.》

여전히 웃는 차석빈.

《아버님.》

《참 질기기두 하다.》

《아버님.》

《그래 꼭 내 의향을 듣고싶은가?》

《예. 아버님이... 어디 군당책임비서라고 생각하구 좀 풀 방도를 궁냥해보십시오.》

《뭐?! 내가 군당책임비서라 하구?》

저으기 놀라는 최관배로인.

《예.》

《음, 책임비서라... 당적분공인가?》

《아, 그럼요.》

책임비서의 정색한 대답에 로인은 갑자기 가슴이 후터워난다. 늙어갈수록 관심밖에 나는게 늘 섭섭하던 최관배인데 오늘 차석빈이가 그것도 군

당책임비서가 품을 내서 자기를 찾아온 그 고마움이 그의 마음을 한없이 부풀게 한다.

흐뭇해 앉아있는 최관배로인.

때마침 열직장 걸문이 덜컥 열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기사장 박우필이가 썰하니 들어온다.

반가와하는 박우필.

《아, 여기에 와있는걸, 마당에 차가 서있길래... 갑시다.》

《가시오.》

차석빈이 기사장의 청에 일어서며 다시한번 로인에게 인사한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그럼 또 보세!》

로인은 엉치를 들었다놓는다.

구내길

단들이 걸어가게 되자 우필은 말투를 고친다.

《자네두 참, 그 로망하는령감한테서 뭘 들을게 있겠다구 떡 마주앉아서 허허...》

그 소리에 새삼스레 박우필을 쳐다보는 차석빈의 낯에는 미소가 사라진다.

《기사장, 자넨... 옛날 최아바이의 견습공이 아니었던가?》

《그야 20년전이지.》

《그래.》

우필은 책임비서의 기분에 별로 개의치 않고 화제를 돌린다.

《군당책임비서두 속이 타서 나왔겠지만 생산문제는 내가 직접 전력공업부와 상론해서 풀터이니 군당에선 너무 걱정말게!》

《왜? 간섭하는것 같아서 그러나? 특급기업소에?》

차석빈은 걸음을 멈추고 기사장의 진속을 가늠해보는데 우필은 얼른 미소를 지으며 속심을 감춘다.

《원, 무슨 소릴... 군당에서야 지방산업공장들만 몰래도 아를찰테니 그러지...》

《.....》

이렇게 말을 하던 우필기사장은 갑자기 친구앞에 숨길게 없다고 생각했던지 석빈이 가까이로 와서 정색하여 입을 연다.

《술직히... 전력생산문제는 늘 침예하네. 너무 깊이 개입했다가는 아주 빠져버릴수가 있어!》

《?!...》

《어느 당일군 하나가... 전문도 아닌 기술문제에 아주 깊이 끼여들었다가 큰 파오를 범하구 종시 이렇게 뻘뻘하더군.》

우필은 제말의 참뜻을 인식시키려는데 손등으로 목떨어지는 시늉까지 한다.

그것은 우필이로서 친구인 책임비서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다.

무심히 들을수 없는 기사장의 조언.

순간 참으로 자신도 그 어느 당일군처럼 그런

실수할 할수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석빈의 가슴을 찢었다.

하나 석빈은 어이없는 웃음으로 답변한다.

기사장방

먼저 들어온 박우필이가 옷걸이에 모자를 걸면서 펄 다정한 음성으로 말을 꺼낸다.

《참 여보게, 우리 조카아이가 제대돼 왔네. 수영이(책임비서의 딸)한테서 들었겠지?》

어제밤 수영이가 부끄러워하며 원철이 이야기를 하던 생각이 나자 석빈은 절로 감회가 깊어진다.

《원철이가 보고싶구만.》

어릴적의 모습을 더듬는 차석빈.

그 심정을 헤아리는듯 박우필이 친구의 곁에 와 앉는다.

《여보게, 심중히 의논할 문제가 있어.》

《뭔데?》

《원철이 그 녀석이 탄광엘 가겠대.》

《엉?!...》

그것은 참으로 석빈에게서 뜻밖의 소식이다.

탄광에 간다?... 그럼 우리 수영이는?...

순간 차석빈의 뇌리에 스치는 생각들이다.

박우필이 진중하게 말을 꺼낸다.

《그러면... 자네네 수영이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

《이것 보게, 수영이야 외딸인데 데리고있어가지?》

《.....》

《원철이를 읍에 떨구도록 하세!》

그제사 놀란 눈길로 박우필을 쳐다보는 차석빈.

《읍에?》

그 말을 부정하듯 석빈은 고개를 흔들다.

《아니... 원철이가 탄광엘 자진했다면... 그 결심을 막을 필요가 없어.》

이번에는 우필이가 의아해한다. 그게 진심이나?

하는 눈길로 친구를 오래동안 쳐다본다.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 책임비서 차석빈.

《우린... 탄광을 진짜로 도와줘야 해! 진심으로!》

이것은 언제인가 확대집행위원회때 탄광지배인이 절절하게 웨쳤던 바로 그 요구이다.

박우필은 너무도 뜻밖인듯 말을 못한다.

옥천강가

질은 저녁노을.

들국화 핀 강언덕에 남모르게 다정히 앉아있는 청춘남녀.

그들은 바로 제대군인 박원철이와 책임비서의 딸 차수영이.

온몸에서 녀교원의 체취가 느껴지는 아릿다운

처녀 수영.

무슨 말끝인지 수영은 제풀에 얼굴이 새빨개지는데 원철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웨쳐댄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정식 인사하잔말이지?》

《아이, 몰라요!》

수영이 고개를 외로 튼다.

《그저... 아침에 엄마더러 <아들 하나 벌었소.> 하시더니... 동무를 데리구... 집으로 오라했어요.》

《그래?! 좋아!》

떨듯이 좋아하는 원철.

원철은 행복에 넘쳐 수영의 손목을 이끌고 달려간다.

마치 행복의 언덕인듯 노을비긴 강언덕을 숨가뻑 달려가는 원철이와 차수영이.

그날밤

책임비서의 집. 울바자앞에 서성거리던 처녀총각이 갑자기 뒤에 나타난 승용차의 전조등에 깜짝 놀라며 서로 저만치 물러선다.

승용차안에서 빙긋이 웃는 차석빈.

《어마나! 아버지가 오시네.》

《뭐?》

당황해서 어쩔줄 몰라하는 그들.

차에서 내리는 차석빈.

《아니 이게, 우리 원철이가 아닌가?》

《옳, 안녕하십니까? 책임비서동지!》

《응, 원철이! 어디 보자! 아주 의젓해졌구만! 엉?》

그러는사이에 수영은 가방을 받더니 살짝 빠져 집안으로 숨어버리고만다.

《자, 앉자구! 어서!》

책임비서는 원철의 팔을 끼고와서 마당가에 선 은행나무밑 의자에 와 먼저 앉더니 원철의 군모를 벗겨쓴다.

《어때?》

군모를 쓰니 차석빈의 모습이 십년은 더 젊어 보인다.

원철이 기뻐서 웨친다.

《좋습니다!》

《하하!》 유쾌하게 웃는 차석빈.

부엌

차석빈의 처 정심이가 함박꽃 같은 웃음을 담으며 《뭐, 왔어? 어디 좀...》 하고 나가려는데 수영이가 어머니의 팔을 급히 잡는다.

《아 어머니, 좀 참아요. 지금 책임비서동지가 담화하시는데!》

《요건 그저!》

코등을 때려주는 정심.

부뚜막에 차려놓은 음식을 만족스레 바라보는 수영.

그의 맑은 두눈이 행복감에 가득차있다.

마당

차석빈이가 한무를 다가앉으며 새롭게 묻는다.
《탄광으로 갈 결심이란 말이지?》
《예! 초소에서 떠나올 때부터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원철의 그 대답은 석빈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그런데... 탄광일은 힘들어?》
결심의 뿌리가 든든한가 한번 흔들어보는 책임비서.
《전, 편안한 생활이 질색입니다!》
《여기서 멀지... 백리길이니까.》
《예, 압니다! 전 거기 가서 룡산에다 영원히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뒤집을 지고 마당가를 말없이 오가는 차석빈.
그 어떤 피로움의 그늘이 석빈의 넓은 이마 한 구석에 어리는가.
《기어이 가겠단말이지...》
이것은 묻는 말도, 대답을 바라는 소리도 아니다.
그 어떤 표현하기 어려운 혼잡한 감정이 일순간 그의 마음을 허전하게 했던것이다.
당일군도 인간이니까!
하나 원철을 보는 석빈의 두눈은 드디어 선망으로 빛난다.
그는 바로 오래전부터 이런 청년을 바랬었다!
외팔을 말길 수 있는 청년이 이처럼 억세고, 삶의 목표가 뚜렷한, 오직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할수 있는 그런 청년을 바라지 않았는가!
《좋아! 자넨 군사복무를 헛하지 않았어!》
차석빈은 원철의 어깨를 다정히 끌어안는다.
《원철이, 당에선... 옥천강발전소에서 전력을 내지 못하는데 대해 대단히 걱정하고 있네.》
《.....》
《그런데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룡산탄광에서 석탄을 제대로 못채추기때문이야.》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철은 더우기 탄광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것이다.
차석빈은 원철에게 진심을 토로한다.
《원철이, 우린 당원이이지? 당원이 어떻게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 못하구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겠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석빈이가 너무도 피로와하자 원철은 어쩔바를 모른다.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 책임비서.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것 같구... 자리에 누워도 잠을 못자네.》
원철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은 석빈이.
그 어떤 마음의 기둥으로 삼으려는듯 원철을

품속에서 놓지 않는다.

점차 걱정예 차는 차석빈.

《탄광에서 기뻐할게야! 우린 그새 탄광을 잘 돕지 못했어!》

《꼭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차렷자세를 하는 원철.

《좋아, 자넨 참 좋은 청년이야.》

원철의 손을 힘있게 쥐어주는 책임비서.

《우리 일을 잘해보자구!》

새로 힘있게 끌어안은 책임비서와 원철이.

부엌에서 나오던 수영은 그들이 왜 그리 기뻐하는지 그 내막을 모르면서도 공연히 좋아한다.

하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날로부터 꼭 지나서야 수영은 그때 자기 집 마당가에서 아버지와 원철이가 왜 그리 뜨겁게 포옹했던가를 알았었다.

그것은 수영에게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다.

어느날(공원)

원철이와 수영이가 공원의 한 나무밑에 나란히 앉았다.

멀리서 보면 상당히 행복했을상 싶은 한쌍이나 지금 그들은 심각한 감정에 싸여있다.

차수영의 착잡한 낮빛.

오래동안 침묵...

속이 타는듯 담배만 펍 펍 빠는 원철이.

수영이가 다시한번 간절히 조른다.

《탄광 가는 문제...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참, 답답하게 그러누만! 내 초소를 떠나올 때 중대전우들앞에서 맹세했다잖아?》

《그 동무들이 어떻게 알아요?》

《뭐?! 모른다구 제 량심이야 속이겠어?... 이봐. 병사의 맹세는 조국과 한 맹세구... 혁명에 바친 송고한 맹세야! 그런데 내가 그걸 더럽히다니?!...》

《?!...》

고개를 떨구고 담담히 앉아있는 수영.

원철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왜, 탄광에 가기 싫어?》 한다.

《집안일이 걱정돼서 그래요. 가면 아주 가야 되지 않아요?》

《그건... 다 구실이야!》

《예? 뭐라구요?》

《정 싫다면 할수 없지! 예익》

원철은 어쩔새없이 벌떡 일어난다.

《원철동무! 원철동무!》

그러나 원철은 벌써 저만큼 가버렸다.

울분에 차서 씩씩 달아나는 원철의 뒤모습을 원망스레 쳐다보고 서있는 차수영.

수영은 원철을 따라가지도, 쫓지도 못한다.

갑자기 야속한 마음이 확 몰려온다.

어쩌면 그렇게도 수영의 마음을 몰라준단말인

가?

그는 지금도 자신을 위해서 그런걸 청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기가 떠나면 외롭게 지내실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그랬었다고 그는 믿어왔다.

수영의 두눈엔 천천히 눈물이 솟구쳐오른다.

아버지는 이 딸의 심정을 이해해줄것이다.

수영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군당청사쪽으로 향한다.

책임비서방

최관배로인이 찾아왔다.

《내 분공을 받구 운탄, 하차, 타빈직장… 몽땅 다니면서 <내가 책임비서라구 생각하구 당장 걸린 증유와 탄을 풀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어디 서슴지 말고 말해보게> 했더니 운탄직장녀석들은 <할아버지가 무슨 책임비서예요?> 이러질 않겠나?》

차석빈이 웃는다.

《그건 그렇구. 운탄직장녀석들이 내놓은 소견이란게 로력을 한 삼백명 푹 때서 탄광에 가서 탄을 캐자는거야.》

《탄광에요? 아니 그럼 전기는 누가 생산하구요?》

《나두 틀린 생각이라고는 했네만 탄이 문제야. 이제 한달내로 저축탄까지 박박 굶어떨판이니 까!》

《예? 그래요?…》

저으기 놀라는 차석빈.

금시 얼굴에 한가득 걱정이 싸이는 책임비서.

로인이 제말을 마친다.

《그리구… 뭐. 쓸쓸한 의견이란게… 그게 다네. 하긴 뭐, 생뚱한 소리가 나오겠나? 기사장 우필이두 생각 못하는걸…》

《아니 왜요? 기사장이 생각 못하는걸 노동자들은 생각할수 있지요.》

《그래두 우필이 그 녀석은 찍하면 <아, 동무네가 생각하기전에 내가 먼저 다 해본거요.> 하군 하니까 허허… 난 그만 가보겠네.》

《아, 가시다니요? 더 말씀하시지 않구…》

석빈은 로인을 따라 일어서다가 안락의자우에 놓인 최관배의 모자를 보자 《아버님. 이 모자!》 하고 그것을 손에 든다.

《응?》

돌아서는 최로인.

기름때가 반질거리는 로인의 모자를 보자 책임비서의 마음은 흐려진다.

홀로 사는 로인의 모습이 더욱 가궁해보인다.

석빈은 말없이 웃결이에 가서 자기의 모자를 벗긴다.

《아버님, 이 모자를 쓰십시오.》

《아, 아니.》

최로인이 당황해서 손을 내젓는다.

《글쎄 이걸 쓰십시오.》

굳이 씌워주는 차석빈. 모자를 어루만지는 최관배.

《아, 이걸 쓰면 진짜 책임비서로 알지 않겠나?》

《글쎄 쓰시라는데두…》

사양은 하면서도 별로 흡족해하는 최관배로인.

《허허… 자 그럼.》

출입문가로 가던 로인은 왜서인지 딱 멈춰선다.

《?! …》 최관배를 보는 책임비서.

관배로인은 자기의 건당중에 제풀에 웃는다.

《허참, 이런 정신 봤나! 장가가면서 뭘 때놓구 간다더니… 거시기 왜 태성목이 있지?》

《태성목이요?!》

차석빈이 얼른 기억이 나지 않아서 눈을 껌벅거리는데,

《아, 거 이거 잘한다는 (머리받는 시늉을 한다.)

녀석 있잖나? 쌍둥이애비!》 하고 일깨워준다.

그제사 차석빈은 생각나서

《예- 공무동력에 태동무!》 한다.

《웁으이! 지금은 열직장에 와있어. 아 소조원의 말이 뭐 <좋은걸 백가지나 적은게 있대요.> 하길래 내 집에까지 찾아갔더니 벌컥 성을 내지 않겠나? 원 성미는 개차반이야!》

《아니 왜 성을 냈디까?》

《음- 그럴 연고가 있긴 해. 전년엔가 검열사업 왔을 때 우필기사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두구두구 으르렁거리네. 요즘은 완전히 개와 고양이세!》

《예- 태성목》

무심히 듣지 못하는 차석빈이다.

석빈은 여태 친구 우필이가 사람이 좋아서 누구나 자기처럼 호감을 가지고 대한다고 믿어왔었다. 그러나 우필에게도 태성목이와 같이 가슴에 맺혀있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 말할수 없는 허전한 생각이 순간 책임비서의 마음을 휩싼다.

파연 성격이 활달하고 일밖에 모르는 박우필이를 진정 이해 못하는 인간도 있었단말인가?

차석빈은 수첩을 꺼내 《태성목》이라고 잊지 않기 위해 써놓는다.

군당접수(대기실)

수영이가 아까부터 와서 기다린다.

기다리기에 지친듯 소설책을 보던 수영은 마침 마당가로 나오는 아버지를 보자 반가와 얼른 일어난다.

마당으로 나와 아버지쪽으로 달려가던 수영은 그만 멈춰선다.

아버지가 자기의 승용차에 최관배로인을 태우고있는것이다.

《자, 타십시오.》

로인은 사양도 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무등 좋

아하며 승용차에 오른다.

책임비서가 차문을 닫으려는데 로인은 또 잊은 게 있는듯.

《아침, 여보게!》 하더니 뒤일이 걱정되는듯 오금을 박는다.

《기사장한테는 태성목이 얘기를 내가 했다고 아예 말게 응?》

《예, 예.》

차석빈이 차문을 콧 달아준다.

차가 떠나기를 기다려 수영이가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결로 온다.

《아버지!》

《오, 너 왔니?》

언제나 딸을 보면 온갖 시름이 다 잊어지는 차석빈이다.

《시원하게 공원으로 나가자!》

《네.》

딸을 대견하게 앞세우고 청사앞 공원으로 나가는 차석빈.

공원

작은 못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그사이에 난 포석길로 천천히 걸어가는 석빈은 지금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에 싸여있다.

수영이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진정에 넘쳐 부탁한다.

《아버지... 전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제 개인의 문제를 물어달라고 청을 드린 일은 한번도 없지요?》

《그건... 당일군의 가정의 가풍이다.》

차석빈의 이 말은 사실이다.

석빈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의 직책을 등대고 험하게 살려는 그 어떤 요소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았다.

당일군이, 더구나 책임비서가 당권을 쓰면 그것은 인민의 총복이 되는게 아니라 인민우에 선 판로배가 된다고 늘 생각해온 그였었다.

그러나 수영이가, 그 어진 수영이가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해 애쓰다가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믿고 꺼낸 첫부락을 거절하기는 그리 쉬운것이 아니었다.

그 심정을 수영이가 지금 가늠이나 할가

《아버지가 좀 말해주세요. 네?!》

그것은 차석빈이더러 원철의 결심을 막아달라는 부탁이다.

하는수없이 말을 꺼내는 차석빈.

《아니-》

고개를 흔든다.

《원철인 당의 이름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 그걸 풀러 가는거다. 군당책임비서인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막겠니?》

《아니, 그럼 아버지?...》

수영은 아버지를 처음 보거나 한 사람처럼 뻥

히 쳐다본다.

이렇게 거절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수영이다.

세상 자기가 바라는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것이라고 믿고 살아오던 아버지가 이렇게도 뻥뻥히 거절하다니?...

순간 설음이 콧 물려든다.

《그래 어려운 부탁이란게 그게 다냐 응?》

《네. 다예요.》

금시 울음이라도 터질듯.

수영은 아버지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돌아서며

《그럼 전 가보겠어요.》 하고 떠들거린다.

《수영아!》

석빈은 마치 자기의 품에서 수영이가 영영 떠나거나 하는듯 겁먹은 소리로 멈춰세운다.

일시에 허전해지는 마음.

《얘기나 좀 하다 가렴 응.》

그러나 수영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냥 가버리는 딸.

《애야!》

자신없는 목소리로 다시 부르는 차석빈.

수영은 이미 공원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쓸쓸한 감정에 싸이는 주인공 차석빈.

공원에 홀로 서있자니 고독해지는 마음 감출길 없다

저 애가 날 원망하겠지...

기사장의 집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또하나 있었으니 그는 다름아닌 원철이었다.

이제와서 수영을 단념한다는것은 원철에게서 너무도 기막힌 사실이였다.

한번도 마음속에서 잊어본적이 없는 수영이!

그러나 그들은 오늘 결별했었다.

침대우에서 담요를 머리우까지 뒤집어쓰고 고민하는 원철.

세면장에서 얼굴을 닦으며 들어오던 박우필은 침대우에서 꿈궁 앓는 조카를 보자 그결로 다가가서 담요를 와락 벗긴다.

《사내가 왜 그리 나약해?》

《삼촌! 제발 가만두. 가슴이 터져와서 못견디겠소!》

울분에 차서 고향치는 박원철이.

우필이도 어지간이 조카가 노엽다.

《수영이는 자식된 도리를 지킬줄 아는 훌륭한 처녀다. 책임비서의 가정에서 그 애는 행복의 전부야.》

《?!...》

《그런데 네가 그 애를 부모의 슬하에서 뭉텸 빼가겠다니 어디 옳은 행동이냐?》

원철은 그 말에 담요를 차고 일어난다.

《그럼 나더러 어찌라는거요?》
《네가 양보해라.》
양보라는 소리에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 원철이.
《양보하라구요? 무엇을 양보하란말입니까? 한갓 처녀때문에 병사의 량심을 췌버리란말이요? 예!》
《뭐?》
조카의 반발에 드디어 성을 내는 우필.
《난 책임비서를 위해서 그러는거다! 사람이 원칙 하나만으로는 못살아!》
《…?!》
《인간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거야.》
《?!…》
한동안 흥분을 억제하느라 애쓰는 박우필기사장.
《원철아…》
조카의 손을 쥐는 우필.
《이 삼촌의 간절한 부탁이다. 책임비서동무를 위해서 네가 읍에 떨어져라.》
《삼촌…》
《오늘은 솔직히 말하자. 수영이 아버지는 전쟁 때 내 생명의 은인이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더없이 놀라는 원철.
《수영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난 벌써 전쟁 때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몸이야.》
《………》
《나도 네 심정을 안다. 그러나 너도 사람이니 사람으로서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이 삼촌의 심정을 모르지는 않겠지?》
《삼촌…》
《이제 수영이가 그 집에서 나가면 누가 수영이처럼 책임비서동무를 돌보겠느냐?》
《………》
한숨을 내쉬는 박우필이.
《요새 책임비서동무가 자주 약을 먹는게 난 가슴에 걸린다. 통 제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니 참!》
《………》
생각에 잠기는 박원철이.
《잘 생각해봐라.》
한마디 남기고 나가는 우필기사장.

책임비서방(대기실)

제대군복차림의 한 청년(강영호)이 문밖으로 책임비서방안을 흥미있게 들여다보고있다.
제대군인(1)이 들어오다 보고 그를 건드린다.
《여, 뭘해?》
《췌-》
영호가 드디어 허리를 펴면서 대기실에서 지루히 기다리는 동료들에게 얘기한다.
《여, 우리 지배인이 몸이 이렇구만!》

그는 창가쪽으로 돌아앉아있는 원철이곁으로 온다.
《여 원철이, 우리 사단장동지같지 않아요?》
《………》
제생각을 쫓고있던 원철은 영호의 말을 듣지 못한다.
이상한듯 바라보는 강영호.
《아니, 여 동무, 왜 그래?》
그제사 돌아보는 원철이. 그는 시끄러운듯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밀막아버린다.
강영호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건드린다.
《그 처녀는 만나봤나?》
《………》
이번에도 대답을 피하는 원철이. 고개만 흔든다.
강영호가 지긋게 다시 묻는다.
《여, 그 처녀아버지가 뭘한다구?》
드디어 그 말에 원철은 짜증을 내고야만다.
《아, 별걸 다 묻는군!》
책 돌아앉는 원철이.
영호는 어이없는듯 《자, 하하》 하고 웃는데 원철이도 껍하고 선웃음을 친다. 의미심장히 바라보는 《땅크병》

방안

탄광지배인 엄광준이가 제대군인들을 인제받고 있다.
책임비서가 그들의 명단을 적은 문건을 지배인에게 넘긴다.
《지배인동무가 진짜루 도와달라기에 우린 훌륭한 제대군인들을 한명도 때지 않고 그대로 다 탄광에 췌소. 자, 그래 흡족하우?》
《예, 만족합니다.》
엄광준이 사람좋은 미소를 짓는다.
따라웃는 책임비서.
《허허… 그런데 지배인동무.》
차석빈이 잊지 않고 제때에 채근한다.
《거, 2천톤은 언제부터 보내주겠소?》
《예?…》
그 소리에 금시 낫색이 죽어지는 엄광준지배인.
책임비서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진다.
《왜, 자신이 없소?》
다정히 물어주는 책임비서.
거기서 힘을 받은듯 탄광지배인은 솔직히 고백한다.
《저… 사실 책임비서동지, 현재 능력으로는 좀… 힘들것 같습니다.》
엄광준은 혀가 굳어진듯 겨우 마지막 말을 떠듬떠듬 외운다.
대번에 책임비서의 눈에서는 그 어떤 불빛이 튕겨난다.

《힘들다구요?》
 《예, 그래서... 책임비서동지만 협력해주신다면
 년산 한 20 만톤능력의 새로운 탄갱 하나를 더
 개설할가 합니다.》
 《신설경을요?》
 《예.》
 《아니, 로력과 자재는 어디서 받구요?》
 그 말에는 엄광준도 더는 입을 못벌린다.
 《혹시 국가에 손을 내밀자는건 아니겠지요?》
 너무도 명백할것이지만 차석빈은 그 사실을 인
 정하고싶지 않아서 스스로 부정해보는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지는 엄광준.
 《책임비서동지...》
 그 어떤 타협을 기대하는 탄광지배인의 눈길을
 보자 차석빈은 하는수없이 딱 자른다.
 《지배인동무, 당은 통산탄광에서 현존능력으로
 <80 년대속도>를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
 다.》
 《그렇긴한데...》
 난처해하는 지배인.
 차석빈은 안타까이 웨친다.
 《거, 좀 예비를 탐구해보시오. 생산의 예비는
 로력증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로동계급의 이
 심장속에 있습니다.》
 차석빈은 지배인의 가슴을 탕탕 쳐준다.
 《그 심장을 한번 대담하게 울려보시오!》
 차석빈의 절절한 호소에 엄광준은 더는 말을
 못한다.
 석빈은 속이 타서 웨치기는 하나 그만큼 더욱
 답답해진다. 탄광과 발전소, 어느 한 고리도 씨원
 하게 풀리지 않는다. 지금 탄광지배인을 보면서
 차석빈은 우릴을 생각했다.
 과연 중유문제는 어떻게 푼단말인가?
 차석빈의 마음 더욱 납덩이처럼 무거워난다.

옥천강화력발전소
 승용차가 청사앞에 와 선다.
 책임비서와 담당지도원 안명준이 차에서 내린
 다. 그들이 막 현관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저쪽 담
 모퉁이에서 어떤 사내의 성난 목소리가 들린다.
 《자, 이거 놓으라는데! 난 꼭. 책임비서동지를
 만나야겠단말이야!》
 키가 작은 녀인이 사내의 팔에 매달린다.
 《야, 정말 글썄 여보! 또 무슨 일을 저지르자고
 그래요?》
 《글썄 난 여기 못있어!》
 《야, 정말. 여보, 한번만 더 참으세요 네?!》
 그쪽을 보고 서있는 책임비서.
 여기에 들리는 사나이의 웨침소리 《놓으라는
 데!》
 담당지도원이
 《태성묵동무입니다.》 하고 알으켜준다.
 《음... 낮이 익소. 태성묵이지...》

다시 태성묵 처의 안달은 목소리 들린다.
 《어서 가지자요!》
 그 소리가 사내의 기승을 꺾는다. 할수 없이
 안해의 손에 끌리워가는 태성묵.
 안명준지도원의 자책에 어린 목소리.
 《공장안에서두 세번씩이나 직장을 옮겼는데도
 아직 안착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무대에
 두 내세웠는데...》
 《그러는 원인이 뭐요?》
 《공명주의가 있습니다.》
 《공명주의?!...》
 《예, 자기를 인정해주는데 가서 일하겠다는겁
 니다.》
 마침 발전소당비서가 나오며 인사한다.
 《책임비서동무!》
 차석빈이 반갑게 악수한다.
 《아, 비서동무!》
 《어서 들어갑시다.》
 인상좋은 발전소당비서가 앞서서 청사안으로
 들어간다.

열직장교양실

방금 세포총회를 끝내고 흐뭇하게 담배를 피우
 는 열직장세포 당원들.
 그러나 한쪽구석에는 아까 청사앞에서 본 청년
 (태성묵)이 맞갖지않는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있
 다.
 밖에 나갔던 차석빈이가 들어오며 말을 꺼낸
 다.
 《세포비서동무, 이자 회의에서 3 대혁명결의조
 향을 조항별로 따져보니 빈구석이 많다는게 보이
 지요?》
 순진해보이는 세포비서가 웃는다.
 《예, 이젠 보입니다.》
 《소조원동무는?》
 차석빈이 저뒤 태성묵이 곁에 앉은 대학생소조
 원에게 눈길을 보낸다.
 귀엽게 생긴 소조원처녀가 생긋이 웃으며
 《예, 숨어있던 약점이 다 나타났습니다.》 한다.
 책임비서 통쾌하게 웃는다.
 《하하... 좋소! 자 이제는 모두 높은 목표를 세
 뒀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두 꼭 합시
 다.》
 《예. 합시다.》
 세포당원들이 성근히 호응해나선다.
 차석빈이 무슨 좋은 착상이 떠오른듯 발전소당
 비서를 본다.
 《비서동무, 개별결의조향을 부문별로 써서 래
 일 정문에다 내다붙이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예, 그게 좋겠습니다. 세포회의결정이니까요.》
 차석빈이 그 말을 긍정한다.
 세포결정-그것은 당원들 스스로가 진 조직의
 의무다.

그래서 차석빈은 당비서의 말을 다시 곱씹는다.

《웁습니다. 우리는 설사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당을 속여서는 안되오. 왜냐 하면 당을 속이는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것이니까!》

지금껏 한마디 없는 태성목이가 갑자기 큰소리로 웨치는 바람에 모두의 눈길이 그에게 짹-쫓린다.

《예! 웁습니다! 당은 바로 우리의 량심이니까요!》

태성목을 바라보는 차석빈.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친다.

성목의 그 눈길에서 무엇인가 절박히 호소하는 듯한 예감을 받는 차석빈은 순간 최관배로인의 생각이 났다.

태성목이는 어떤 인간인가?

과연 그가 《말썽군》이며, 올려받기 잘하는 《불평분자》이며 《공명주의자》란 말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그의 입에서 《당은 량심이다》라는 소리가 과연 아무 꺼리낌없이 나올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좇으며 태성목을 이윽히 바라보는 차석빈.

그의 눈길을 피하는 태성목.

차석빈이 의미심장하게 묻는다.

《태동무!... 동무가 이 발전소를 뜨겠다는건 진심이요? 아니면 엇드레질이요?》

《예?!》

태성목이 자기네 당비서와 눈이 마주치자 입을 꼭 다문다.

그 눈치를 챈 소조원이 조용히

《술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고 힘을 준다.. 은근히 긴장해지는 발전소당비서.

차석빈이가 다시 한번 독촉한다.

《방금 동무는 <당은 량심>이라고 하지 않았소?》

그 소리에 태성목은 드디어 입을 연다.

갑자기 흥분하는 태성목.

《책임비서동지! 털어놓읍시다. 그까짓거!》

《?!》

불안한 눈길로 태성목을 치며보는 당비서.

하나 태성목은 불처럼 내뿜는다.

《내 이제 소조원동무한테도 말했지만 사실 난 가고싶지 않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왜 떼를 쓰오?》

《기사장이 보기싫어 그러니까!》

《?!》

그 말에 어지간히 당황해지는 책임비서.

발전소당비서도 순간 얼굴이 붉어진다.

차석빈이 어색한 순간을 웃음으로 얼버무린다.

《하하, 사람이 사람을 보기싫어하면 큰 야단인데?》

이렇게 레사롭게 넘기지만 지금 차석빈의 가슴

은 범선이 암초에 부딪혔을 때처럼 충격은 이루 형언할수 없이 컸다.

그가 자기 몸의 한부분처럼 여겨오던 친구 박우필인데 지금 태성목은 마치 그가 인생의 적수처럼 말하지 않는가?

오죽했으면 기사장때문에 초소마저 뜰 생각을 했겠는가?

책임비서 기분을 달리한다.

《참 태동무! 그 백가지안을 적은 책이 지금 어디 있소?》

《예?!》

뜻밖의 물음에 태성목이도 당황해진다.

차석빈이 너그럽게 웃는다.

《약속하지요. 그 책을 가져오겠지?》

대답이 없는 태성목.

그러는 태성목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처녀소조원.

《응? 태동무!》

차석빈이 다시 한번 요구한다.

《.....》

끝내 대답을 피하는 태성목이.

책임비서는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보이라실

소조원과 함께 전동기수리를 도와주고있는 책임비서.

차석빈이가 대형전동기축에서 베어링을 뽑아낸다.

이마며 코언저리에 시커먼 기계기름이 묻은 책임비서의 얼굴을 보던 소조원은 협낭에서 손수건을 꺼내주며 웃는다.

《아이, 얼굴을 좀 닦으십시오.》

《아, 일없소. 일하는 사람이 뭐라오? 음...》

차석빈이 다시 생각을 더듬는다.

《그래서 태성목의 성격이 어즈러지기 시작했소?》

《네. 기사장동지가 그까짓책 휴지통에나 넣으라고 한 다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원 사람두!》

갑자기 우필에 대한 노여운 생각이 확 든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수채도 노동자들속에 있고, 인민속에 백과사전도 있다고 한두번만 가르쳐주셨던가. 그런데 한공장의 기술을 대표하는 기사장인 그가 한 노동자의 발기를 그렇게도 무참히 짓밟다니...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랬구만!》

그것은 남편의 팔에 매달리던 태성목의 처를 두고 하는 소리다.

《예, 태동무때문에 운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음... 병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구만...》

자기의 생각을 확증하는 차석빈.

태상목의 집

웃동을 방바닥에 벗어던진 태성목이가 책장의 책들을 몽땅 꺼내서 뒤져본다.

그는 문가에 서있는 안해에게 역증을 낸다.

《아, 이 책뒤에 건사했더랬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 안야? 엉!》

《난 정말 못봤다질 않아요?》

팩 내쏘는 태성목의 처.

그러자 태성목은 안타까운듯.

《여보! 어서 내놓으라구. 아, 군당책임비서동지가 직접 보겠단다질 않아요?》

그 소리에 놀란듯 쳐다보는 안해.

《아니 책임비서동지가요?!》

《그럼!》

《아이 참, 당신은 또…》

《정말이라니까!》

그러나 태성목의 처는 고개를 흔든다.

《책임비서동지가 뭇때문에 그런걸 다 보시겠어요? 기사장동지한테 한마디 물어보시면 다 알걸…》

《아, 요런!》

《안요, 난 다신… 그런 모욕받고싶지 않아요! 뭇때문에… 가만있으면 편할걸…》

이때 저 아래쪽에서 승용차 경적소리.

얼결에 창밖을 내다보던 태성목은 왜서인지 텅 빈듯 벌떡 일어난다.

《가만… 저게 책임비서동지차가 안야?》

《네?》

남편의 눈길을 따라 밖을 내다보는 태성목의 처.

《아니 정말… 누구네 집에 오시는걸가요?…》

그 말에 태성목은 갑자기

《아니 이거, 우리 집에 오는게 아니야?》

《아니, 당신두 참!…》

《여보, 분명 이쪽으로 오는데?》

그러나 안해는 창문을 닫는다.

《어서 밥이나 잡수세요. 당신은 바랄걸 바라야지!》

부엌으로 내려가는 안해.

태성목이도 단념하는듯…

그러나 다시 일어나 내다보던 태성목은 갑자기 환성을 지른다.

《여보! 분명 우리 집으로 오시오. 보라구!》

《네-에?!》

내다보던 처도 그만 아연해진다.

《정말! 어마나…》

《봐! 똑똑히 봐! 그래 이 태성목이가 항상 물리지만 할줄 알았지? 나두 알아주는 사람이 있단 말야! 있어!》

안해의 코앞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격해서 웨치는 태성목.

이때 마침 대문밖에서

《제십니까!》

《예!》

《이 집이 태동무네 집이 옳은가?》

그 소리에 문을 차고 맨발에 뛰어나가는 태성목.

《웁습니다! 옳아요! 책임비서동지!》

《아, 태동무!》

책임비서 손을 내민다. 그뒤에 담당지도원의 자책이 된 얼굴.

《자, 이거… 정말 우리 집에 왔습니까?》

《아니 그럼, 어딜 왔겠소?》

태성목은 갑자기 눈물이 웃음속에 고여난다.

《정말… 고맙습니다.》

《원 사람두!》

안명준지도원과 소조원이 감동스레 바라본다.

부엌

부엌문을 벌컥 열고 엎어질듯 들어오는 태성목.

《아 여보, 뭘하우? 빨리 인사하지 않구!》

《예?!》

《어마나, 이걸 어찌나》

어쩔줄을 몰라하는 태성목의 처.

이때 책임비서 허물없이 부엌문가에 와 선다.

《아, 있었구만!》

책임비서를 보는 순간 남편때문에 눈물속에 살 아온 녀인이 행복의 눈물을 짓는다.

공손히 허리굽혀 절을 하는 녀인.

《안녕하십니까?》

《예.》

석빈이 웃으며 방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방안

태성목이 덤벼치며 손님을 안내한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어서요.》하며 재촉하는 태성목. 책임비서가 방안에 들어며 진정으로 감탄하여 웨친다.

《야, 이거 책부자구만! 대단해!》

안명준이도 솔직히 감탄한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책저책 마구 집어보는 책임비서.

《난 뭘니뭘니해도 책부자가 제일 부럽소…》

태성목은 분주히 방안을 정돈한다.

차석빈은 허물없이 앉으며 《태동무, 요즘에도 하루에 한가지씩 생각을 하오?》

《예? 그저 생각나는대루…》

《생각하오. 혁명을 위하여 매일 사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소, 그렇지 않소. 소조원동무?》

《예.》

부엌

태성목의 처가 가시장밑에서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 오른 두툼한 공책을 꺼내서 정성스레 먼지를 툴다. 바로 그것때문에 남편이 화를 입는다고 생각했던것이 오늘은 그것을 보자고 군당책임비

서가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 책을 가슴에 그리안고 행복의 눈물을 짓는 태성묵의 안해.

다시 집안

흥분한 태성묵이 진정으로 후회한다.

《그사인 제가 철없이 놀았습니다.》

《하하하... 사람이 점잖으면 어디 가서나 존대를 받소. 자, 수첩을 주오.》

《예? 하, 그것참...》 난감해하는 태성묵.

《왜?》

이때 그의 안해가 새문을 열고 부엌에서 올라오더니 책임비서앞에 공손히 내놓는다.

《아니, 그렇지! 책임비서동지! 이겁니다! 이거!》

태성묵이 좋아서 손바닥을 비빈다.

《그렇소?》

태성묵의 수첩을 받아드는 군당책임비서.

들판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에 불타는 노을.

옥천강기슭을 따라 미끄러지듯 달리는 승용차.

생각에 잠긴듯 차창을 내다보던 차석빈이 혼자소리처럼 말을 꺼낸다.

《난 언제인가 이런 경우를 목격한적이 있소. 어떤 어린애어머니가 속이 타는지 제 아이를 막 때리더란말이요. 그런데 그 애는 달아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 치마폭으로 기여들거던! 소조원동무, 왜 그런것 같아?》

뒤에 앉은 소조원을 돌아보는 차석빈.

《그야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기때문에 속이 타서 매질한다는걸 알고있으니까 그러지요.》

《옳아! 바로 그거요!》

안명준지도원은 그들의 대화를 무심히 듣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당원들은 당일군들이 비판만하면 더 멀리 달아난단말이요. 그건 왜 그렇소?》

다시 묻는 책임비서.

소조원처녀는 살짝 웃더니 곁에 앉은 지도원을 쳐다본다.

《그야... 아이 지도원동지한테 물어보십시오.》

《.....》

안명준은 깊은 상념에 잠긴다.

책임비서의 범상한 이야기가 뭇때문에 그의 마음을 그렇게도 확확 찌르는가.

어린애는 어머니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그것이 진정이라고 느꼈기에 어머니치마폭으로 기여든것이다. 그러나 당일군인 자기는 태성묵이를 한두번 비판했을뿐인데 태성묵은 그게 가슴에 내려가지 않아하며 기왕에는 자기에게 곁을 주지 않고 멀리 피하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어머니당의 당일군이랴구...

무겁게 자책이 되어 입을 여는 담당지도원.

《저... 책임비서동지, 그새 제가 사람평가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진심이 어린 안명준의 말에 차석빈의 낯빛은 좀 풀린다.

《알았다면 좋아... 지도원동무! 군당에서 동무를 발전소 담당지도원으로 파견한건 군당조직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현실을 제때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동무는 언제 와봐야 당위원회에 들고앉아있거던?》

《?!...》

더욱 얼굴이 붉어지는 담당지도원.

책임비서의 흥분이 오른 목소리.

《당위원회에 앉아서 문고리나 먼저 쥐는 사람의 말만 듣고는 사람들의 정치생활을 옳은 길로 인도할수 없소.》

《에...》

안명준의 눈앞에는 환등처럼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간다.

일부 편협한 간부들의 말만 듣고 비판하고 괴롭힌 일이며 편견을 가지고 처음 좋게 본 사람은 계속 좋게 보고, 한번 비위에 거슬렸으면 두고 두고 보고서에 내고 호상비판을 시키던 일...

그게 바로 당사업이라고 생각했던 안명준이었다.

이번 생각에 빠져 허덕이는데 마침 책임비서의 의미심장한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사람을 다 안다는건 힘들지... 난 요새 하나밖에 없는 제 딸에 대해서두 잘 모르면서 밤낮 남을 지도하려 다녔단말이요.》

《네?...》

소조원처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때마침 차창으로 무심히 시선을 던지던 차석빈은 무엇을 보았는지 몸을 창밖쪽으로 솟구친다.

지나가는 중학교 녀학생대렬.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수영의 모습이 안겨온다.

어쨌든 딸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일시 대견함에 빠진다.

미소가 어리는 차석빈의 얼굴.

그날밤

책임비서의 집이다.

탁상등밑에서 태성묵의 《100 가지안》을 적은 수첩을 정신없이 들여다보는 차석빈.

한장한장 번진다.

《음- 좀 엉터리긴 엉터리야. 그렇지만 어느 가설이나 그럴듯한데? 음 그럴듯해...》

이때 수영이가 손접시에 차잔을 받쳐들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책상우에 놓아준다.

《아버지-》

《응》

차석빈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책에만 정신이 팔

린다.

《가만, 이것봐라? 미분탄화실 착화제로 중유를 쓸게 아니라 국내산 갈탄으로 대용할수 있나?!》

그 어떤 환희의 예감이 그의 뇌리를 때린다.

잠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책임비서.

《아버지!...》

수영이 다시 한번 청한다.

하나 이번에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정신없이 중얼거리는 차석빈.

《국내산 갈탄으로? 그렇지!》

드디어 가설에 대한 확신이 그를 갑자기 흥분시킨다.

기쁨김에 책상을 치는 손이 그만 차잔을 엎질러 놓는다.

쏟아지는 차물.

놀라서 금시 울상이 되는 수영이.

《아...》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듯 석빈은 딸을 바라본다.

《안됐다, 안됐어. 아버지 너무 기뻐서 그런다. 기뻐서!》

딸의 어깨를 다정히 쥐어주고는 얼른 옷옷을 걷어입고 어디론가 나가는 책임비서.

《아버지!》

밤늦게 또 나가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수영이.

그 마음이 고마와 차석빈은 딸앞에 몹시 미안해한다.

《오냐. 내 인차 돌아오마.》

현관

현관으로 나온 차석빈이가 밖으로 나가려다가 《아, 그렇지!》 하며 원탁우에 놓인 전화기앞으로 간다.

수화기를 드는 책임비서.

《발전소에 대주오.》

기사장실

참모회의에서 생산총화를 하면 박우필이가 전화를 받는다.

회의참가자들이 은근히 전화내용에 신경을 둔다.

금시 불쾌해지며 전화를 받는 기사장.

《예예, 뭐라구요?! 중유대신에 국내산 갈탄을 쓴다구요? 아, 책임비서동무! 거 태성목동무가 또 군당에까지 찾아간게 아닙니까?》

우필은 마음에 집히는데가 있어 더욱 속이 울컥해진다.

책임비서집

침착히 전화를 거는 차석빈.

《거, 갈탄으로 열만 보충해준다면 중유야 필요 없지 않소? 예?》

다시 기사장실

우필은 속이 타는듯 한숨을 다 쉰다.

《그러면 좋지요,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다 중유는 공통입니다. 그 량반들이 뭐, 우리만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예?》

갑자기 수화기를 틀어쥐는 박우필.

《밀자구요 글썽 밀어줘서 된다면 낸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기사장은 언짢은 낯색으로 수화기를 《탕!》 하고 놓더니 좋지 않은 눈길로 누군가를 찾는다.

《열직장장! 열직장장!》

한쪽구석에서 줄고있던 열직장장이 옆에서 깨워주는바람에 놀라서 벌떡 일어난다.

《예? 예...》

《저렇게 태평세월이니 제사람이 어딜 쏘다니는지도 모르지 참!》

《예?! 누구말입니까?》

《태성목이말이요. 이젠 또 군당에까지 찾아다니오. 제주제에!》

《?!...》

《자, 그건 그거고 4 호보이라!》

《.....》

《당직기사 안왔소?》

《예.》

《여보, 4 호발전기 출력이 제일 한심해! 왜 추가중유를 안넣소 영?》

《저... 외국연료를 자꾸 증가해서 전력생산을 높이려고 하는건... 당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해서...》

《뭐? 누가 그런 소릴 하오?》

《.....》

당직기사는 어째서인지 대답을 못하고 끄끙 잡아 뜬다.

그러자 한번 더 다그치는 박우필.

《누가 실정도 모르면서 그러냐말요?》

《저...》

이렇게 입을 뿔어도 차마 이름은 못댄다.

순간 긴장해지는 장내의 분위기.

이때 소조원처녀가 하는수없이 일어난다.

《기사장동지...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소조원동무가?!》

별로 난처해하는 박우필. 그저 놀랍게 쳐다볼 뿐.

사령실앞

소조원이 사령실 출입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격한 사람의 어성이 들려오는 바람에 멈춰선다.

그것은 참모회의때 기사장한테 역증을 들던 당직기사의 목소리였다.

《기사장동지, 정말 량뜬에 끼워서 힘이 듭니다.

아, 기사장동진 넣어라. 소조에선 넣지 못한다.

아 이거야 정말...》
《동문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요?》

사령실안

기사장 박우필이가 벌컥 성을 낸다.
《생산지휘관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령실은
필요없어!》

《예?!》

아연해서 기사장을 쳐다보는 당직기사.

소조원이 더 듣고있을수 없어 사령실문을 열고
들어선다,

뜻밖에 소조원의 출현에 당황하던 우필은 인차
감정을 수습하고 소조원을 정면에서 공격한다.

《소조원동무, 이거야 기사장이 힘이 들어서 일
해먹겠소?》

《?!...》

《나도 중유를 안쓰면 얼마나 좋겠소? 누군 뭐
자존심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손을 내미는줄 아
오?》

《.....》

잠시 눈을 내려깔고 서있던 소조원이 사정하듯
말한다.

《기사장동지, 그래서 우리 소조의 생각은 태성
목동무의 그 점화로를...》

기사장이 대변에 그의 말을 밀막아버린다.

《아, 그 태성목의 이야기는 또 꺼내지마오!》

어지간히 모욕을 느낀 소조원.

우필이 제편에서 속이 타는듯

《참, 내 골치가 아프오.》 한다.

《아이참...》

박우필은 잠시 무슨 생각인가를 하더니 어린
소조원치녀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던지
갑자기 다정한 미소를 짓는다.

마치 자식을 닮하는 아버지처럼...

《소조원동무, 그 점화로 내막이야 소조원동무
보다 전문가인 우리가 낫겠지? 허허...》

《?!...》

《자, 날 믿소!》

소조원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기까지 한다.
철없이 놀지 말라는듯이...

한동안 어이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소조원.

《기사장동지, 제가 기사장동지의 딸 같지요?》

《응? 그게 무슨 소리요?》

소조원치녀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우필은 속이
따끔 했다.

정말 우필은 언제 한번 이 어린치녀를 당이 파
견한 3대혁명전위로 대한적이 없었다.

그저 나에게도 저만큼 큰 딸이 있다. 그러니
난 저들을 가르쳐줘야 한다 하는 식으로 늘 생각
해왔던것이다.

소조원치녀는 놀라게 쳐다보는 기사장에게 한
발자욱 다가서면서 여전히 웃는 낯으로 우필의
간담을 찌른다.

《제가 너무 어려서 이야기상대가 안되는가보지
요?》

《무슨 소릴 그렇게...》

우필은 무안해하며 아무렇게나 넘기려고 한다.

그러나 소조원은 이번엔 쉽게 물러설념을 앓는
다.

《기사장동지... 저한테야 아무렇게나 말하면 뭐
래요?》

《.....》

《그러나... 태성목동무에 대해서 늘 업신여기고
모욕하시는건 더 참지 못겠어요.》

《아니, 내가 업신여기다니?...》

소조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다.

《기사장동지는 한 인간이 희망이 있구, 포부가
있구, 그래도 열공학분야에서 그 어떤 발견을
하려고 피타는 노력을 하는 참된 한사람이 기사
장동지의 그 독단과 편견때문에 완전히 시대밖으
로 떨어져나갈변한걸 한번이나 가슴아프게 생각
해보셨습니까?》

《응?...》

너무도 큰 타격에 미쳐 반발을 못하는 박우필.

소조원의 말마디는 더욱 야무지다.

《기술혁명을 하는 길에서야 실패도 있을수 있
지 않습니까? 기사장동진 생활하는 과정에 실수
한적이 없습니까? 자그마한 실례를 그렇게 과장
해서 회의때마다 끌어내리면 누가 기술혁명을 하
겠다고 손발벗고 나서겠습니까?》

페부를 찌르는듯한 소조원의 목소리는 우필의
얼굴을 불덩이처럼 활활 달게 만든다.

순간 우필의 눈앞에 스치는 태성목의 이지러진
얼굴.

그를 기술협의회에서 망신주던 일, 실패후에
변상처분시키고 기술직책에서 해임시키던 일...
이 모든것이 환등처럼 그의 눈앞 스쳐지나갔다.

하나 박우필은 아직까지 그 모든것이 정당했으
며 그렇게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믿고있었다.

이번에는 소조원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귀전을
때린다.

《아무리 큰 대목도 처음에야 새싹에서부터 시
작된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사장동지는 그 새
싹을 귀중히 여길 대신에 애초에 짓밟아버리시니
소조가 어떻게 기술혁명을 밀고나가겠습니까?》

박우필의 귀밑근육이 푸들푸들 켜다. 그것은
박우필의 폭발직전 마지막 자제력의 표현이다.

여느때같으면 벌써 책상을 부서지게 쳤던지,
아니면 청사가 떠나갈듯 고래고래 소리쳤을 기사
장이다.

《소조원동무, 오늘 좋은 얘기를 해주어서 고맙
소.》

《?!...》

드디어 박우필의 두눈에서 불길이 펄펄 인다.
칼끝처럼 날카로운 목소리.

《그러나, 생산은 말로만해서 되는게 아니요!》

박우필은 더 상대조차 하고싶지 않은듯 사령실을 힘하니 나가버린다.

마음의 갈피를 못잡고 서있는 소조원.

내가 너무했는가? 그러나 소조원으로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수 없지 않았는가?

정말 기사장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에 소조원은 괴롭게 서있었다.

그날밤 (책임비서방)

소조원처녀는 생각다 못해 책임비서를 찾아왔다.

그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심각히 듣고있는 차석빈.

《음- 기사장이 증유를 더 넣으라고 했단말이지?》

《네.》

《지금 발전소생산은 증유를 얼마만큼 더 쓰는가 못쓰는가에 따라 오르내리니까.》

《그래서 기사장동지는 나라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계속 증유를 더 받아올 생각만 하고있습니까.》

그 말에 속이 타는듯 한숨만 짓는 책임비서.

《손톱 긁는줄은 알면서도 염통 긁기는줄은 모른단말이야.》

《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기사장동지의 독단과 편견이 바로 전력생산을 높이는데 큰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저으기 놀라는 차석빈. 그것을 인정하기는 얼마나 피로운 일인가.

《옳게 봤소. 기술혁명의 주인이 돼야 할 사람이 그러니 당의 3 대혁명방침이 어떻게 관철되겠소?》

《…………》

차석빈은 그만 흥분한다.

우필의 처사를 생각하니 분격이 솟구친다.

《변했거든, 변했단말이야… 그 사람도 발전소 건설초기에는 영웅이었지. 그새 칭찬만 받아오다니 안하무인이 됐거던…》

박우필이야말로 10 년전, 아니 그보다 훨씬전에 이 발전소의 참된 주인이었다.

그때 차석빈이 발전소 당비서였지!

오직 당이 하라는대로, 개인의 명예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일밖에 모르는 훌륭한 일군이였다.

전쟁에서도 잘 싸웠고 복구건설때는 또 얼마나 큰 위훈을 세웠던가!

그래서 당의 신임은 각별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박우필이가 이렇게 됐단말인가?

지금 차석빈은 소조원앞에서 자기가 비판을 받는 그런 감정이였다.

《소조원동무, 우리 바로 잡아줍시다. 일군들을

빛나가지 않게 바로잡아주는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소?》

너무도 진정이 넘치는 책임비서의 부탁에 소조원은 그만 송구한 마음이 솟구친다.

가슴이 뜨거워나는 소조원.

《네.》

태성목의 집

이미 전기불이 꺼진 뒤.

책임비서가 찾아왔으나 밤이 늦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연히 대문가에서 서성거린다.

승용차에서 운전수가 나오더니

《제가 깨우랍니까?》 한다

《아니, 아주머니가 깨나겠소.》

《아 그럼 돌아갑시다.》

《돌아가다니? 가만…》

《그럼 새벽까지 이러구있겠습니까?》

《…………》

그 소리엔 대답을 못한다.

차석빈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바자밑에서 왔다갔다하는데 때마침 길쪽에서 누가

《누구요? 그게 누구요?》 하고 웨치는 소리.

밤중에 어디 갔다 돌아오던 태성목이가 책임비서를 알아보자 반가와 한길을 뒀다.

《아니, 책임비서동지가 아니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어딜 갔댔소?》

차석빈도 무뚝 반가와한다.

뜨겁게 손을 잡는 두사람.

어쭙게 웃는 태성목.

《화학공장 공업시험소에 뭘 좀 토론하러 갔댔습니다.》

그 말에 차석빈의 두눈이 금시에 밝아진다.

《오-중유대신에 갈탄을 쓸수 있겠는가 하는것말이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진실한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한뼘으로 흐르기 마련이야. 참 동무의 그 <점화로>원리는 뭐요?》

《원리말입니까? 저 집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태성목이 방문쪽으로 가려는것을 차석빈이 열른 팔을 붙잡는다.

《아, 태동무, 태동무 이리 오우!》

《예?》

《이리 오라는데 아주머니가 깨나겠소.》

《일없습니다.》

《자, 이런! 여기다 그러보오. 어서!》

땅바닥에 먼저 앉으며 쳐다보는 석빈.

태성목이 돌쪼각을 얻어쥐더니 무슨 모형같은것을 그려놓는다.

《이거 어두워서 잘 안보이겠는데요.》

그러자 책임비서 손전지를 꺼내서 켜준다. 땅바닥을 환히 비쳐주는 불빛!

《어때? 이젠 잘 보이지?》

《예! 잘 보입니다.》

책임비서가 밝혀주는 불빛아래에서 《점화로》의 원리를 그리는 태성목이.

《원리라는건... 이 보이라화실에서 불살개로 쓰는 중유대신에 우리 나라 갈탄을 쓰자는것입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이 언제 불살개로 다른 나라 기름을 쓴적이 있습니까?》

《그야 없지! 농촌집에서두 불살개로야 가랑있이나 솔잎같은걸로 했지!》

그러자 환성을 지르는 태성목.

《거, 보십쇼! 책임비서동지는 순간에 리해하는 이 원리를 우리 기사장동무는 몇해가도 리해 못합니다.》

《?!...》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식>이지요?》

차석빈은 태성목의 어깨를 끌어안는다.

《태동무! 이게야말로 우리 당이 바라는 공업의 주체화요! 남이야 중유를 쓰든 뭐를 쓰든 우리는 우리 나라 땅에 무진장한 갈탄으로 전기를 얻잔 말이요!》

《책임비서동지! 됐습니다, 됐어요!》

태성목이는 돌을 집어던지더니 두팔을 벌려 차석빈을 한아름에 번쩍 들어올린다. 그리고 빙빙 돌아가는 태성목.

《야, 어저 농소! 엉, 하하!》

《하하!》

태성목이 석빈을 내려놓더니 모자를 벗고 학생처럼 꾸벅 절을 한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민학교학생처럼 꾸벅 절을 하던 태성목의 두눈에는 감출수 없는 고마움의 이슬이 그득히 고여난다.

발전소 (당비서방)

《아니 뭐라구요?! 당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토론한단말입니까?》

우필은 너무도 놀라운듯 당비서와 담당지도원을 아연히 쳐다본다.

《예, 책임비서동지와 초급당비서동지가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를 보았다는 소리에 박우필은 그만 맥을 잃고 의지에 털썩 주저앉는다.

《아, 큰 실수요.》

《실수라니요?》

당비서가 은근히 불안해하며 기사장의 얼굴을 쳐다본다.

우필이 선고를 내리듯 한마디 한마디 씹는다.

《아, 비서동무, 발전소에서 보이라를 가지고 시험하는건 의학자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시험하는거나 같습니다. 영주지구의 수십개의 기업소가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있지요. 단 한시간이라도 전기가 죽는 날에는!... 그 무엇

으로써도 책임을 보상할수 없습니다.》

박우필은 흥분으로 웨치더니 조금히 묻는다.

《책임비서동무가 군당에 있겠지요?》

《아니 아침에 목욕탕건설장에 나갔습니다.》

군목욕탕 건설장

새로 지은 《창광원》식 목욕탕.

무리등이며 대리석기둥, 화려하게 장식한 벽, 차석빈이가 도시경영과장과 함께 원형층계를 내려온다.

《이만하면 군내 인민들이 아주 만족해할겁니다.》

《예.》

그들은 어느 한 방으로 들어간다.

리발실

눈부시게 번쩍거리는 최신설비들이 그득찬 리발실.

그것들을 만져보며 별로 만족해하는 차석빈.

《전번에도말했지만 도시경영과장동무, 이 <창광원식> 목욕탕은 나라에서 우리 지방인민들에게 각별히 돌려주는 사랑의 궁전인것만큼 특별히 잘 관리해야겠소.》

《예, 그래서 미리 교양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황홀한 눈길로 목욕탕안을 둘러보는 책임비서의 만족한 표정.

《참, 과장동무, 8호동아빠트에 가봤소?》

《영예군인아빠트말입니까? 저... 지도원동무를 내보냈습니다.》

《아니. 과장동무가 직접 가보우, 영예군인들이 물바게쓰를 들고 다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책임비서의 절절한 목소리.

과장은 그만 심한 가책이 되느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수긍한다.

현관밖으로 나오는 두사람.

차석빈이가 가려는듯 손을 내민다.

《그럼 과장동무, 수고하십시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받고 책임비서가 자기의 승용차쪽으로 막 가려는데 갑자기 갱생차 한대가 들이닥친다.

차에서 뛰어내리는 박우필기사장.

《아, 책임비서동무, 나 좀 봅시다.》. 《?!》

서슬푸른 기사장의 태도에 불안을 느끼는 차석빈.

공원

목욕탕앞에 펼쳐 진 련못공원.

저녁석양을 받은 나무잎이며 물결이며 꽃잎들은 더없이 아름답다.

한적한 공원

여기로 나오는 차석빈과 박우필.

차석빈은 별로 심각해진 우필의 얼굴을 보면서

빙긔 웃는다.
《자네 왜 그렇게 울상인가?》
《…………》
홍분을 애써 감추는 박우필.
《난 생각끝에… 서로 자기의 직책을 초월해서
진심으로 친구의 의리를 다하자고 찾아왔네.》
《아 이거, 서두부터 심각한데?》
차석빈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신다.
한동안 침묵…
《여보게, 우린 군대에서 함께 제대돼서 자넨
당일군으로 난 기술쟁이로 거의 곁에서 살아왔
지…》
《아니, 도대체 뭘 말하자는건가?》
차석빈이 답답한듯 어성을 높인다.
그러자 우필은 차석빈의 손을 끌어잡는다.
《난, 자네가 여태 파오없이 책임비서의 직책까
지 올라갔다가 이제와서 본의아닌 실수를 할가보
아 두렵네!》
《응?!…》
《여보게! 우리는 오십고개야, 우리가 당의 배려
로 여태까지 평탄한 길을 걸어오다가 인생의 말
년기에 와서 곡절을 겪으면 본인뿐 아니라 자식들
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걸세.》
《자식들한테?》
《그렇지! 난 책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네, 우린 결코 젊은 간부가
아니니까!》
그 소리에 놀란듯 쳐다보는 차석빈.
《파오는 누가 범한다고 그래?》
《자네가!》
《내가?!》
《응. 여보게, 물론 자넨 군당책임비서로서 전력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을수야 없었겠지… 하나
그저 당적인 지도만 하면 되지 뭇때문에 그 복잡
한 사람들의 관계속에 발을 잡그나? 엉!》
《당일군이니까!》
《아니, 자넨 책임비서야! 책임비서가 생산문제
를 직접 결머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탓할 사람
도 없지 않나? 책임비서야 책임비서사업이 따로
있을테지!》
《하하… 날더러 군당에 틀고앉아서 회의나 하
구 학습이나 지도하라는거지? 아니, 군당책임비
서들이 당사업무에 빠져서 땀뭇던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어!》
《음-좋네. 이제 두고보게! 모든게 실패로 끝나
는 그날에 가서는 태성목이도 열직장장도 모두가
<책임비서가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러니 책임비
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할게야!》
《?!》
점차 심각해지는 차석빈.
간절하게 쳐다보는 박우필.
《여보게, 제발 태성목이안을 당위원회에서 정
식보는것만은 취소해주게 응?》

《…………》
《그렇게 하지?》
천천히 고개를 흔드는 책임비서.
《아니, 그건 발전소당위원회에서 결정할거네.》
《?!》
새삼스레 쳐다보는 박우필
《끝내… 거절하누만? 난 자네가 내 친구만 아
니였어두… 에익!》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박우필.
책 돌아서 걸어가는 기사장.
《우필이!》
차석빈은 이렇게 불러왔으나 그를 위로해줄 말
은 못찾는다.
여전히 푸르락거리는 기사장.
그는 배척을 받은 사람처럼 몸을 떠난다.
《자넨… 변했어!》
그리고는 더 어쩔새없이 아주 가버리고만다.
우필은 가고 피롭게 런못가에 홀로 남은 차석
빈.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끝까지 거절해야만 하는
자신에 대해 석빈은 지금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우필은 마치 다시는 상대 안할 사람처럼 가버
리지 않았는가.
그는 얼마나 이 차석빈을 노엽게 생각하겠는
가?
하나 동의할수 없는 그였다.
인생의 말년기가 설사 왔다고 해서 파오가 두
려워서 당적량심을 저버릴수야 없지 않는가?
아, 친구가, 나에게서 그토록 가깝던 친구가 그
런것을 나에게 요구하다니?...
우필이가 방금 무엇을 요구했던가?... 아, 《보
신》, 그 보신주의를 설교했었다.
차석빈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어느날

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회 확대회의.
립추의 여지가 없이 가득 모인 사람들.
그속에 기사장이며 기술일군들.
직장장, 세포비서들이 참가했다.
안락의자에 반쯤 기대채 조는듯 눈을 감고있는
기사장 박우필.
그옆에 책임비서 차석빈.
긴장해서 쭈뼛거리며 앉아있는 태성목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안명준지도원.
당비서가 말한다.
《그사이 3 대혁명방침을 받들고 태성목동무의
<점화로>착상을 세포별로 토의하는 과정에 좋은
안이 세개씩이나 나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우선 외국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태성목동무
의 <점화로>외에 전기아크식 <보충가열로> 또
증기식<가열로> 등 완전히 주체원료에 의한 새방
법이 군중속에서 계발되었습니다. 그래 당위원회

는 충분히 군중토의를 한 결과 기사장동무를 비롯해서 기술지도일군들만 동의한다면 우선 태성목동무의 <계단식점화로>부터 시험에 들어가자는 의견입니다. 자- 의견을 이야기하십시오.》

비서가 앉자 여기저기서 《합시다.》, 《해봅시다!》 등의 흥분이 오른 목소리들이 뭉쳐 나온다.

기사장의 감은 눈썹이 가늘게 떨린다.

열직장장이

《비서동지, 어제 세포들에서 충분히 토론했는데 오늘은 결정만 지읍시다.》 하자 회의참가자들의 과반수가 《예! 그렇게 합시다!》 한다.

기술과장이 유표나게 너털웃음을 웃는다.

《하하, 그렇게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력발전소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게 아니지요.》 한다.

한동안 침묵.

사람들이 책임비서의 얼굴을 쳐다본다.

차석빈이 할수 없어 먼저 묻는다.

《기사장동무의 생각은 어떻소?》

《글쎄요. 하겠다는 동무들이 있으면 지켜보지요.》

그러자 담당지도원이

《아, 기사장동무, 절대다수가 지금 지지하고있지 않습니까?》하고 좀 격한다.

기사장이 그제사 눈을 뜬다.

《절대다수가요? 난 그렇게 안보이는데요?》

기사장은 기술과장을 본다.

자기에게 눈길이 돌려지자 기술과장은 아침기 어린 목소리로 열린 《예.》하고 수웅한다.

그를 아니꼽게 보는 사람들의 눈길.

다시 사람들을 쭉 훑어보던 박우필의 시선이 공업시험소 소장의 얼굴에 가 멎는다.

《공업시험소 소장동무는?》

《예. 저...》

그러자 기술발전부기사장이

《소장동무, 누구의 눈치를 볼게 있습니까?》한다.

공업시험소 소장은 하느수없이

《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한다.

하자 보란듯이 담당지도원을 쳐다보는 기사장.

《에익!》

태성목이 안타까와 가슴을 탕탕 친다.

그것을 보자 소조원이 일어난다.

《비서동지, 어제 설계실에선 태성목동무의 기초설계를 보았는데 일치하게 승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소조에선 시험단계로 들어가자는결제의합니다.》

그 소리에 박우필은 따지듯 당자에게 묻는다.

《설계실장동무, 그게 사실이요?》

《예? 예. 어제 기술발전부기사장동무와 함께 봤는데 확신이 있습니다.》

《책임적인 발언을 하오!》

내뱉듯 던지는 박우필.

기사장의 으름장에 방안은 한동안 짙은 침묵이 흐른다.

서로 타협되지 않는 두 의견의 대립.

이윽고 책임비서가 말을 꺼낸다.

《아직은 누가 누구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납득시킬수 없으니 자기의 주장을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는수밖에 없구만...》

기술발전부기사장이 그 말을 받는다.

《비서 동무, 그럼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순간 모두의 시선이 부기사장에게로 쏠린다.

《국내산 갈탄으로도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무들은 지배인동무가 학교에 가서 그 방이 비었으니까 거기 가서 시험준비를 토론하구 점화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동무들은 다른 방에 가서 당면하게 중유문제를 푸는데서 효과적인 안이 무엇이겠는가를 토론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러자 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했던것처럼

《그게 좋겠습니다!》 하고 웨친다.

흥분에 싸여 왁작 일어서 나가는 사람들.

은근히 긴장해지는 박우필기사장.

기사장실

박우필이와 기술과장, 공업시험소 소장.

그외에 2~3명의 기사들.

마치 방금 싸움이 끝난 집처럼 서로 등을 대고 돌아앉았다.

이때 지배인실에서 박수소리가 들린다.

《홍, 아니 저기선 뭘 오락회를 하는건가?》

기술과장의 비웃는 어조.

그러자 키 큰 기사가 면박을 준다.

《어느 세월이라고 오락회요? 오락회?》

공업시험소 소장이 량심에 걸리는지

《저. 기사장동무, 우리도 뭘 좀 토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다.

《우린 말공부쟁이가 아니요!》

《그래도 말끝에 묘안이 나온대구...》

《홍! 말이 실속이 없으면 화밖에 가져오는게 없습니다.》

또다시 박수소리.

키 큰 기사가 참지 못하고 일어선다.

《어딜 가오?》

기사장이 날카롭게 묻는다.

《예, 예. 속이 좀 답답해서...》

복도

기사장실에서 나온 키 큰 기사는 궁금한듯 지배인실에 와서 귀를 강군다. 마침 최관배로인이 《뭘 렴람하나? 자, 어서 들어가세!》 하고 그를 등뒤에서 민다.

《저, 그렇게 아니구...》

이렇게 변명하며 안으로 밀리워들어가는 키 큰

기사.

지배인실안

열직장장이 빙글거린다.

《자, 이상의 동무들이 자재분과요. 그러구 자재분과 책임자는 군당책임비서동지요.》

《야!》

일제히 환성을 지르는 사람들.

여기로 엉겨주춤 들어서는 최관배로인과 키 큰 기사.

소조원이 밝게 웃으며 웨친다.

《동무들! 군당책임비서동지가 자진해서 맡으셨어요!》

그러자 또다시 일어나는 박수소리.

기사장방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가버리고 홀로 고독하게 앉아있는 박우필기사장.

점화로가 성공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는 배심으로 앉아있긴 하지만 어째서인지 외기러기 신세같은게 적적하기 그지없다.

때마침 《따르릉...》 하는 전화종소리.

이 고적한 순간에는 전화종소리마저 고맙다.

얼른 수화기를 드는 박우필. 그러자 수화기에서 쟁쟁히 울리는 열직장 청년의 목소리.

《기사장실입니까?》

《예.》

《저... 태성목동무의 안을 지지하자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순간에 속이 뒤틀리는 박우필.

마치 모닥불을 쓴것처럼 얼굴이 달아오른다.

《뭐? 난 그따위 몰라!》

수화기를 탕 놓는 박우필.

우리안에 갇힌 표범처럼 공연히 방안을 오가는 기사장.

이때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최관배로인이 들어다본다.

《음... 혼자있기 적적하지 않나?》

《흥.》

최아바이가 조용히 들어와 한쪽의자에 앉는다.

《아바인 왜 왔소?》

《음... 임자를 도와주자구...》

《필요없수다. 령감이 이 불집을 일켰지요? 읍에 간장사러 간다구 하구 군당에 갔댔지요?》 그 소리에 아연해진 관배.

《엉?! 자넨... 귀신 한가진데? 그건 어디서 알았나?》

《책임비서의 모자를 보면 알지요!》

《어이쿠! 내 또 실수를 했군.》

지기의 머리를 탁탁 때리는 관배로인.

기사장도 그러는 모양이 우스운지 돌아서서 픽 웃고만다.

《흥 그래, 어떻게 오셨소?》

《응- 자네가 무줄장군이 됐길래 혹시 우리편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왔더니 코집이 틀렸어. 안올테지?》

《뭐요?!》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박우필.

그러자 와뜰 놀라며 쏜지가 뺏뺏해서 내뺄는 최관배로인.

《무줄장군? 허허허...》

어이없어 제복에 싱거운 웃음을 웃다가 시무룩해지는 박우필.

어느날

책임비서가 군식료공장을 찾아왔다.

시제품진렬대에 갖가지 식료품들이 한가득 올라왔다.

지방산업공장에서 만든 과자며, 사탕, 시럽 등...

차석빈이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팬찮아! 대단하구만, 대단해!》

이때 이 공장 기사장이 새로 생산한 옥당을 가져온다.

《옥당입니다.》

《옥당?》

커다란 비닐병에 넣은 옥당을 신기하게 보는 책임비서.

너지배인이 곁에서 해설을 붙인다.

《네, 영양가도 높고 우선 맛이 좋습니다.》

흐뭇이 보는 차석빈.

지배인을 돌아보는 책임비서.

《그런데 이 시제품들을 어떻게 할 작정이요?》

책임비서의 묻는 뜻을 미처 긴파 못한 너지배인이

《저... 읍내 인민반들에 공급할 생각입니다.》 한다.

고개를 흔드는 책임비서.

《?!》

《아니. 탄부들에게 먹입니다! 앞으로 군내에서 생산하는 일등품은 말이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탄부들에게 보내기로 군당에서 결정했소.》

그제사 알겠다는듯 너지배인이

《예! 그렇습니까?》 하고 기뻐한다.

이때 다급히 호출하는 전화종소리.

수화기를 드는 식료공장지배인.

《네. 책임비서동지요? 예, 여기 계십니다.》

수화기를 차석빈에게 넘기는 지배인.

《룡산탄광 지배인동무입니다.》

《그래요? ... 제 차석빈입니다. 아, 지배인동무요? 응?!》

갑자기 놀라는 책임비서.

《발전소기사장이 명동탄광에 2천톤을 요구했다구요?》

《예, 그렇게 부에 제기했답니다.》

《그래 지배인동무는 알고있었습니까?》

《아니 생벼락입니다. 방금 부에서 추궁을 받고야 알았습니다.》

《음-》

신음소리처럼 지르는 책임비서.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 통산탄광엔 묻지도 않구!...

발전소

기사장 박우필이가 운탄직장에서 석탄 하차를 지휘한다.

우필이가 부는 호각신호에 따라 석탄을 만재한 화차들이 전복기에 들어간다.

이때 누가

《기사장동무!》 하고 다급히 부른다.

돌아보니 책임비서차 운전수다.

《책임비서동지가 찾습니다.》

책임비서라는 소리에 내려다보니 저아래에서 차석빈이가 몹시 흥분한듯 진정 못하고 오간다.

우필은 속에 짊어는게 있어 약간 당황하나 인차 태연해지며 책임비서쪽으로 다가간다. 그를 쳐다보는 책임비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차석빈.

《아, 기사장동무! 동무가 명동탄광과 교섭을 했소?》

《왜 그러니까?》

《왜라니? 그 과업은 당에서 우리 통산탄광이 받은것이요. 그런데 동무는 당자들과 아무런 의논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수 있소?》

《.....》

드디어 울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자 박우필은 갑자기 도전적인 불만이 막 생겨난다.

《책임비서동무! 물론 군당에서 우리 발전소를 도와주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계속 이런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난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25 만키로와트를 보장해야 합니다.》

박우필의 마지막 말은 드디어 책임비서의 자제력을 깨버리고만다.

《다른 기업소를 희생하면서까지?》

《희생하다니요?》

놀란듯 쳐다보는 우필기사장.

천천히 입을 여는 차석빈.

《기사장동무, 명동탄광은 50 여개의 기업소하구 대상하고있소. 만일 이 발전소가 매일 고열탄 2 천톤씩을 당겨쓰면 술한 기업소들이 생산의 과동을 겪게 되요. 동무는 이에 대해 심중히 생각해 봤소?》

《우린 남을 생각할 경향이 없습니다. 우린...》

《그러니까 동무는...》

《우린 두번 다시 당에 심려를 끼쳐드릴수 없단 말입니다. 난 그새 책임비서동무를 믿고 기다렸

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2 천톤이 들어옵니까? 두달이 다 돼오는데도 감감무소식이지요!》

《.....》

《솔직히 말하지만 난 통산탄광때문에 호박을 쓰고 돼지굴에 들어가고싶지 않습니다.》

《뭐라구?! 음- 그게 동무의 진심이지!》

분격에 입술이 떨리는 차석빈.

우필을 쏘아보는 그의 두눈에 시퍼렇게 불이인다.

《동무는 그렇게 되면 통산탄광은 영원히 당의 신임을 저버린 그런 탄광으로 된다는걸 생각해봤소? 남의 운명에 대해서말이요.》

《.....》

차석빈의 준절한 목소리.

《다시 한번 말하오. 옥천강발전소의 석탄을 통산탄광이 보장하라는것은 당의 방침이요. 그 누구도 이 방침을 어길수 없소. 오직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 길밖에 다른 그 어떤것이란 있을수 없단말이요. 만일 기사장동무가 이것을 끝내 어긴다면...》

《아니, 위협인가요? 나한테?》

우필의 이 물음은 순간에 많은것을 암시했다.

그것은 극단한 감정에 처했을 때만이 할수 있는 그런 말이 었다.

차석빈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협으로 듣다니?...

《아니, 당적인 충고요!》

서로 날카롭게 쳐다보는 그들.

두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치면서 불꽃을 튀긴다.

차석빈이 그만 책 돌아서서 자기 승용차으로 가버린다.

못박힌듯 저탄장 한복판에 서있는 박우필.

이때 산너머쪽에서 울려오는 우뢰소리.

미구에 검은 구름발이 몰려오더니 비를 퍼붓기 시작한다.

길

비속을 달리는 승용차.

승용차 차광에 짙짙 흘러내리는 비줄기.

그것은 형언할수 없는 피로움을 련상시키듯 차석빈의 시야에서 끝없이 흐른다.

무거운 가슴을 안고 비속을 헤쳐가는 차석빈의 마음.

여기에 울리는 노래.

찬비뿌려도 이 길을 가리 당을 따라 가는 길
눈보라쳐도 이 길을 가리 다른 길을 나는 몰라

아 변함있으랴 당에 대한 전사의 의리

고개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책임비서의 승용차.

깊은 상념에서 허덕이는 차석빈.

량심을 찌르는 아픈 목소리.

《당에서는 심장을 울리지 못하는 호소, 타산이 없는 높은 요구성은 결국 전달식사업작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탄부들의 심장속에 깊이 들어가자!》

힘있게 산발을 타고 오르는 승용차.

이윽고 고개마루에 오르니 저 멀리 탄광지구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탄광지배인실

엄광준지배인이 사무실로 들어와 모자를 벗어서 벽에 거는데 자지러지는 전화종소리가 울린다.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는 지배인.

《애 송옥아, 또 발전소에서 왔냐, 나 없다구 해라.》

이때 저쪽에서 벌써 그 소리를 다 도청한듯 꺾 꺾 웃는 박우필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지배인동무, 뭐 없다구 하라구 해서 내가 지배인동무를 못찾아낼것 같습니까?》

《땅속에 가서라도 찾겠지. 여보, 제발 한달만 더 참아주오.》

《…………》

《기사장동무, 여보, 기사장동무?》

《…………》

안절부절 못하는 엄광준지배인.

《아, 기사장동무!…》

그의 뚱뚱한 배가 가쁜숨을 내쉰다.

이윽고 박우필의 날카로운 목소리.

《지배인동무! 지금 지배인동무는 당조직을 속이고있습니다.》

《뭐, 뭐?! 여보, 그건 너무하오!》

《왜 못할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외교를 합니까? 벌써 두달전에 대책을 취했어도 우리는 전력생산을 25 만으로 올릴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

엄광준은 그만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지르면서 의자우에 주저앉는다.

목덜미에서 흘러내리는 굵은 땀줄기.

때마침 누가 문을 두드린다.

지배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예》 하며 이마에 손을 얹는다.

미구에 문이 열리며 뜻밖에도 군당책임비서가 들어온다.

차석빈은 울적하게 앉아있는 탄광지배인을 보자 《웬일입니까? 어디가 편치않으시오?》 하고 걱정을 한다.

그제서야 책임비서를 알아보고 엄광준은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아닙니다…》

자기의 내심이 엿보이는듯해서 몹시 당황하는 엄광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뭐 못올데를 왔습니까? 하하…》

엄광준은 열적게 따라웃더니 할수없이 실로한다.

《책임비서동지, 사실 그새 전… 당을 속였습니까.》

《그건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차석빈은 더욱 의아해한다.

몸집이 비대한 지배인은 그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선생앞에 선 학생처럼 몸둘바를 몰라한다.

운전수가 책임비서의 작업복과 안전모를 방 한쪽에 가져다놓고 나간다.

이윽고 결심이 된듯 입을 여는 엄광준.

《책임비서동지… 당앞에 할수 없는것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비당적이지요?》

그 소리는 차석빈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다.

벌써 예감이 그 어떤 불안을 그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킨다.

이제 저 말뒤에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나오리라하는것을 차석빈은 짐작하고도 남았다.

탄광지배인까지 이러다니?

《예. 그러나… 할수 있는것을 못하겠다고 하는건…》

차석빈은 여기서 말을 끊고 지배인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반당적이지요.》하고 거의 웨치다싶이한다.

이것은 나약해지려는 엄광준지배인과 자기의 마음을 다시한번 다잡고싶어서였다.

반당적이라는 소리에 엄광준은 바늘에 찔렸을때처럼 가늘게 몸을 떨었으나 인차 모든것을 포기하고 운명을 남에게 내맡길 때, 흔히 그러듯이 반발적으로 웨치기 시작했다.

《솔직히, 우린 그사이 해볼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존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일당 2천톤증산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구요?!》

《…………》

《그러니까 지배인동무는…》

그다음 책임비서는 그에게 혁명을 포기하자고 그러는가 묻고싶었다.

그러나 벌써 엄광준은

《저에게 책벌을 주십시오.》 하고 먼저 앞지른다.

책벌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책벌이 과연 무슨 필요있는가?

차석빈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듯해서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어제겼다.

책임비서의 노여운 목소리.

《난 그래도… 탄광에 오면 힘이 될 소리를 들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슴만 더 답답하군요!》

《용서하십시오.》

차석빈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방 한쪽구석으로 가더니 안전모를 집어든다.

《깡에 내려 가지렵니까?》
 《거기밖에 더 갈데가 있습니까? 이 지배인실에
 서야 패배자의 한숨소리뿐인걸요!》
 《……》
 참말로 책임비서는 더 갈곳이 없었다.
 어디 가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푼단말인가?
 결국 그도 탄광지배인처럼 흰기발을 들고 나왔
 아야 할것인가?
 탄차에 몸을 실은 책임비서는 납덩이처럼 내려
 누르는 압박감에 몸을 떨었다.

청년깡

막장 휴게실에서는 지금 간식이 한참이다. 원
 철이와 굴진소대청년들이 뜨거운 우유를 마신다.
 이때 문이 열리며 지배인이 나타난다.
 몹시 초조한 눈길이다.
 《동무들, 책임비서동무 못봤소?》
 《예?… 못봤는데요.》
 원철이가 우유고뿌를 놓으며 의아해서 쳐다본
 다.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착암기소리.
 《가만 이게 무슨 착암기소리요?》
 《영?》
 그제사 모두 귀를 강군다.
 그들은 그 어떤 불안을 느끼며 약속이나 한듯
 이 막장으로 뛰어나간다.

굴진막장

맨먼저 달려온 원철이며 영호, 《땅크병》 들이
 그만 우뚝 선다.
 혼자 정신없이 착암기를 돌리고있는 책임비서.
 놀라는 청년들의 눈길.
 영호가 달려가서 착암기를 잡는다.
 《책임비서동지! 웬일입니까?》
 그제서야 일손을 멈추는 차석빈
 《아, 동무들이요?》
 차석빈의 얼굴에 서글픈 미소가 어린다.
 《안녕하십니까?》
 원철이가 반갑게 인사한다.
 그제사 뒤따라나온 지배인이 멧적어하며
 《아, 여기 계시는걸 모르구…» 하고 미안해하
 다.
 원철은 무엇인가 석빈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묻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
 한숨을 푹-내쉬는 차석빈.
 이윽해서 눈길을 들어 청년들의 얼굴을 뜻깊이
 바라보는 석빈.
 《속이 타서 동무들과 터놓고 의논을 해보자고
 왔소.》
 《우리들과요?!》
 숨을 죽이며 모여앉는 그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 룡산탄광의 로동
 계급을 믿으시고 우리 군에 현대적인 대형화력발
 전소를 건설해주셨소. 그런데 이 발전소가 최대
 용량을 내자면 하루에 2천톤의 석탄을 더 먹여야
 하는데 보다실이 이 탄광에서는 그걸 보장해주
 지 못하고있소.》
 《……》
 《그래서 발전소는 동무들을 믿을수 없기때문에
 다른 군의 탄광에 정식 의뢰했소.》
 그 말해 얼굴이 붉어지는 엄지배인.
 《아니, 뭐라구요?!》
 강영호가 너무 분해 벌떡 일어난다.
 《그게 도대체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이건 룡산탄부들을 어떻게 보구 그래!》
 원철이가 버럭 소리친다. 그러자 《땅크병》 청
 년이 금시 어쩔듯 팔을 걷고 나선다.
 《그럼, 책임비서동지도 그걸 동의했습니까?》
 《그래서 난 동무들과 의논을 해보고 동무들도
 보장못하겠다면, 우리가 받은 파업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군의 탄광에 넘기고 나도 책임
 비서자리를…»
 《아니, 넘기다니요?!》
 차석빈을 보는 청년들의 눈에 금시 시퍼런 불
 기가 번쩍인다. 영호가 웨친다.
 《아니, 어버이수령님께서 룡산탄부들을 믿으시
 고 주신 파업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남
 한테 넘겨요?! 이건 변절이고 배신이요! 여, 동무
 들 안그래?!》
 그러자 벌둥지처럼 저마다 분격해서 웨치는 청
 년들.
 《웁소!》
 흠칫 놀라서 보는 지배인.
 원철이가 그 모든 소음을 제압하며 절통히 부
 르짖는다.
 《동무들! 우리가 언땅에 배를 붙이고 전연초소
 를 지킬 때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이렇게 받
 았소?》
 《아니요!》
 《우리앞에 무장한 원쑤가 나타났을 때 제 한목
 술이 두려워 다른 병사에게 넘긴 우리들인가 말
 이요?!》
 제대군인들의 눈에 불이 인다.
 《전연병사를 모욕하지 말라!》
 《우린 죽는걸 겁나하지 않았어!》
 《웁소. 혁명의 요구앞에 뒤걸음치는건 변절이
 야! 이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권위를 훼손
 시키는것이요! 그래 우리가 이래도 머저리처럼
 참고있겠는가?!》
 《아니요!》
 그러자 강영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웨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관철하자!》
 《관철하자!》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자!》
《옹호하자!!》
《충성의 2천톤을 무조건 생산하자!》
《생산하자! 생산하자! 생산하자!》
이러는 청년들을 보는 차석빈의 두눈에는 그만 눈물이 펑-하고 어린다.
엄광준의 얼어붙었던 심장도 이 불길에 녹아버리는 듯하다.
홍분으로 목메이는 책임비서
《동무들! 지금 당에서는 우리들에게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백, 그 열정으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소. 그래 우리가 전후 그 어려운 나날 종파분자들이 당을 정면으로 공격해나설때 우리 로동계급이 당중앙을 어떻게 보위했소?!》
《천리마대고조로 대답했습니다!》
원철이가 주먹을 들고 웨친다.
《그렇소! 우리는 천리마대고조로써 놈들에게 대답했소. 그런데 그때의 로동계급이 그대로 있고 그때의 혁명정신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어째서 2천톤을 다른 탄광에 넘겨야 하오? 언제부터 우리가 패배주의자로 됐냐말이요.》
《누가 패배주의란말입니까?》
분격하는 《땅크병》청년.
이러자 저저마다 들이대는 청년들.
《그게 누구니까?》
《누가 탄광로동계급을 패배주의로 모욕합니까?》
지배인은 노도같은 그 웨침에 더는 몸을 숨길 수가 없어서 땀을 철철 흘리며 나선다.
《동무들... 내가 그랬소. 대오의 기발을 들고 나가야 할 지휘관인 내가 그랬소. 난... 동무들한테 이런 뜨거운 심장이 있다는것을 정말 놀랐댔소. 날 용서해주시오.》
분격과 환희가 한데 엉킨 침묵...
차석빈이가 흥분해서 《지배인동무!》 하고 그의 손을 잡는다.
지배인의 울음기어린 목소리.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책임.
《지배인동무!》
원철이가 드디어 주먹을 쳐든다.
《동무들! 20년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청춘과 생명을 다바쳐 혁명의 수령 한별동지를 옹호보위했던것처럼 우리의 당중앙을 2천톤의 증산으로 옹호합시다!》
《옹호하자! 옹호하자! 옹호하자!》
이번에는 강영호가 웨친다.
《80년대 김혁, 차광수가 되자!》
《김혁, 차광수가 되자!》
원철이가 주먹을 휘두르며 노래를 시작한다.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철쇄를 마스는 마치라
.....
.....
지심을 흔드는 청년들의 힘찬 노래.
차석빈도 힘껏 부른다.
노래를 타고 흐르는 화면들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진 차석빈과 엄광준.
힘차게 착암을 해나가는 청년탄부들.
-힘있게 돌아가는 채탄기.
-콘베아에 실려나오는 검은 금.
-저탄장에 쏟아지는 석탄폭포.
-석탄이 가득 실린 탄차들이 꼬리를 물고 나온다.

혁신갱

책임비서가 제일 산골유축에 있는 혁신갱 탄부들을 찾아왔다.
방금 휴식시간인들 떠들썩한 웃음소리.
《하하하!》
그 웃음소리를 따라가며 탄부들과 함께 웃고있는 차석빈.
《하하 일대일이라! 좋소. 혁신갱 수리기지는 군당이 직접 맡아서 해결해주겠소. 그대신 동무들은 2천톤을 드림없이 해내야 하오.》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쪽중에 한쪽이라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벌을 준다?》
그러자 체격이 장수같은 청년이
《아, 그뎐 나무에 매달구 칩시다!》 하고 웨친다.
《좋소, 치기요!》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진다.
책임비서가 소대장에게 묻는다.
《가만 소대장동무, 소공구들을 받았습니까?》
《받긴 받았는데... 저 아직 톱과 망치가 좀...》
차석빈이 눈길로 누구인가를 찾는다.
《지도원동무!》
《예.》
탄광담당 군당지도원이 앞으로 나선다.
책임비서가 의논조로 묻는다.
《거, 톱과 망치는 어디다 분공주었더라?》
《발전소하고 화학공장에 주었다.》
《응...》 발전소라는 소리에 차석빈이 낯색이 흐려지는데 탄광지배인이 그 눈치를 채고 대신 변명해준다.
《거기도 바쁘니까.》
《바쁘다구요? 아니 지금 석탄을 생산하는것보다 더 바쁜일이 어디 있소? 탄광은 인민경제의 돌과구란말이요!》
책임비서의 말에 탄부들이 호응한다.
《아, 그러문요.》
《가만... 발전소하고 화학공장은 내가 가서 직접 알아보겠소.》

협장에서 수첩을 꺼내는 책임비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꼭꼭 적어놓는다.

《발전소, 화학공장...》

《자, 또 제기하오.》

그러자 탁수염이 시커먼 굴진소대장이 주땀겨린다.

《책임비서동지, 이젠 생산과 직접 련관은 없는 문제인데...》

《아니, 탄부들과 관련된 문제이라면 무엇이냐 다 중요하오.》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혁신경의 아이들이 20 리나 넘는 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래 분교 하나를 지어왔는데 군에서 하는 말이 교원이 없답니다.》

《교원이 없다구?》

《예!》

《음에는 교원이 남소.》

《그렇습니까? 그럼 세사람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거 될수록이면 처녀들로써 좀...》

그러자 갑자기 《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터진다.

《처녀들은 왜?》

짐짓 모르는체 책임비서가 반문한다.

그러자 장수같은 청년이

《아, 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처녀들이 있어야 총각들이 우리 탄광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지요!》
《하하!》

또다시 즐거운 웃음소리.

차석빈이도 마음놓고 웃는다.

《자, 또 제기들을 하오. 없소?》

이번에는 별로 파목해보이는 중년탄부가 책임비서의 뒤통에서 어쭙게 일어난다.

《저...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기할것은...》

중년탄부는 이런것을 제기해서 일없겠는지 가늠해보기라도 하려는듯 잠시 차석빈을 본다.

미소를 짓는 차석빈.

거기에 힘을 얻는 중년탄부.

《지금 간부동지들이 내려올적마다 당장 풀어줄것처럼 술한 제기를 받는데 받을 때뿐이고 우에 올라가서는 꿇먹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해주지 못할바에는 차라리 제기를 받지 말자는것을 제기합니다.》

《?!》

차석빈은 바로 그 제기가 자기를 두고 하는 소리같아서 금시 화로불을 뒤집어쓴것 같이 얼굴이 뜨거워났다.

우리 군내 간부들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던가.

일부 군당간부들속에서도 회의지도 나가서는 간부의 체모를 지키기 위해서나 의견을 받지 싫지 풀어주자고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한두번인가?

공들이지 않고 풀릴것은 제 낮부터 먼저 내고

해결하기 힘들 때는 또 《자력갱생하오.》하고 일축해버린적은 없었던가.

생각할수록 차석빈은 더욱 심각해진다.

《음- 동무는 정말 힘든걸 제기했소. 옳소. 나도 그런적이 여러번 있었소. 그러나 내 이 순간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소. 자 약속하지요.》

중년탄부의 손을 굳게 쥐는 군당책임비서.

어쭙게 웃는 그 탄부.

《안됐습니다. 이거...》

《약속합시다!》

탄부들은 미더운 눈길로 책임비서를 바라본다.

어느날 저녁

탄광마을을 불태우는 석양.

황금빛 하늘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새무리, 때마침 어디선가 서글프게 들려오는 기타소리.

탄광합숙

창력에 걸터앉은채 산너머 먼곳을 바라보며 한숨속에 기타를 타는 박원철이.

사랑을 잃어버린 사나이의 마음처럼 처량하게도 울리는 저 기타소리!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던 강영호가 다리미질을 하고있는 《땅크병》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옆구리를 발끝으로 툭툭 친다.

《여. <땅크병>!》

《왜 그래?》

《땅크병》이 쳐다보는데 강영호는 눈길로 원철을 보라고 가리킨다.

하염없이 먼곳을 바라보는 원철이.

《히, 병나겠구만-.》

《문제야!》

영호 소설책장을 번지며 돌아눕는데 때마침 문이 열리며 안전모자를 옆구리에 낀 차석빈이가 기웃이 들여다본다.

《오늘은 여기서 하루밤 자불가?...》

그 소리에 돌아보는 《땅크병》

《아, 책임비서동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땅크병》이 분주히 다리미질하던 담요를 걷는데 영호가 침대에서 경충 일어나며 침대깃을 펴놓는다.

《자, 여기 앉으십시오.》

《아, 됐소, 됐소.》

창가에 앉아있는 원철을 바라보는 차석빈.

원철은 현실세계와 담을 쌓은듯 돌아보지도 않는다. 무엇인가 짐작되는 석빈.

《아니, 소대장은 왜 거기서 한숨만 쉬나?》

그래서야 돌아보는 원철.

《아, 오셨습니까?》

《도에술선전대가 왔다는데 구경이라도 갈게지.》

《뭘, 가고싶지 않습니다.》

《응?...》

《…………》

그러자 강영호가 차석빈의 귀에 대고

《책임비서동지, 저 친구 처녀한테 채우고서 지금 고민에 빠졌답니다.》 한다.

《채우다니?!》

저으기 놀라는 차석빈.

그러자 《땅크병》이 큰소리로

《예, 어느 간부집 딸인 모양인데요 탄광교원으로 오기 싫으니까 변절했지요!》

그 소리에 책 돌아보는 박원철.

《여 실없는소리 그만둬!》

《왜 실없어? 책임비서동지가 이런걸 알아야 한단말이야!》

그 말을 영호가 받는다.

《우리가 그까짓 처녀문제때문에 병사의 신념을 흐릴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처녀들을 볼텐…》

원철이가 더는 듣고만 있을수 없어 역증을 낸다.

《영호! 그 동무를 모욕하지 말라! 동무가 생각하는 그런 너절한 동무인줄 알아?》

《하하, 세상에 처녀한테 채우고도 그 처녀를 두둔하는 팔삭동이는 여기서 처음보는걸!》

《뭐?!》

원철은 두눈에 불을 일कु며 어쩔듯이 다가서더니 그만 제 분에 못이겨 기타를 침대우에 던지고 문밖으로 나간다.

《아니, 원철동무!》

《땅크병》이 찾는다.

신음하는듯 울리는 기타줄소리

생각이 깊어지는 차석빈.

《땅크병》이 기타를 거두며 중얼거린다.

《술치히… 이런 뎨 손맥이 풀립니다. 우리가 이런 대접받자고 탄광을 자원한줄 압니까? 일부 사람들은 제자식은 술술 빼돌리면서 남의 자식들 보고는 <당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 동무들을 부르고있소! 당의 호소에 물불을 가리겠소? 자,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단말입니다.》

그 말을 영호가 받는다.

《그 호소에 청년들은 탄광으로, 간석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당의 구호를 웨친 그 사람의 자식은 <병이 있소> <가정사정이지요>하고 다 빠져서 편안한 일자리를 하나씩 차지하지요.》

《음…》

더욱 심각해지는 책임비서의 낯색.

책임비서의 집

부엌에서 나오던 정심은 딸의 방에서 들리는 남편의 성난 목소리에 흠칫 놀란다.

《지금 탄광에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할 청년핵심들이 너같은 처녀들때문에 밀뿌리채 흔들리구 있어! 그래, 너 원철이한테 가겠냐, 못가겠냐?》

정심이 활랑거리는 가슴을 안고 딸의 방으로 다가간다.

이때 수영이의 안타까운 목소리.

《아버지!》

정심은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여느때없이 흥분이 오른 차석빈의 얼굴.

그러나 애써 격해진 마음을 다잡으며 조용히 타이른다.

《지금 당에서는 룡산탄광일이 잘 안돼서 몹시 걱정하고있다. 그래 이 아버지의 가슴속엔 자나 깨나 그 한가지 생각뿐이다.

그런데 넌 부모에 대한 걱정을 구실로 탄광에 가는걸 꺼린다니…》

《아버지!》

야속한듯 쳐다보는 수영이.

차석빈은 절절한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물론 도시서만 살아온 네가 가정을 떠나 산골로 간다는게 힘들겠지. 그러나 네 생각이 그렇게 돼서야 되겠니? 자신보다 먼저 당을 생각하구, 일을 할 때두 길을 걸을 때두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가슴에 새길줄 아는 사람만이 새시대의 청년이고 참된인간이다.》

《…………》

그 말에는 고개를 숙이는 딸.

차석빈은 그만하면 수영이가 마음을 돌렸으리라 믿고 확답을 재촉한다.

《자, 시간이 없다. 어서 네 결심을 말해라 응?》

정심은 딸이 가없게 느껴지자 《어보!》 하고 가운데 끼여든다.

그러나 안해를 밀어놓는 차석빈.

《가만, 어서 말하렴…》

드디어 입을 여는 수영이.

《전 여태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뜻을 한번도 어진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만은…》

그리고는 갑자기 흐느끼며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수영아!》

《어머니!》

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남편을 쳐다본다.

《어보, 애를 좀 그만 몰아대세요! 어디 불쌍해서 보겠어요?》

어머니의 부추김에 힘을 얻은 수영은 울음섞인 목소리로 청한다.

《아버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네? 아버지!》

《수영아!》

딸을 다시 끌어안는 정심.

이러는 모녀를 난감해서 바라보는 책임비서.

답답한 가슴을 혼자 묵새기는 차석빈.

《수영아… 넌 군당책임비서의 딸이다. 당일군이 일구이언해서는 안된다는거야 너도 잘 알고있지 않느냐!

책임비서가 인민에게 하는 소리가 다르고, 제집안에서 하는 소리가 달라서는 안된다.》

차석빈은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이 저린듯 한숨

을 쓴다.

탄광에서 들은 제대군인들의 말이 방금 귀전에 들리는듯싶다.

참말 당일군이 한입으로 두소리를 할수 있단말인가?

당일군은 그 어디가서나 당을 대표한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인간- 당일군에게서 당의 존엄과 사랑을 느낀다.

이것을 어쩌서 수영이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단말인가?

다시한번 딸을 타이르는 책임비서.

《지금 당에서는 모든 핵심력량을 탄광에 집중할것을 바라고있다. 그래서 너의 원철이두 당의 아픔을 풀려고 달려간거다. 그런데 책임비서인 내가 가정사정이 있다구 제자식을 빼돌릴수야 없지 않느냐? 당일군이 한입으로 두소리를 하면 군중은 당을 믿지 않아!》

《…………》

《탄광에 분교하나가 생겼는데 파견할 교원이 없다구 탄광과 교육사업부에서 제기가 올라왔다. 그래서 난 너를 생각했다. 수영아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다오. 응?》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호소하는 차석빈.

《…………》

허나 수영은 아버지의 눈길을 피하며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전 정말! …》 하고는 얼굴을 돌린다.

이러는 딸을 보는 차석빈의 두볼이 드디어 푸들푸들 떨린다.

미구에 폭발하고야마는 차석빈.

《뭐?! 좋다! 넌 내 딸이 아니다! 당의 은덕속에 자신의 행복만을 찾으려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은 필요없어!》

《?!》

원망의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는 차수영.

너무 억이 막혀 말을 못한다.

여기에 더 격한 음성.

《필요없단말이야!》

정심이가 아연해서 남편을 본다.

《여보! 실성을 했어요?》

《…………》

그러자 수영이가 얼굴을 싸쥐며 일어나더니 그만 흑흑 느껴울며 밖으로 뛰어나간다.

《애 수영아!》

접을 먹은듯 웨치며 따라나가는 정심.

마당가

《애, 수영아!》 따라나가다가 벗어나서는 정심. 수영이가 담모퉁이에 돌아가더니 얼굴을 묻고 흐느껴운다.

지금 정심의 가슴은 미여지듯 아프다.

남편의 뜻을 쫓지도, 딸을 보내지도 못하는 정심의 마음.

정심은 갑자기 온몸이 전율감이 온듯 맥없이 마당가 의자우에 주저앉는다.

미구에 그의 두볼에 천천히 흘러내리는 눈물.

이윽고 차석빈이 안해결로 온다.

《여보!》

《가서 일보세요. 난 좀 혼자 있고싶어요.》

《…………》

차석빈은 안해를 그냥 두고 갈수가 없어 자기도 의자 한쪽에 걸터앉는다.

이윽고 입을 여는 차석빈.

《여보… 난들 왜 수영이를 데리고있고싶은 생각이 없겠소?... 하지만 어쩌서 굳이 탄광으로 보내려고 하는걸 당신은 정말 모르겠소?》

《…………》

《당신까지 이러니… 섭섭하오.》

피로운 눈길로 먼곳을 보는 차석빈.

때마침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떼.

한동안 계절조를 묵묵히 바라보는 석빈.

《당신도 알고있지만… 난 열두살때까지 철다리 밑에서 거적때기를 쓰고살았소. 나의 부모는 전염병으로 한시에 세상을 떠나구 나혼자 남았겠소.》

《?!…》

《낮에는 거지떼들을 따라다니면서 큰거지들이 주는 밥궤기를 하나씩 얻어먹구, 밤에는 철다리 밑에 와서 나를 혼자 두고 가버린 부모를 원망하면서 쉴게 울다가는 제풀에 잠이 들곤했소…》

그제사 눈물을 거두고 남편을 보는 정심이.

점차 목메이는 남편의 음성.

《그래서 늘 고아라는 설음이 나의 어린가슴 한 구석에 차있었소. …그게 없어진게 아마 내가 입당하는 날일제야, 그때 당위원장이 <석빈동무. 당은 진정 어머니품이요. 이제부터 오직 당을 믿고 사시오>하더군. 정말… 당은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였구, 아버지였구 또 친형제였소. 내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더욱 깊어지면서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당을 더 잘 받들어야겠다고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곤하오…》

《여보!…》

담모퉁이에서 홀로 듣던 수영은 아버지의 목멘 소리에 갑자기 가슴이 저려와 종시 눈물을 삼킨다.

다시 들리는 아버지의 갈린 목소리.

흥분에 싸이는 차석빈.

《그래 이런 내가 자식을 호강시키겠다고 수영이를 끼고있으란말이요?》

《…………》

《당에선 통산탄광때문에 그토록 심려하고있는데 내 한몸바쳐 그걸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당의 은덕속에 자신의 행복만을 찾아야 옳겠소?》

《수영이아버지!…》

《난, 그럴수 없소!》

흥분을 도저히 억제할수 없어 일어서는 차석

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대도 난 그럴수 없단말
이요.》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안고 마당가를 오가는 차
석빈.

그러는 남편을 보는 정심은 그만 죄송한감에
몸들바를 모른다.

과연 정심은 그 말을 오늘 처음 들었던가?

둘이 다 부모없는 고아로 당이 차려준 결혼식
을 할 때 남편 차석빈은 결혼식장에서 종시 울지
않던가!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남편은 설움많던 과거
를 잊지 않는데 정심은 언제부터 귀부인처럼 자
기의 한가정만 생각하기 시작했던가!

마음을 진정못하는 남편.

마당가의 소나무를 부여안고 안타까움에 몸부
림치는 차석빈.

여기에 울리는 노래.

그 어데서나 하나의 생각 그 사랑을 못잊어
꿈속에서도 하나의 생각 그 믿음에 불타는 마
음

아- 변함있으랴 당에 대한 전사의 의리

노래를 타고 흘러가는 화면들.

활짝 핀 늦가을의 들국화.

사철 푸르싱싱히 서있는 소나무의 기상.

당의 심려를 두고 가슴이 아파 몸부림치는 차
석빈.

그 심정을 따르지 못한 정심의 심정.

진정 이제부터 새길을 가리라. 그것이 바로 아
버지를 위한 길이요 당을 위한 길이란것을 가슴
저리게 느끼는 수영이.

뜨거운 한마음으로 영키는 당일군의 한가정

어느날

학교운동장에 여러대의 승용차가 갑자기 들이
닥친다.

차에서 다급히 뛰어내리는 세사람.

그들은 책임비서의 호출을 받고 달려온 군안전
부장, 군검찰소장, 군인민병원 원장이다.

무엇때문에 책임비서는 그들을 군당으로 부르
지 않고 이 평범한 읍내 인민학교에서 찾았던가!

그들은 앞을 다투어 학교 현관안으로 들어간
다.

학교 당비서실

중년부인의 당비서가 손님들을 반갑게 맞는다.

검찰소장이 먼저 손을 내민다.

《아, 비서동무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임비서동지가 잠깐 기다려달
라구 부탁했습니다.》

안전부장이 의아해한다.

《아니,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학급에 교수참관 들어가셨습니다.》

《예?! 담당학급이요?...》

뜻밖인듯. 놀라는 세 간부.

너당비서는 그들이 전혀 모르고있는것이 한심
한듯 차근히 설명해준다.

《처음 들으시는 모양이구만요. 군당간부들이
한학급씩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오십니다.》

《예...》

그제사 고개를 끄덕거린다.

어느 학급

학생들의 학습장을 검열해보는 책임비서.

그의 주위에 가득 모여선 학생들과 나어린 너
교원. 차석빈이가 장난군같은 한 학생의 공책을
펼쳐보더니 대번에 만족한 웃음을 웃으며 처녀교
원을 본다.

《선생님, 이젠 광철이노트가 제일 깨끗해졌습
니다.》

《네, 학급생활에서도 아주 모범생이랍니다.》

처녀교원이 자랑스레 말한다.

《그래요?》

다른 학생의 공책을 들어보는 책임비서.

《순호는 아직 8점짜리가 있다면서?》

《아닙니다! 산수 10점 맞았는데 씨!》

불부는 소리를 하는 순호학생.

그 모양을 보고 껄껄 웃는 책임비서.

《그럼, 평양전학을 시켜야겠군.》

그 소리에 갑자기 《야!》하는 탄성이 일어난다.

좋아서 참새처럼 떠드는 아이들.

때마침 당비서가 들어와서 알린다.

《책임비서동지, 다 모였습니다.》

《예, 그래요?》

책임비서 일어선다.

당비서방

방에 들어서며 악수를 청하는 차석빈.

《이거, 기다리게 해서 안됐습니다, 앉으십시
요.》

몹시 궁금한 시선으로 책임비서를 쳐다보는 세
사람.

차석빈은 잠시 신중해지더니 침착하게 입을 연
다.

《오늘 동무들을 오라고 한것은 세동무가 다 군
당위원이고 또 군내의 핵심간부들이기때문에 교
육문제를 놓고 허심하게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

《지금 룡산탄광지구와 광산마을에서... 십여명
의 교원이 부족해서 분교를 운영하지 못하고있습
니다. 그런 반면에 읍내학교들을 조사해본데 의
하면 필요이상으로 교원들이 남아돌아가고있습
니다.》

차석빈은 서류가방에서 타자친 어떤 문건하나를 꺼낸다.

그것을 긴장해서 바라보는 세사람.

책임비서가 침착히 계속한다.

《그래 군당교육사업부에서 읍내 학교들에 나가 군내실정을 얘기하고 호소한 결과 많은 교원들이 자진해서 탄광과 광산마을에 갈것을 결의해나섰습니다.》

《……》

《그런데 능히 분교교원으로 갈수 있는 몇명의 처녀교원들이 당의 요구에 외면하였습니다. 소조가 알아본데 의하면 그중에 네댓명의 처녀교원들은 아버지들이 힘을 쓸수 있는 간부들이기때문에 그런다는겁니다…》

세사람의 눈길이 순간에 긴장해진다.

《그래 사실을 알아보니 그 반영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 이제부터 그 동무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겠습니다.》

《?!》

서로 쳐다보는 세사람.

문건을 보는 책임비서.

《첫째, 장혜숙, 아버지의 직업은 군안전부장!》

놀라는 안전부장.

《둘째, 리순옥, 아버지의 직업은 군검찰소장. 셋째, 신영희, 아버지의 직업은 군인민병원 원장, 넷째, 차수영, 아버지의 직업은 군당책임비서입니다.》

문건을 책상우에 놓는 차석빈

《우리 애는 어제 떠내보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것들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얼굴이 빨개서 앉아있는 세사람.

《없습니까?》

《허…》

난처한 웃음을 짓는 안전부장.

차석빈은 한참만에 입을 연다.

《나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네사람은 다 군내의 간부들이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세사람.

이윽고 천천히 말을 꺼내는 석빈.

《동무들도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우리는 나이 오십이 되도록 혁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전후복구건설시거나 또 내외의 원수들을 반대해서 간고한 투쟁을 벌리던 대고조시거나, 제 한몸 편안히 살아왔거나 혁명의 요구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끊고 잠시 묵묵히 서있는 군당책임비서.

《그러나 우리의 대를 이을 혁명의 새세대들중에는 나이 삼십도 되기전에 벌써 개인의 운명과 전도부터 생각하면서 당의 요구에 외면하는가 하면 부모의 공로를 개인향락의 밑천으로 삼으려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심한 자책을 느끼며 한숨을 쉬는 군내 간부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더욱 심중해지는 세사람.

《난, 우리 딸애가 그런줄은 감감 모르고있었습니다. 내 책임이 큼니다.》

군검찰소장이 반백의 머리를 쓸어올리며 심히 자책된 표정을 짓는다.

안전부장이 일어나며

《이거 정말 당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한다.

머리를 깊이 숙이는 군병원원장.

책임비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

《자, 그럼 모임이 모임이니만치 무슨 결정을 해야겠는데 내 생각같아서는 각자 량심의 결정을 짓는게 어떻습니까?》

《예. 량심에 부끄럽지않게 살겠습니다.》

군병원 원장이 이마의 땀을 훔친다.

탄광지배인실

차석빈이가 이제는 탄광교원문제가 풀렸다고 생각하고있는 그때 뜻밖에도 발전소기사장 박우필이가 10년만에 처음으로 룡산탄광을 찾아왔다. 지금 엄광준지배인은 박우필의 얘기를 듣고 몹시 난처한 상태에 빠져있다.

책임비서의 가정사정이라니 쉽게 외면할수 없었다.

속이 타는듯 지배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담배연기.

《기사장동무가 그이때문에 먼길을 왔구만요.

책임비서의 외딸문제라…》

《예.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구 거 옆에서 풀이 쥐야지 어떻게 원철이 문젠 부탁하겠습니까?》

《음…》

《지배인동무, 책임비서동무가 이 일을 알면 펄쩍 뿔쩍합니다. 그러니 원철이가 읍에 와서 새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 약속하지요?》

다짐을 받는 박우필.

점점 곤궁에 빠지는 탄광지배인.

《그런데… 원철이가 혹시 동의할런지?…》

《아, 그건 걱정마십시오. 조카문제는 내가 책임질테니.》

일이 락착됐다는듯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는 우필기사장.

엄광준이도 이제는 하는수 없는듯

《그럼 어디 당위원회와 의논해봅시다.》 한다.

싱긋이 의미있는 웃음을 보이는 기사장.

《난 지배인동무만 믿습니다.》

《허…》

그들은 밖으로 나간다.

탄광청사앞

읍내 공장들에서 지원물자를 가득 실은 차들이

청사앞에 들이닥친다.
 맨 선두차에서 내리는 차석빈책임비서.
 마침 합숙쪽에서 나오던 청년탄부들이 반갑게 달려온다.
 《아, 동무들!》
 《책임비서동지!》
 《수고들합니다. 입갱하는길이요?》
 《그렇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배인과 박우필이가 마당쪽으로 나온다.
 먼저 책임비서를 발견한 박우필은 어지간히 당황해한다.
 《아니, 책임비서동무가 어떻게?》
 《요새 우리 탄광에서 살다싶이하지요.》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엄광준은 책임비서쪽으로 뛰어간다.
 탄광에 지원물자를 실고온 사람들과 뜨거운 악수를 나누는 지배인.
 그는 좋아서 입이 합지박만해졌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이거, 탄을 많이 캐긴 캐야겠습니다.》
 《하하!》
 박우필이가 할수없이 여기에 끼워든다.
 뜻밖에 우필을 본 차석빈은 무등 기뻐다.
 발전소 기사장이 제발로 탄광에 찾아왔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반갑게 손을 쥐어주는 책임비서.
 《기사장동무, 언제 왔소? 동무들, 인사하오!》
 차석빈이 기사장을 탄부들에게 소개한다.
 《화력발전소 기사장동무요.》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영호가 먼저 인사한다.
 땅크병출신 청년이 먼저 안다는듯.
 《아,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순박하게 인사를 한다.
 그들의 뒤에 서있는 원철이가 나오며
 《삼촌, 건강했어요?》 한다.
 《오, 잘 만났다.》
 이러는 사이 지원자들이 화물차우에서 지원물자를 부린다.
 그것을 받는 탄광지배인과 차석빈.
 책임비서도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지배인동무, 어떻습니까? 우린 지배인동무가 요구하는대로 제대군인들도 몽땅 다 주었지. 또 처녀교원들두 보내주었지. 그리구 소공구들도 이렇게 온 군이 펼쳐나서 보장해주니 이젠 진짜로 도와달란 소리는 못하겠지요?》
 오금을 박는 책임비서.
 《예.》
 꺾꺾 웃는 엄광준지배인.
 톱을 받아내리는 책임비서.
 《그러니 무조건 2천톤을 발전소에 보내야 합니

다. 동무들. 자신있소?》
 청년탄부들에게 던지는 책임비서의 호소.
 《자신있습니다!》
 《이것 보우! 오죽했으면 저 발전소기사장이 여기 탄광에까지 찾아왔겠소?》
 이렇게 말하며 책임비서는 기사장의 팔을 잡아당긴다.
 《기사장동무, 발전소에서 보내올 소공구들은 어떻게 됐소?》
 《예, 지금 저...》
 소공구 같은건 강건너 불보듯하던 박우필은 흠칫 놀란다.
 입속으로 푹푹치 않은 말을 얼버무리는 기사장.
 차석빈은 노여운 생각이 들었으나 사람들 앞이라 그저 좋은 말로 가볍게 탓한다.
 《기사장동무, 아 올바에야 남들처럼 이렇게 한차 척 실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소? 그저 석탄을 달라는 소리만 하지 탄광을 도울 생각은 전혀 안한단말이야!》
 그 말에는 우필이도 얼굴빛이 빨개진다.

그날밤

차석빈이가 지배인방에 앉아서 생산통계를 보고 있는데 탄광담당지도원이 조용히 들어온다.
 《제방에 오셨습니까?》
 《오, 지도원동무요? 여기 와 앉소.》
 차석빈이 자리를 권한다.
 《여보, 영찬동무! 동무는 왜 사람들이 찾아올때 바쁜 내색을 하우?》
 《그새 거... 급한 일들이 좀 제기돼서...》
 《급한 일? 아니 당일군이 사람들을 만나는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소?》
 《.....》
 《그러지 마오, 당원들이 한번 상급당일군을 찾아올 때는 열번 재고 한번 결심해서 온다는걸 늘 명심해야 하오.》
 《예...》
 심중히 듣는 담당지도원.
 이때 갑자기 울리는 갱내 전화종소리.
 《지배인실입니까!》
 담당지도원이 지배인 책상앞에 가서 송화기 단추를 누른다.
 수화기에서 울리는 격한 목소리.
 《지배인실입니까?》
 《예.》
 《채탄소대장 박원철입니다.》
 《아, 원철동무요? 왜 그러우?》
 《지배인동지! 나를 읍으로 빼가려는 우리 삼촌의 제책에 동의하셨다면서요?》
 《영?!》
 그 소리에 꺾꺾 놀라는 책임비서.
 《내가 뭐, 지배인동지가 마음대로 옮겨놓는 장

기죽인줄 압니까? 가정사정이요, 뭐요 하고 탄부들을 하나씩 다 빼놓으면 지배인동지는 나중에 누구와 탄을 캐겠습니까. 예? 누구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겠는가말입니다?!》

더없이 사색이 되는 차석빈.

《아, 원철동무!》

《지배인동지, 난 가만있을수 없습니다. 책임비서동지한테 제기하겠습니다.》

《웁소! 제기뿐아니라 책임비서를 비판하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게 책임비서요?!》

홍분을 억제하지 못해 방안을 왔다갔다하는 책임비서.

강렬한 내심의 목소리.

(우필이. 자넌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간인가? 온 나라가 탄광때문에 걱정하는 때에 고작 조카를 빼가자고 찾아왔단말인가?)

울분과 모멸감으로 몸부림치는 차석빈.

책임비서의 가슴은 지금 불덩이처럼 끓는다.

기사장방

우필이가 작업복과 모자를 벗어 옷걸이에 거는 데 갑자기 자지러지는 부 지령전화가 울린다.

《예. 아, 전력공업부라구요? 예, 제가 기사장입니다. 예?!》

박우필은 깜짝 놀라며 전화통을 누가 빼앗기나 하듯 꼭 틀어잡는다.

《아니 그 <점화로>얘기가 어떻게 부에까지 올라갔습니까?》

《하하, 부일군들도 귀가 있으니까요. 기사장동무!》

《네...》

기사장의 얼굴은 금시 파랗게 질린다.

송화기에서 울리는 소리.

《래년도 중유소모예산을 짜뒀는데요. 만일 <점화로>가 성공되면 구태여 외국에서 중유를 사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뭐요?》

허바닥이 새끼처럼 꼬이는 박우필.

《아, 책임지도원동무! 그 <점화로>라는건 아직 가설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심중히 토론해서 결심을 알려주십시오.》

《.....》

수화기를 집어던지듯 덜컥 놓는 박우필.

《에익, 그 최관배령감탓이야! 조용해졌던걸 또 쭈셔놔서...》

생각할수록 본격이 솟아나는 우필. 그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수화기를 든다.

《가만, 거 로동과장을 찾소!》

한손으로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문다.

《로동과장입니다.》

《내 우필이요, 최관배아바이말이요.

년로보장년한이 10 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쉬울 생각을 안하오?》

로동과

전화를 받는 안경쟁이로동과장.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불만을 은근히 토설한다.

《본인이 어디 승인을 합니까? 벌써 세번째데 참...》

《세번째?》

박우필이 세번째라는 소리에 속이 더욱 울컥해진다.

언짢은 생각만 앞선다.

《돈 몇푼 더 받자구 그러는가?》

이때 로동과장이 은근히 귀찮해준다.

《설복을 잘 해야지 그 아바인 가만 안있습시다.》

다시 기사장방

기사장이 무섭지 않다는듯 코웃음친다.

《우에다 또 뭐라구 제길 하겠지.》

박우필은 단호한 결심을 내린다.

《여보, 과장동무. 무조건 로동법규대로 당장 집행하도록 하시오. 이번엔 책임비서가 직접 그랬다면 더 엇서나가지 못할거란말이요. 알겠소?》

그것은 우필의 거짓말이었다.

언제인가 책임비서가 최관배로인이 힘들어한다고 걱정하면서 잘 돌보라고 부탁했었는데 지금 우필은 그것을 생각해서 대담하게 당의 이름을 판것이다.

당을 걸고 자기의 목적을 강요하는 박우필.

열 직장

보이라 화실결에다가 시험점화로를 쌓는 기술 혁신조사람들, 최관배로인 높은 란간에 올라앉아서 지휘를 하고있다.

《여보게 성목이!》

그러자 소조원이 화구안에 대고 찾는다.

《태동무, 찾아요 할아버지가!》

그러자 《예.》하며 목을 쑥 내미는 태성목.

《거 대가리를 좀 들게 불길에 걸린다니, 엉?》

《예 알아요! 거 참, 잔소리두 원...》

《아이, 태동무!》 소조원이 눈을 뺀다.

《뭐라구?》

로인이 듣지 못하고 다시 소리친다.

《예 잘 지도하신단말이예요.》

태성목이 큰소리치는 바람에 모두 일손을 놓고 웃는다.

소조원이 최관배의 말을 긍정한다.

《태동무, 할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불길은 예민하니깐요.》

《예. 예.》

이때 란간으로 급히 뛰어올라오는 조작공청년

이 최관배의 귀에 대고
 《할아버지!》
 《왜?》
 《로동과에서 찾아요!》 하고 알려준다.
 《왜 찾는다더냐?》
 《모르겠어요!》
 불안에 싸이는 최관배로인.
 《응... 알겠다.》
 《로동과》라는 표쪽
 로동과에서 나오는 관배는 문을 닫자 현기증이
 나는듯 휘청거린다.
 지나가던 녀인이 놀라며 부축한다.
 《할아버지! 어디 편치 않으세요?》
 《어, 일없네.》
 로인은 부축을 사양하더니 긴 복도를 힘겹게
 걸어간다. 마음의 소리.
 (책임비서까지 나를 해임시키라고 했던말이
 지...)

둔덕

화력발전소가 한눈에 안겨오는 언덕이다. 최관
 배로인은 한것이나 이 둔덕에 와 앉아서 하염없
 이 보이라의 굴뚝만 바라본다. 흰연기가 뭉게뭉
 게 피어 오르는 굴뚝들...
 마치 영원히 기억속에 남겨두려는듯 끝없이 바
 라보는 최로인 .
 그의 손에 쥐여져있는 《년로보장증서》
 이윽고 그의 주름진 두볼에 흘러내리는 눈물.
 목메인 로인의 목소리.
 (로동법... 법이야 고마운 법이지... 하지만 자
 녀들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주누만...)
 그의 거친 손등우에 떨어지는 눈물방울들...

책임비서방

차석빈이 의자에서 텅기듯 일어나며 다우쳐 문
 는다.
 《해임시키다니? 누가 그랬소 영?》
 소조원과 태성묵은 책임비서가 이렇게 되문자
 그만 얼퍼름해져서 서로 쳐다볼뿐이다.
 소조원이 용기를 내서 반문한다.
 《아니, 그럼 책임비서동지가 지시한게 아닙니
 까?》
 《내가 지시하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순간 차석빈의 눈앞에는 기사장의 얼굴이 떠올
 랐다.
 태성묵이가
 《저... 기사장동무가 그러던데...》 하고 자신없
 는 소리를 한다.
 《기사장이?...》
 불안한 예감이 사실로 확인됐다.
 《음... 우필이, 자네가 종시...》

최관배의 집

마당에 앉아 벼짚으로 새끼를 꼬고 있는 최관
 배로인.
 등을 구부리고 쓸쓸히 앉은 그 모습 처량하기
 그지없다.
 이때 마침 대문가에 태성묵이와 소조원이 나타
 난다.
 《계십니다.》
 태성묵은 책임비서쪽을 돌아보더니 먼저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최로인의 등에 대고
 《할아버지!》 하고 찾는다.
 피끗 돌아보는 최관배.
 순간 두눈섭이 송충이같이 꿈틀거린다.
 《왜 또 왔다? 나야 이제 구새먹은 고목인데 무
 슌 쓸모가 있겠대구...》
 소조원이 다정히 곁에 와 앉는다.
 《할아버지두 참... 이제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
 래서 책임비서동지가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까?》
 최로인이 본능적으로 획 돌아본다.
 참말로 마당가에 들어서는 사람은 군당책임비
 서다
 그러자 관절매듭이 툭툭 뺨어져나온 최관배의
 두꺼운 손이 갑자기 얼굴을 꽉 덮는다.
 《으흐흑...》
 소리내어 꺽꺽 우는 최로인.
 여태 참아오던 설음이 일시에 멍치끝에 북받친
 다.
 그러는 로인을 보는 차석빈은 어쩔바를 모른
 다.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십시오.》
 차석빈이 얼른 다가가서 로인의 팔을 잡는다.
 책임비서를 보는 최관배의 그 눈빛!
 《억울하이! 내 생의 말년에 이런 멸시받게
 억울해 뭐, 내가 돈이나 몇푼 더 받자구 기를 쓰
 구 직장엘 나온대구?》
 《?!...》
 《이보게 책임비서! 내가 돈을 벌어서 묘지에
 갈머지고 갈텐가 영?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임자야
 내 심정을 잘 알지 않나!》
 《.....》
 뭐라고 대답을 못찾는 차석빈.
 설음을 토설하는 최로인.
 《그 러 니 이제는 쓸모가 없는 고목이란말이
 지...》
 로인의 탄식은 책임비서의 가슴을 아프게 허빈
 다.
 로인앞에 사과하는 책임비서.
 《아버님, 제가 일처리를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몸을 돌려 무릎을 땅에 박는 최관배.
 《책임비서, 내 무릎을 꿇고 비네.》
 《아버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로인의 두팔을 붙잡으며 얼른 제지시키는 차석
 빈, 하나 최관배는 그에게 온갖 넋을 맡기듯 굴
 복을 한다.
 《내, 죽는날까지 보이라앞에서 우리 수령님은

덕에 보답하다가 숨지게 해주게 영?!...》

《아버님!》

차석빈이도 그만 목이 콕 멘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는 소조원처녀.

돌아오는 길

승용차 차창가에 말없이 앉아서 흘러가는 거리를 묵묵히 내다보고 앉아있는 책임비서.

마음의 소리

(얼마나 순결한 마음인가!... 이것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드는 우리 로동계급의 고귀한 의리가 아니겠는가!)

로인의 정상을 생각할수록 차석빈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우필이가 그럴수 있었는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최관배. 그의 제대배낭을 받아주고 스파나 쥐는법부터 보이라의 물때벗기는 법까지 가르쳐준 로인, 그런 로인을 감히 버리다니...

차석빈은 이런 생각으로 골몰하는데 승용차는 발전소쪽으로 달린다.

기사장방

문을 열고 기사장방에 들어서는 차석빈.

이쪽으로 등을 대고 앉은 두사람은 책임비서가 말없이 문가에 들어와 선것도 모른다.

당비서의 불만에 찬 소리.

《그러니 기사장동무는 이 중유추가신청서를 부에 제기하겠다는건가요?》

《다른 방도야 없지 않습니까?》

《기사장동무, 이 문제 책임비서동무와 다시 한번 협의해봅시다.》

이 말에 박우필은 속이 울퉁한다.

도대체 발전소의 전력생산을 누가 지휘하는건가? 그 책임을 바로 이 기사장 박우필이가 지고 있다는것을 당비서는 몰라서 그러는가?

당비서를 타이르듯하는 우필의 목소리.

《아, 비서동무. 우린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더 큰 파고를 범합니다. 제발 내 결심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니 남이라니?》

《예?》

그제사 인기척에 돌아보던 박우필은 어지간히 당황해한다.

천천히 기사장앞으로 다가서는 책임비서.

《어디 좀 봅시다. 그러니까 동무는 국가사정이야 어떻게 내 빠질 구멍부터 봐야겠다, 그거요?》

중유추가신청서를 벌떡벌떡 뒤지는 차석빈.

《책임비서동무!...》

박우필이 참지 못하고 웨친다.

《이 발전소의 전력은 내가 책임 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당이 너무 간섭합니다.》

《응? 너무 간섭한다구?》

당비서가 열른 기사장을 막는다.

《아니, 기사장동무. 무슨 말을!...》

막 떠날듯이 옷을 갈아입는 박우필.

《아니, 난 어디서나 할말은 합니다. 책임비서동무. 난 태성묵이의 <점화로>에서 전기가 나오면 전기기술자가 된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 순간에 사표를 내겠습니다.》

《?!》

《그래 책임비서동무가 담보하던 그 2천톤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그 도깨비로에서 한와트의 전기라도 나왔단말입니까?》

거품을 물고 웨치는 박우필.

대답을 못찾고 뻔히 쳐다만보는 석빈.

우필이가 잡아챌듯 손을 내민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문건을 주십시오.》

《정말 가겠소?》

《난,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25 만키로와트를 얻어야 합니다. 이젠 그 누구도 막지 못할것입니다.》

《뭐? 막지 못한다구?》

차석빈은 기사장의 문건을 짹짹 찢어버린다.

《아, 책임비서동무?!》

눈이 뒤집힐듯 놀라는 박우필.

안절부절 못하는 발전소당비서.

차석빈의 여느때없이 날카로워진 음성.

《동무는 25 만키로와트를 기사장이 뽑았다는 소리를 듣고싶어서 그러지요?! 그리고 발전소는 역시 박우필이가 있어야 전기가 나온다는 평가를 받고싶고?...》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소립니까?》

《동무는 언제부터 전기도 <내>가 알고 생산도 <내>가 책임지고 모든 면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소? 언제부터 군중우에 자기를 올려세워 놓고 당도 안중에 없이 교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나말이요?》

홍분을 억제하느라 애쓰는 책임비서.

하나 박우필은 참지 못한다.

《사람을 너무 속단하지 마시오. <점화로>를 두고 얘기하는것 같은데...》

《아니, 난 <점화로>가 아니라 그것을 성공시켜 보려고 애쓰는 평범한 인간들을 두고 하는 소리요 만일 동무의 그 폭군과 같은 행위가 아니었다면 벌써 10 년전에 은을 낼수도 있었소.》

《난, 방해한 일이 없습니다.》

《없다구?! 동무는 지금도 방해하고있소.》

《예?!》

놀라는 우필.

기사장을 쳐다보는 발전소당비서.

차석빈이 따진다.

《동무는 어째서 최관배로인을 해임시켰소? 그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소?》

《?!...》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기사장.

《기사장동무, 그게 사실입니까?》

《.....》

《왜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까?》
《아, 비서동무는 강습가있었길래...》
몹시 불쾌한 당비서.
《기사장동무, 언제인가 집행위원회때 한번 추
궁을 받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옳은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서 개인복수적으로 그를 해
임시킨단말이요?》

차석빈이 한마디 끼운다.
《자기 독단주의에 방해가 되니까!》
《뭐, 뭐요?! 난 로인이 힘들어하기때문에...》
《우필이!》
그만에야 버럭 추상같은 소리를 지르는 차석
빈.

《아직도 당조직을 우롱하는가? 설사 친구는 속
일수 있어도 당을 속여서는 못쎄!》

《?!》
한동안 팽팽한 침묵.
가슴을 치는 책임비서.
《오늘, 최관배로인은 내앞에서 울었소. 평생을
혁명에 바쳐온 로인이 생의 말년에 버림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 나는 정말 그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싶었소.》

《?!》
놀란듯 쳐다보든 두사람.
《기사장동무, 동무가 뭐길래 우리의 오랜 혁명
가들 그렇게 모욕할수 있소! 동무는 그 로인의
가슴속에 무엇이 꿰고있는지 봤소? 오직 순결한
충성심 하나밖에 없는 로인의 마음을 동무는 돈
으로 계산하려 했소. 로동계급의 의리를 동무는
돈으로 계산하려 했단말이요!》

《책임비서동무, 그건...》
《동무는 20년전에 그 아버지의 견습공이었지!
동무에게 로동계급의 첫 신발을 신겨준 그 아버
이를 동무는 오늘에 와서 어떻게 차버렸소?》
어금이를 우득 무는 차석빈.
시퍼런 불길이 이글거리는 그의 두눈!
《그래 동무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과는 의리
를 지키구 늙어서 짐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과는
혁명적의리도, 인간의 도리도 다 차버리는거요?》

《그 말은 너무하오!》
발작적으로 웨치는 박우필.
《아니, 난 수영이를 걸구 탄광에 찾아가서 원
철이를 빼내려고 한 동무의 행동을 놓고 아주 위
험한것을 새롭게 보았소. 동무는 자기의 리익에
저촉만 된다면 언제든지 쉽게 변할수 있는 사람
이요!》

《뭐, 뭐라고요?! 내가, 내가 변할수 있는 사람
이라구요?》

박우필은 그 말에 기름튀듯한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책임비서.
《그렇소, 지금 전당이 탄광때문에 걱정하고있
는 때에 동무는 탄광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
떻게 탄광에 가서 제조카를 빼달라고 말할수 있
냐 말이요?》
《.....》

박우필을 새삼스레 쳐다보는 차석빈.
오늘 처음 보거나 한것처럼 뚫어지게 본다.
《난 지금 동무를 보면서... 전쟁관에서 알게 된
저사람이, 여태 당과 수령밖에 모르는 충신이라
구 믿어왔던 저사람이...》
차석빈의 목소리 떨린다.
《제 하나의 리익을 위해서는 순간에 간신으로
변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중이
요.》

《그만하시오!》
책상을 치는 박우필.
하나 그것은 뉘빠진 목소리.
차석빈의 목소리 더욱 준절하다.
우필의 인간밑바닥을 절규하는 그 추상같은 웨
침은 온 방안을 울린다.

《아니, 동무는 충신과 배신이 배속에서부터 타
고 나오는줄 아는가! 충신도 우리곁에 있구, 간신
도 우리곁에 있소! 력사의 교훈은 항상 당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자들. 당우에 자기를 올려
세우려는자들, 그들은 다 당이 시련을 겪을 때
례외없이 배신의 구렁텅이에 떨어졌다는것을 보
여주고있지 않는가!》

머리를 싸쥐는 박우필.
심각한 사색에 빠지는 발전소당비서.
그의 귀전을 아프게 울리는 책임비서의 목소
리.

《우리 당에서는 동무와 같은 사람이 필요없소!
필요없단말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일신의
출세나 개인의 향락을 다 버리고 당과 운명을
같이할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당중
앙을 따라서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영원히 한길
을 따라갈 사람만이 필요한것이요!》

몸부림치는 박우필. 충혈된 그의 두눈, 퍼렇게
죽어가는 입술.

《다 말했소? 이젠... 내가 그렇게까지 너절한
인간이 되었던말이요?》

박우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정신없이 문을 박차
고 나간다.

차석빈은 그만 긴장이 풀린듯 이마를 싸쥐고
안락의자우에 쓰러지듯 앉는다.

더없이 피로움에 몸부림치는 차석빈.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한가?...》
《책임비서동무, 진정하십시오.》
《난, 그렇게밖에 말할수 없었소!》
《.....》

마침 비바람이 몰려오며 열려진 유리창문을 깨
칠듯이 달아버린다.

마당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우장도 없이 마당으로 미친사람모양 허방지방
걸어나온 기사장은 자기 승용차가 서있는쪽으로
렘병거리며 오더니 다짜고짜 발동을 건다.
이윽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기사장의 승용차.

다시 기사장방

마당을 내다보면 당비서가 근심이 되는듯 차석빈을 본다.

《중유때문에 부에 올라가겠다고 하더니...》

《가긴 어딜 가겠소. 그냥 놔두시오.》

당비서는 책상앞에 와 앉는다.

《책임비서동무, 기사장동무가 저렇게 된데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저만한 기술일군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사장의 말이라면 그저 좋게만 생각해온 나때문에 오늘 이런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는 두 당일군.

어느 길가

계속 내리는 비.

술취한 사람모양 달려오던 기사장의 차가 신작로에서 벗어나며 드디어 진흙탕에 폭 빠지고만 다.

《젠장!》

박우필은 승용차의 가속답판을 콕콕 밟아도 차는 헛바퀴만 요란히 돈다.

신경이 곤두선 기사장, 더 힘껏 밟으니 그만에야 발동마저 톱 멎는다.

차에서 뛰어내리는 우필.

차앞대가리를 열어본다. 기름이 타는 연기가 콕 물려나온다.

《에. 뜨거워!》

난감해서 잠시 서있는 우필기사장.

이때 승용차 한대가 소리없이 우필의 차앞에 와선다. 돌아보니 뜻밖에도 책임비서차다.

차안에는 책임비서외에 최관배로인디아 탔다.

얼른 얼굴을 돌리는 우필기사장.

《빠졌나?》

최아바이가 뒤문을 열고 내려서 빠진 차를 본다.

《응? 아니 여보게, 어째서 모든것을 제혼자 다 안다는 임자가 늘 다니는 길도 모르구 이렇게 빠졌나?》

《듣기싫수다!》

《허허...》

차석빈이 말없이 웃도리를 벗고 나온다. 운전수가 와야로프를 꺼내준다.

《인주오.》

석빈이 우필의 차에 로프를 걸려고 하자 우필이 그것을 받아쥐고 고리에 건다.

우필의 차를 끄는 책임비서차. 하나 진흙탕에 빠진 차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마치 인생의 진흙탕속에 허우적거리는 우필이를 방불케 한다.

최관배로인이 바지를 건어올리고 책임비서와 함께 우필의 차를 민다.

《자, 끝라구》

계속 쏟아지는 비.

물참봉이 되는 책임비서.

그의 얼굴에 줄줄이 흐르는 비.

차석빈이 어깨를 들어밀고 힘을 쓰자 드디어 빠진 뒤바퀴가 진탕에서 나온다.

온몸이 흙탕이 되는 최관배와 차석빈.

책임비서차안

젖은 머리를 쓸어올리는 차석빈.

후시창으로 우필의 차를 보던 최로인.

《에이, 그만하면 진탕에 빠진 차가 쉽게 나온 셈이야.》

《그까짓 자동차야 건지기 힘들겠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가 힘들지요.》

책임비서의 의미심장한 소리에 최관배로인은 고개를 끄덕거린다.

《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 로인의 이 말이 지금 차석빈의 가슴을 울렸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기는 힘들지 않고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러나 사상병이든 인간을 고친다는것은 말처럼 험하지 않는것이다.

하기에 당에서는 당일군을 가리켜 정치적생명의 기사라고 하지 않았는가!

묵묵히 차창을 내다보는 차석빈의 사색은 절로 깊어져간다.

그날밤

파란 하늘에 별무리.

이미 불이 꺼진 군당청사의 어느 한 사무실만은 유독 불빛이 꺼질줄 모른다.

자기 방에서 홀로 깊은 상념에 잠겨있는 책임비서.

박우필을 생각할수록 친구를 저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둔 자신이 민망하기 그지없다.

손끝이 가까울수록 품은 더 들여야 하지 않는가!

기사장의 집

가족들은 이미 잠든지 오래고...

옷방 침대우에서 혼자 모대기는 박우필기사장.

아직도 귀전에는 차석빈의 추상같은 그 목소리가 떠나지 않는다.

이밤 그는 어째서 잠못드는것인가?

이때 밤공기를 울리며 들려오는 초인종소리.

《찌르릉-》

무심히 일어나서 문을 여는 박우필.

그러자 짹짹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기사장.

문앞에는 뜻밖에도 최관배로인이 서있다.

《아니, 아바이가?!》

《왜 밤토끼처럼 놀라나? 내가 뭐, 못올델 왔는가?》

최로인은 우필을 밀어제끼더니 방안으로 힘하니 들어간다.

우필의 잠자리를 보는 최관배.

《음- 비판한 사람은 뜬눈으로 새우는데 비판받은 사람은 잠을 자구있구만?》

힐끗 쳐다보는 로인.

박우필이 맞았지 않게 본다.

《허참, 그래 어떻게 오셨소?》

《임자한테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아니, 난 듣고싶지 않습니다.》

《영?!》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찾던 로인이 그 소리에 손을 멈추고 우필을 치며본다. 그러나 애써 속을 늦추지는 최관배.

《임자 오늘 책임비서한테서 욕을 좀 먹었더구만? 그 사람이 제친구를 비판해놓고는 온종일 속이 언짢아하더군.》

친구라는 소리에 우필이가 다시 불끈한다.

《그가 내 친구라구요? 흥, 나한테 그런 친구없수다!》

그 말에 더없이 아연해지는 최관배로인.

《뭐, 뭐라구? 자네, 그게 진정한가? 영?》

《난 한입으로 두소리 안하웨다!》

그것은 우필의 공연한 엇드리질.

《그렇다?》

최로인의 처진 두팔이 경련을 일으키듯 푸들푸들 떨린다.

노기가 한가득 어린 로인의 두눈.

술뚜껑같은 손을 움켜쥐는 최관배.

드디어 떡메같은 로인의 주먹이 눈에 불이 번쩍나게 박우필의 뺨을 보기좋게 친다.

《에익, 고현녀석같으니라구. 이 배은망덕한놈!》

《아바이!》

참말로. 대노한 로인의 기상에 우필은 어쩔바를 모른다.

《어젠 책임비서를 걸구 날 내쫓더니 오늘은 또 뭐라구?》

《.....》

《책임비서가 어떤 어른이라구! 사람금새로 치면 그 량반은 금값이구 자네 쇠격지밖에 안돼! 그대두 전쟁판에서 사킨 전우라구 오늘까지 버리지않구 사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뭐, 그런 친구나한테 없다구?》

《그 말은 내 실수했수다.》

《난, 가겠네! 내 다시 이런 집엘 제발로 찾아다니면 최씨성을 갈겠어!》

문쪽으로 나가는 최로인.

그러자 박우필은 당황하여 로인의 팔을 잡는다.

《아니, 아바이!》

《놓게!》

《아, 내, 잘못했다지 않소!》

그 소리에 한결 성이 풀리는 최관배.

《허, 잘못됐다?》

《에익, 아바이두!》

별로 어색해하는 박우필.

《허허 참...》

대범하게 웃는 최관배로인.

최로인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그제사 뒤주머니에 찌르고 온 술한병을 내놓는다.

술병을 보고 의아해하는 우필.

《?...》

《자. 이리와 앉게. 오늘이 내 생일일세. 손녀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고보니 임자생각이 나더군. 이러니저러니 해두 우리 기사장이 아닌가.》

《아바이! 내 죄를 졌수다.》

박우필이 고개를 푹 떨군다.

《자, 한잔 붓게.》

우필이 책상우에 있던 물고뿌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안주감을 가져오려는데

《자, 여기 있네.》 하고 로인이 협낭에서 건명태를 꺼낸다.

《자 어서...》

로인의 독촉에 소주병을 들어 술을 붓는 박우필.

《이보게 우필이...내 오늘 책임비서한테서 자네 파거지사를 듣구 울었어. 아마 늙어지면 눈물이 헤퍼지는 모양이지.》

《아바이두 참...갑자기 옛날애긴...》

술을 쪽-들이마시는 최관배로인.

《에, 쓰다, 자네 아버지 왜놈공사판에서 돌에 깔리워 죽구, 자네 어민 혼자 살수 없어 자네를 버리구 어디론가 종시 떠나가버렸다면서?》

《예...》

《임자의 친어머니는 박우필이를 돌덩이처럼 버렸지만 우리 수령님은 자네 안아 먹여주시구, 입혀주시구, 대학교를 졸업시켜 오늘은 나라의 큰 간부로 내세워주셨어.》

《아바이...》

《헌데 자네는 제가 잘난것처럼 우쭐렁대거던! 영!》

그 소리에 박우필이 고개를 못쳐든다.

《자네 친구의 신세값은 잊지 않으면서두 제 운명을 건져주구, 인생을 키워준 당의 은덕은 당초에 잊었거던! 정말 의리가 없는 녀석이 뻘어!》

《.....》

《책임비선 이게 가슴아파서 그러는게야!》

그제사 눈가에 후회의 눈물이 어리는 박우필.

《아바이, 내 진짜 배은망덕했수다.》

목이 메는 박우필.

《허허허, 알면 뻘네 뻘어!》

최관배로인 빈잔에 한가득 술을 부어준다.

《자! 한잔 들라구!...》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는 박우필.

그만 높이 쳐들고 다니던 고개를 이제야 푹 속인다.

흐뭇이 쳐다보는 최관배로인.

다음날

발전소 구내길로 태성목이가 최관백의 팔을 부축해가지고 급히 청사쪽으로 간다.

《자, 빨리요!》

《에-숨차다, 그래 왜 찾는다던가?》

최아바이가 못내 궁금해서 묻는다.

《군당확대집행위원회에 참가하래요.》

《뭘, 군당확대집행위원회에?》
로인은 리해가 안되는듯... .
《예!》
태성목은 무작정 끌다싶이 최로인을 데리고 열
직장쪽으로 간다.

종합배전실

군당집행위원들. 공장당일군들, 세 포비서들이
다 모였다.
그 한가운데 앉아있는 최관배로인,
그의 귀전에 들려오는 군당책임비서의 목소리.
《동무들 최관배동지는 근 40 여년을 일편단심
혁명에 한몸 바쳐온 우리 당의 귀중한 혁명가입
니다.》
최관배는 꿈결인듯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처
들고 바라본다.
《해방직후 새 조국 건설시기부터 조국해방전쟁
의 그 준엄한 시기를 거쳐 전후 그 어려운 나날
에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
쳐 왔으며 오늘 사회주의건설시기까지 단 하루의
드림도 없이 잘 싸워온 훌륭한 로당원입니다.》
최관배의 깊은 눈화에 점차 이슬이 피어오른
다.

책임비서 판배로인 곁으로 오더니 그의 손을
꽉 쥐어준다.
《최관배아버님!》
《예!》
《아버님, 군당집행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최관배동지를 발전소 열직장
고문으로 사업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뭘 내가?... 내가 고문이라구요?!》
《예! 아버님, 젊은 사람들을 잘 키워주십시오.》
그러자 소조원이며 태성목, 기사장 등 로인을
축하해준다.

눈물이 글썽한 소조원, 《할아버님!》
태성목이 다가와 로인의 팔을 친다.
《축하합니다.》
우필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어린 목소리로 《아
버님, 축하합니다.》 하고 기뻐해준다.
최로인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억이 막혀 서있
더니 드디어 흐느껴운다.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삼키며 최관배로인을 바
라보는 사람들.
여기에 음악이 흐른다.
음악을 타고 흘러가는 화면우에 최관배가 태성
목이며 소조원이며 청년들을 인도해가지고 발전
소구내를 돌아본다.
그들에게 발전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최관배
로인.
몽계몽계 피어오르는 발전소 굴뚝의 흰 연기.

점화로시험장

대형보이라들이 지심을 울리며 핑음을 낸다.
보이라옆에 붙어서 신축한 계단식점화로에서
세찬 불길의 이글거린다.

시험이 시작되기를 긴장해서 기다리는 군당책
임비서며 기술자들.
때마침 조작공 복철이가 어디 갔다 뛰어오며
소리친다.
《방금 떠났대요!》
밀도 끌도 없이 웨치는 애젊은 조작공청년.
기사장을 발견한 조작공은 기뻐서 알린다.
《기사장동지! 탄광에서 방금 떠났답니다.》
《탄광에서?》
《예!》
책임비서가 갑자기 가슴을 두근거리며 다우쳐
묻는다.
《뭘가 떠났대?》
그제서야 책임비서를 알아본 조작공은 꾸벅 인
사하더니
《2 천톤을 실은 첫차가 여기로 떠났다고 방금
전화가 왔답니다.》 한다.
《영! 2 천톤을 실은 첫차가 여기로 떠났다고?》
믿어지지 않은듯 되물더니 차석빈은 《예.》 하
는 청년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는다.
아, 이 소식을 차석빈은 얼마나 고대했는가!
꿈속에서도 듣고싶어하던 그 소식...

운탄장

디젤차가 이끄는 수십차량의 석탄방통이 운탄
장구내로 천천히 들어온다.
디젤차 란간우에서 비대한 몸집의 탄광지배인
과 원철이며 영호, 《팡크병》이 손을 흔든다.
마치 개선장군마냥 가슴을 쭉 펴고 자기들을
환영나온 발전소종업원들에게 만족한 미소를 보
낸다.
기동선전대의 환영곡속에 차에서 내리는 통산
탄광 탄부들.
꽃다발을 안기는 처녀들.
싱글벙글 웃는 계대군인탄부들.
탄광지배인이 차석빈을 발견하고 사람들속에서
헤집고 나온다.
《책임비서동무!》
《지배인동무 정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지배인동무!》
당비서가 악수를 정한다.
기사장이 지배인앞으로 와서 그의 손을 뜨겁게
쥐어준다.
《지배인동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사장동무...》
그만 탄광지배인은 목이 콧 메여 더 말을 못하
다.
장대한 사나이가 돌아서서 안경을 들고 눈물을
흘린다.
차석빈의 눈가에도 이슬이 어린다.
행복의 미소를 짓는 차석빈.
《허허... 지배인동무는 언젠가 피로울때 우는건
속물이고 기쁠때 우는 사람만이 진짜 사내라구
하더니, 오늘 한번 실컷 울어보시오.》

그 말에 박우필은 군당집행위원회때가 생각나는지 양심에 가책이 되어 진심의 사과를 한다.

《지배인동무, 날 옥해주.》

《아니요, 앞으로 제발 때리지나 마슈!》

《하! 하! 하!...》

유쾌하게 웃는 차석빈.

이때 태성목이가 달려오더니 눈길로 안타까이 누구인가를 찾는다.

《책임비서동지!》

차석빈이가 먼저 보고

《왜 그러오?》 한다.

태성목은 책임비서를 보자 목멘 소리로 부르짖는다.

《책임비서동지! <점화로>가 <점화로>가!》

순간 불안에 싸이는 차석빈.

《<점화로>가 어떻게 됐단말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소리에 우필의 두눈이 기쁨에 번뜩인다.

《아니, 불길히 넘어간단말이요?》

《예, 걸리기는커녕. 훨훨 날아서 넘어갑니다!》

그제서야 성공을 감수한 차석빈이가 확인하려는듯

《아니, 그럼 <점화로>가 성공했단말이요?》 하고 웨친다.

박우필이 두눈을 습벅이면서 대답한다.

《예! 책임비서동무, 이런걸 두고 성공이라고 하지요.》

《그럼, 성공이란말이지!》

뜨겁게 바라보는 책임비서.

《태동무, 정말 큰일을 했소!》

《책임비서동지!》

눈물에 목메는 태성목.

《큰일을 했단말이요!》

책임비서는 태성목이를 두팔 벌려 번쩍 안아올리더니 언제인가 태성목이가 그랬던것처럼 빙빙 돌린다.

이러는 그들을 바라보며 웃는 사람들.

차석빈은 태성목이를 내려놓더니 군중들을 향해서 웨친다.

《여러분! 룡산의 탄부들은 2 천톤을 증산하고 발전소 로동계급이 점화로를 성공시켰습니다!》

《만세...》

군중속에 일어나는 환호의 물결.

한 로동자가 웨친다.

《여러분! 열직장으로 갑시다!》

그러자 터진 물동처럼 열직장으로 달려가는 군중의 무리.

끝없이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

그속에서 처음으로 가장 행복하게, 가장 만족하게 웃고있는 우리의 주인공 차석빈의 모습.

여기에 마음의 소리가 절절히 울린다.

《이제는 당에서 한시를 놓게 됐구나. 당에

서...》

그 마음을 담아서인가 노래가 울린다.

세월이 가도 하나의 마음 향도의 별 우러려 대를 이어도 하나의 마음 당과 함께 가고가리라

아, 변함있으랴 당에 대한 전사의 의리

노래와 함께 흐르는 화면.

운탄장을 굽어보며 만족해하는 군당책임비서와 발전소 기사장.

당의 사랑속에 새 인간으로 탄생한듯 박우필의 마음은 마냥 푸른 하늘과 같이 맑고 깨끗하다.

당에 대한 충성으로 하여 두사람의 우정은 더욱 뜨겁고 더욱 굳어졌거니 혁명을 위한 한길에서 다진 전사의 의리는 영원하리라!

흐뭇한 마음으로 탄광 분교를 찾는 책임비서.

여기서 딸의 모습을 보는 차석빈의 마음 또 얼마나 대견해지는것인가!

원철이와 수영이를 시대의 기수로 내세우고 그들이 시대의임무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가르쳐준 그 노력이 오늘은 고귀한 열매를 맺었었다.

지금 책임비서의 모습에서 탄광지배인이며 탄부들은 당일군의 이신작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심장으로 체득한다.

남을 가르칠 때 말보다 행동으로 인도하라-그래야 군중은 지휘관을 믿고 따른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공 차석빈의 생활의 교훈이다.

완공된 《창광원》식 목욕탕을 돌아보는 책임비서는 당의 은덕을 또 한번 가슴뿌듯이 느낀다.

어째서 이 순간에 차석빈은 고아로서 철다리밑에서 거적때기를 쓰고 긴긴 겨울밤을 울며 새우던일이며, 어머니마저 잃고 헤매던 저 박우필의 운명을 새삼스레 더듬어보는것인가!

어째서 이 순간에 차석빈은 고아로서 철다리밑에서 거적때기를 쓰고 긴긴 겨울밤을 울며 새우던일이며, 어머니마저 잃고 헤매던 저 박우필의 운명을 새삼스레 더듬어보는것인가!

발전소의 전경

주체공업의 대용자-대형발전소의 거창한 모습. 천연술처럼 펼쳐진 고압변대들.

그속으로 우리의 주인공들이 걸어간다.

우리의 오랜 로동계급의 대표자 최관배아바이며, 새세대의 대표자 3 대혁명의 전위 소조원처녀며, 우리의 중년의 혁명가들, 박우필이며 태성목이들...

그 한가운데 오직 당을 위한 길에서 곧바른 길만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군당책임비서 차석빈이가 걸고있다.

사람들이여 당을 귀중히 여기라! 당은 그대들의 진정한 어머니,

혈육이나 친척, 친우는 기쁜 날에만 찾게 되지만 언제나 피로울 때는 먼저 찾는것이 당이거니-

이것이 인생의 참된 교훈이다.

가슴마다 불을 안고

정영호

따스한 햇빛으로
아지랑이 피어나는 봄
이 땅에 봄은 와도
이해의 이 봄을 안은
나의 가슴엔 불이 이는 봄

걱정을 누를길 없어
증오에 찬 내 가슴에도
프락토르 몰아가는 내 손길에도
불, 불이 이노라
거세찬 동음 세차게 울리노라

시시각각으로
검은 구름이 밀려오는
저 남녘하늘을 바라보며
틀어쥐는 주먹이 돌처럼 굳어져라

50년대
처절한 세월의 그 나날에도
미제원췌놈들은 수백수천만발의 폭탄을
다름아닌 이 땅에 쏟아부었다
피 묻은 성조기를 들고 기여들어
평화로운 삶의 기쁨을
피 묻은 군화로 짓이겨버렸다

어찌 잊으랴
고사리같은 손을 나불거리던
우리의 어린것들 머리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며
너털웃음치던 놈들의 그 살기찬 웃음을,
우리의 부모형제들을
찢어죽이고 쏘아죽이며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고
히히덕거리던 야수들을...

쓰디쓴 패배로 쫓겨갔던 그놈들이
또다시 대포와 탱크, 핵무기를 들고
이 땅을 삼키려 날뛰거니
런결차에 산같은 두엄을 싣고
나는 별로 달린다
분격에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이 가슴에 서리발 증오를 안고

온 농장, 온 작업반 분조원
모두가 한마음
프락토르 몰아가는 운전수들은
그대로 땅크병이 되어라
거리대를 틀어쥔 농장원들은
그대로 육박전의 용사가 되어라

그렇다 그 마음으로
땅을 다루며
우리는 눈앞에 그려본다
또다시 기여드는 미제승냥이놈들
아우성치며 쓰러지는 몰골을

우리의 바다와 하늘,
이 땅을 한치라도 넘어선다면
가차없이 미제, 네놈들에게
천만배의 보복을 안겨주리니
시시각각으로 포연을 몰아오는
《팀 스피리트 83》 합동군사연습소동
전두환을 부추기며 꿈꾸는 야망을 두고
조선의 이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그 분노를 가슴에 채우고
원췌의 가슴팍에 복수탄을 안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씨앗을 뿌리고
미제의 등허리에 보습날을 박는 그 마음으로
프락토르를 몰아가는 이 땅

걱정을 누를길 없어
증오에 찬 가슴에도
프락토르 몰아가는 내 눈길에도
원췌격멸의 서리발이 일어
거세찬 동음을 세차게 울리나니

아! 인민의 기쁨을 터치며
행복을 터치며
일만가지 꽃들이
한껏 피어나는 봄
이 강산에 넘치는
환희의 봄빛을
정녕 한점도 가리우지 못하리라!
흐리우지 못하리라!
원췌놈들 그 어떤 검은 구름도...

수호자들

김명익

포화속에 세해째 단풍계절이 왔다.

여기 마식령산중의 골안에도 울긋불긋 단풍이 불타올라 마치 노을을 필필이 두르고 앉은듯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다.

포연이 흘러간 절벽우에선 불꽃처럼 타던 단풍이 잎잎이 떨어져서는 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감도는 파아란 내물에 실려 어데론가 흘러갔다. 그것은 마치도 두고온 정든곳으로 승리한 전선의 소식을 싣고 가는듯싶어 사뭇 유정한 정회를 불러내었다.

중대장 오상호는 골안의 이채로운 풍경에 심취되어 이윽히 중대부 천막앞에 서있었다.

이때 골안의 정적을 흐트리며 어디선가 둔중한 포성이 울려왔다. 오상호는 눈길을 들었다. 동남권으로 우줄우줄 파도쳐간 마식령산줄기의 험준한 산발너머로 그의 시선은 옮겨갔다. 거기서 새작전지구였다.

이무렵 정세변화의 화살표는 전선동부지역으로 쏠리고있었다. 미제는 모험적인 《신공세》를 획책하는 한편 동서해안에 대한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기도하며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고있었다.

제 2 제대에서 독립임무를 수행하던 오상호네 중대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선동부의 가장 주요한 전술적요충지대의 하나인 평강지대로 반타격집단을 형성하고있는 사단주력에 합류하여 신속히 1 계선으로 진출해야 했다. 수백리의 강행군과 무명고지탈환전투로 하여 중대의 이번 진군로는 결코 수월치 않았다.

오상호는 전례없이 온몸에 긴장이 흐르는것을 느끼며 중대부 천막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도작업에 달라붙었다.

이때 중대의 차후 행동방향을 받으려 련대에 갔던 연락병이 들어섰다. 연락병의 뒤로는 허우대가 큰 한 낮선 병사가 따라들어 왔다. 연락병은 곧 상급참모부에서 하달한 전투진입명령서를 오상호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련대대렬과로부터 중대에 새로 전투인원이 편입된다는 통지서를 전하는것이였다.

이윽고 연락병이 나가고 편입되어온 병사만이 남았다. 보매 지긋한 나이의 병사였다. 후릿한 체구, 자주 습벽이는 서글서글한 두눈은 어딘가 모

르게 자못 결곡한 기풍을 엿보게 했으나 그외에는 별로 인상적인것이 없는 평범한 병사였다.

845 고지방어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후송되어 장기치료를 받고 나오는통에 적의 중심깊이에 들어가 활약하고있는 소속련대와 리탈되어 이 부대에 편입된다는 경위를 듣고났을 때 오상호는 잠시 굳어진 표정을 하고있었다. 눈앞에 중대는 한 긴급임무를 받은 중대에 후방병원에 장기치료를 받고온 이름 석자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인원을 받는다는것은 지휘관으로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것이다. 뿐더러 이런 경우에 편입대원을 배속 받는다는것은 한편 반갑다면 그런대로 반가운 일이라쳐도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또 그렇지 못한 일이기도 한것이여서 결국 그대기쁜 일은 못된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상호는 자기의 그런 생각을 밀어던졌다. 한것은 자기의 그러한 리해가 어딘가 편협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병사의 첫 인상이 오상호에게 대뜸 믿어 의심치 않을 신뢰의 감정을 안겨준것도 사실이였다. 하여 중대장 오상호는 진심에서의 따뜻한 마음으로 편입대원을 반가이 맞이할수 있었다.

《우리 중대에 편입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병사생활을 하기가 험치 않은 몸이겠는데 치료를 받기 바쁘게 또 싸움터로 나왔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때늦은 감이 드는 젊은 중대장의 첫 인사말이였으나 그속에는 따뜻한 진정이 풍기고있었다. 중대장의 사려깊은 말에 로병사는 머리를 깊이 수그리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간단히 인사가 끝나자 오상호는 정색을 하며 지금 퇴원중은 가지고 있는가고 물었다.

《퇴원중은...》 병사는 한마디 더듬다가 초조히 말을 이었다.

《정황이 달라지는 바람에...후날 부대에 보내주기로 했더랬습니다.》하고 뒤말을 마무리는 그의 낮빛은 느닷없이 벌거우리하게 달아오르는것이였다.

오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상처는 완쾌되었겠지요?》 하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중대장동지.》

초연히 고개를 떨구고 엉거주춤 서있던 병사의

대답은 뜻밖이리만치 밝고 활기에 넘쳤다.

오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막기둥에 걸어놓은 전투가방을 열고 용지 한장을 꺼냈다.

《여기에 간단히 경력을 쓰시오.》

커다란 두손을 모두어쥐고 자못 초조한 눈빛으로 오상호를 바라보던 병사는 얼른 용지를 받아 들었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는 감출수 없는 그 어떤 기쁨의 물결이 일렁이었다. 한것은 새 중대의 대렬명부에 정식 전투성원으로 들어간다는것을 의미했기때문이었다. 그는 탄약상자우에 용지를 펴놓고 중대장이 요구하는것들을 적어내려갔다.

이름...박성국

년령...36 살

입대년월일...1950년 6월 28일

군사칭호...상등병

전소속... X사 X련대 1대대 2중대... 3보총수
.....

그리고 여백에다 야전병원에서 장기치료후 본 중대에 편입된다는 사유를 첨부했다.

오상호는 박성국병사에게서 경력서를 받아쥐며 지금 당장 전투에 참가할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 말을 기다리거나한듯 박성국이 군모를 움켜쥐며 활달하게 대답했다.

《참가하다뿐이겠습니까. 그새 싸움을 못해서 울화증에 다 걸리는줄 알았는데요...》

오상호는 전투의욕에 충만된 박성국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오상호는 금시라도 물에 잠그면 흙물이 뿌영게 우러날듯한 농민출신병사의 썩살이 박이고 나무 등걸처럼 돼버린 손을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 손을 보느라니 눈앞에 갈아엎은 땅을 보는것 같았고 오곡이 물결치는 풍요한 벌이 안겨왔다.

두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곧장 이리로 퇴원해오는 길이겠군요. 그러니 부대소식도 전혀 모르고... 자기 부대와 떨어지는것처럼 허전한 일은 없지요.》

중대장의 이 말엔 새로 받은 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류다른 은정이 깃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났을 때 박성국의 얼굴엔 갑자기 당황한 빛이 스쳐지나갔다.

그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허둥지둥 눈길을 떨구며 입을 열었다.

《사실은 고향엘 들려서 집에 갔다가...》

《집이라나요? 그럼 가서 묵고오는 길인가요?》

《...예》

《그래도 상관의 해당 명령절차는 받고 갔던거겠지요?》

오상호는 내심 그러기를 바랐다.

《아닙니다...》

오상호는 그만 실망하고말았다. 중대한 전투임무를 앞에 두고 파악되지 않은 대원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담보되어야 하는가?

한 병사가 고향에 갔던것을 좋게만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국은 너무도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다.

오상호는 두손으로 얼굴을 아프도록 쓸어 내리며 락엽이 홀날리는 천막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상호는 병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고향에 가야 했던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라도 있었던게지요?》 하고 중대장은 다시금 물었다.

그랬으나 그렇지도 않았다. 두사람사이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고향엔 누가 있습니까?》

쫄전과는 달리 더욱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후에 다시 묻는 중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박성국은 웬일인지 점점 더 고개를 떨구며 《처와 일곱살잡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나직이 대답하였다.

오상호의 심중은 복잡하였다.

(모를 소리다... 자기 부대를 빨리 찾아가지 못하는것만 하여도 가슴에 불이 이는 일일텐데 썬평 좋게도 고향까지 다녀오다니...)

오상호는 앉은자리에서 쫄체로 움직일줄 몰랐다. 군모에 눌러워 반듯하게 넘어간 짧고 검은 머리, 관꼴이 두드러지고 하관의 선이 뚜렷한 얼굴.

...눈꼬리가 약간 위로 쳐들린 두눈에서는 이따금 예리한 빛을 내쏘는 검은 동자가 영민하게 움직이군했다.

이윽하여 오상호는 서둘러 담화를 끝내기로 하였다. 부상치료를 받고 새로 편입되어온 전투원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는것 같아서였다.

《앞으로 중대는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나는 성국동무가 그 누구보다 잘 싸워주길 바랍니다.》

오상호는 진심에서의 기대를 담아 박성국에게 이 말을 하였다.

전투능력과 근무활동을 일정하게 료해한후 본대들가운데서 역량구성이 제일 좋은데 배속시킬 생각에서였다. 바라건대 편입병사로 하여 중대가 소유하고있는 전투력을 티끌만치라도 손상시킬 생각은 없었다.

오상호가 중대장으로 임명된 이래 한해동안 중대의 전투력은 비상히 높아지고 련대에서도 손꼽히는 강철의 중대로 지금 한창 《전성기》에 있었다. 그래 그런지는 몰라도 련대장은 일상용어처럼 오상호중대를 자주 입에 올리곤하였으며 더없이 영예롭고 중대한 임무를 맡기곤했던것이다. 그랬다. 오상호중대의 앞에는 언제나 위훈의 기발이 날렸다.

박성국이 나간지도 이속했으나 오상호는 여전히 한자리에 오래도록 앉아있었다. 뜻밖의 편입병사로 하여 그에게는 생각키우는것이 많았다. 그는 지금 박성국병사의 모든 행동을 리해하려고 했다. 허나 피흘리는 전쟁마당에서 셈평 좋게 고향에까지 갔던 일만은 가슴에서 내려가질 않았다.

사실 이 시각에도 전선에서 피흘리며 싸우는 전사들치고 그 누가 자기의 부모처자와 고향을 그리지 않을 사람이 있으며 만나고 싶어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랴. 하지만 한목숨 걸고 조국을 지켜야 하거늘 조국과 개인, 전쟁과 희생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옳을것이다.

필력필력... 산협을 불어내리는 서늘한 바람이 간단없이 천막에 불어쳤다.

불현듯 오상호는 전쟁전 평화시절에 서로의 기약도 없이 헤어져버린 급기야 단념해버려야 했던 가슴아픈 추억이 이 시각 되살아오름을 어찌지 못했다.

그것은 입대하기 두해전 일이었다.

군자위대원이었던 오상호는 읍변전소를 파괴하려고 기여든 반동놈들과 결투를 하다 다리에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최정선이라는 한 처녀준의의 각별한 치료를 받게되었다. 그것이 끊을수 없는 인연의 다리로 되었는지 그후 두사람은 불같은 련정속에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였었다.

당시 해방된 조국의 정세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날로 긴장되어갔다. 적들은 38 선부근에서 무모한 불장난을 일삼으며 전쟁의 열을 올리고있었다.

그 시각 오상호도 용약 군복을 입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신체검사결과와는 그의 결심을 물거품처럼 가라앉혀버렸다.

다리에 입은 총상이 치명적인 결과를 빚어낼줄이야...

일이 여의찮게 되자 오상호는 랑패감을 무릅쓰고 군사동원부장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동원부장이 순응할리 없었다. 했건만 오상호의 요구는 강경했다. 련사흘동안의 떼질에 마침내 손을 든 동

원부장은 앞으로 입대후 신체상건강을 담보할수 있다는 병원측의 의견서만 받아오면 고려해보겠다는 한가닥의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때라 오상호는 무릎을 철썩 내리쳤다. 그는 직방 최정선을 찾아갔다. 정선으로 말하면 오상호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준 처녀였고 더우기 가깝게는 이 세상 둘도 없는 애인이었다.

그런즉 《가렬한》 입대전투는 이제 와서 성공적으로 결속된셈이었다. 하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정선은 오상호의 《부정적》요구를 별로 힘들이지 않고 거절해버렸다.

《그런 다리로 군무활동과 같은 고도의 육체적 부담을 이겨낸다는건 너무도 눈물겨운 일이에요.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우리가 일하고있는거예요. 의학적소견을 놓고보면 상호동문 지금 입대가 아니라 료양을 가야 될 대상이란걸 알으셔야해요.》

오상호는 금시 억장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오상호는 주저앉을수가 없었다.

피끓는 청춘이 그것을 허락치 않았다.

그는 끝내 애인에게서 눈물을 보고야말았다. 정선을 설복하였던것이다.

다음날 최정선은 병원측의 의견서를 넣은 봉서하나를 오상호에게 주었다. 오상호는 눈물이 나도록 정선이가 고마왔다.

군사동원부를 향해 달리는 오상호의 기쁨은 겹잡을수 없었다.

《이래서 사랑은 불가항력의 힘을 낳는다는 말이있는가부다. 정선이! 정말 고맙소...》

한달음에 군사동원부로 달려간 오상호는 동원부장에게 보란듯이 봉서를 내놓았다. 그리고는 별썽별썽 웃으며 《이제 입대하면 인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던졌다.

하나 다음 순간이었다. 그는 맑은 하늘에서 벼락을 맞은듯 아연해지고말았다. 봉서를 뜯어본 군사동원부장은 쓰거운듯 혀를 내두른다.

봉서안의 의견서에는 정선이 동원부장에게 부디 오상호를 한번 더 잘 설복하여달라는것과 지금형편으로 보아 입대는 불가능하며 그 대신 자기가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여 한 반년후에 다시 한번 가능성을 얻어보겠다는 사실 그대로의 철저한 《의견서》가 적혀있었던것이다.

모든것은 여지없이 실패하고말았다.

오상호가 그토록 열망한 길로 갈수 있었던 이 세상 단 하나, 둘도 아닌 한가닥 《운명의 외나무다리》에서 사랑하는 처녀가 천길나락으로 가차없이 밀어던진것이다.

(아, 사랑이란 이처럼 가혹할수도 있는가?...)

오상호는. 가슴꺼지는 탄식의 긴숨을 내쉬었다.
터벅터벅... 변창한 읍거리를 지나 홀로 철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 그의 가슴은 너무나도 쓰라
렸다.

봉두친 철다리를 건느려다 말고 망연히 앞을
바라보는데 건너편 철교끝에 기다리고있었던 모
양인지 정선이가 서있었다. 순간 오상호의 눈에
서는 불씨가 날렸다.

푸른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내리는 아스라
한 철교우에서 두사람은 마주섰다. 얼마전 오상
호가 군병원에서 태원하여 정선이와 나란히 걸으
며 흠뻑이 젖은 철다리우에는 철색무지개가 걸려있었
다. 그러나 이 시각 그들사이엔 교각을 치는 강
물소리만 높았다.

먼저 입을 연것은 정선이쪽이었다.

《...리해하세요. 상호동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는 처녀
의 애원에 찬 눈가엔 자기는 오상호를 그토록 진
심으로 사랑하며 그만큼 자기로서도 가슴속 상처
가 심하다는것을 말하는 간절한 빛이 어려있었
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거짓 의견서를 써
줄수는 없어요. 우리는 조국앞에 인간의 운명을
책임진 의사이니깐...》

방울방울 이슬로 이어지는 정선의 말은 또다시
동강났다. 그는 그만 흑 하고 흐느끼며 얼굴을
싸쥐고 돌아섰다.

《걸어치우시오. 인간의 운명이란 무엇이요. 조
국의 운명에 위협이 박두했는데 그래 한 인간의
운명이 다 무어란말이요. 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소. 바로 우리들이 조국을 위하여 청춘
도, 사랑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야 할 이때 자
기의 책임을 내걸고 이 길을 막는것이 그래 동무
의 량심이란말이요?》 오상호의 목소리는 준엄했
다.

최정선은 오래도록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로
써는 오상호의 가슴속에 웅어리진 그 뼈아픈 상
처를 씻어내릴수가 없었다.

《사랑한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을 리해
못한다는것은 슬픈 일이요...

그럼 잘 가시오.》

《.....》

췌아-처절췌

아찔하게 내려다보이는 철교의 교각아래로는
사품치는 검푸른 강물이 흰 거품을 토하며 세차
게 흘러내렸다.

두사람은 끝내 헤어지는가? ... 철다리너머 푸

른 공간속으로 두사람은 점점 멀어져갔다.

오상호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철길이 굽이
돌아간 산기슭으로 사라졌다.

정선은 강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그때까지도
움직일줄 모르고 다리한가운데 하염없이 서있었
다.

그후 오상호는 끝내 입대를 실현하고야말았다.

군복을 입은후 그는 그때 자기가 정선에게 너무
했던것 같은 자책감도 없지 않아 기회를 타서 두
번이나 펜을 들었었다. (정선이의 그러한 자세를
그렇게 준절히 꾸짖을수 없지 않는가? 그도 의사
의 책임에서...?) 이와 함께 떠오르는 정선이의
기대에 찬 이슬머금은 눈... 그러나 준엄한 전투
를 앞 둔 그는 이 모든것을 단념하고 전선으로
나왔었다. 사랑을 론하기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가련한 년대였었다...

오상호는 박성국전사로 하여 가슴속에 갈마드
는 옛추억을 지워버리려는듯 자욱히 담배연기를
피워올렸다.

이날밤. 박성국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을바
람에 필력이는 천막우로는 푸떡푸떡 락엽이 떨어
져내렸다.

접동 접동... 어디선가 소쩍새의 처량한 울음소
리가 들려왔다.

문득 그의 눈앞으로는 야전병원을 떠나 고향에
갔던 어제밤의 일이 못건디게 떠올랐다. ...전선
은 멀어 지고 고향은 가까와오고있었다.

밤, 차고 푸릿한 달빛이 깔린 한적한 행길로
박성국은 걸고있었다.

지치고 피로한, 떠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
는 걸음으로 그는 고향을 향해 걸었다.

푹 눌러쓴 군모. 물날은 군복, 배가 흘쭉한 배
낭을 둘러멘 그의 오른쪽어깨에는 보병총이 메워
져있어야 할것이였으나 텅 비어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불타버린 산야를 휩쓸어가는
북풍에 길섹의 락엽이 밤하늘 어데론가 우수수
흘날려갔다.

그로부터 얼마를 걷지 않아서 나지막한 언덕이
나지고 언덕을 넘어서자 떠염떠염 들어앉은 그
리 크지 않은 촌락이 어설프게 바라보였다.

일순 침울하던 박성국의 얼굴에 한줄금 밝은
빛이 떠올랐다. 두고갔던 향촌의 정경이 짜릿하
게 눈앞으로 다가왔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의 낮빛은 다시 어두워졌다.

...박성국은 845 고지방어전투때 최후의 반돌격
에로 이전하다가 적들의 류산탄에 어깨와 옆구리
에 중상을 입고 8 월초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었
다 장기간의 치료에도 워낙 심한 상처는 쉬 회복

될 줄 몰랐다. 그는 끝내 전투능력상실이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았다.

《...이 전쟁에서 입은 성국동무의 상처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어요. 것처럼 용감하게 잘 싸워온 성국동무의 어깨우에서 총을 내리워야 하는 저희들 심정인들 오죽하겠어요... 성국동무! 이해하여주세요. 그럼 부디 몸성히... 전승의 날 꼭 찾아뵙겠어요!》

이것은 그의 전상자감정서를 쓴 담당녀준의가 병원을 떠나는 날 편민에 겨워 남겼던 마지막 작별의 말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이 길을 퇴역병사가 되어 걷고있었다.

고향의 낮익은 사람을 알아본 모양 보름달이 반기듯 따라오며 굽이굽이 돌아간 소로길우에 정국의 어깨우에 푸른빛을 고즈넉이 뿌려주었다.

불시에 두해전 이 길을 걸던 사무치는 감회가 물결쳐왔다.

첫 군복을 입고 고향을 떠나던 날이였다. 안해는 공화국의 공민으로 조국수호의 성스런 싸움터로 출전하는 병사의 안해된 것이 그리도 기뻐서 푸른 군복을 입은 성국의 가슴에 오래도록 얼굴을 묻고 흐느껴울었다. 성국은 하직해야 하는 고향땅을 마지막으로 한발자국이라도 더 걷고 싶어 군에서 낸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30 리 상거한 정거장으로 향했다 안해도 기어코 먼길을 따라나섰다. 그러나 성국은 동구박 언덕에서 안해를 돌려세웠다. 성국이와 안해는 마지막으로 마주섰다.

《승리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후방은 녀려 마세요. 꼭 고향을 지킨 자랑을 안고 당신을 기쁘게 만나겠어요...》

안해는 성국의 어깨에 볼을 비비며 가늘게 어깨를 떨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시는 날엔 온 마을이 다 보게 소문을 내며 오세요.

미국놈을 이겼으니말이에요. 그래야 옥돌이도 마중가지요.》

다함없는 믿음속에 석별의 정을 머금으며 안해는 말했다. 성국이라도 가슴속 깊은곳에서 우리나라 오는 소중한 약속을 안해에게 남겼다.

《내 이 전쟁에서 미국놈을 모조리 죽치구 장군님 찾아주신 우리 땅을 끝까지 지켜내기전엔 고향집 문턱을 넘어서지 않으리다.》

박성국은 안해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며 뜨겁게 말하였다. 그리고나서 군복주머니에서 무언가 소중한 썩것을 꺼내서 펼쳐들었다. 그것은 분여받은 앞내벌에서 걷어들인 벼종자였다.

《내 꼭 이기구 돌아와 이 씨앗을 앞내벌에 뿌

리겠소. 굳이 그날을 믿어주!》

성국은 귀여운 아들애를 고향의 푸른 하늘 높이 추켜올려주었다가 내리워 안해의 품에 맡기었다.

이윽고 그는 힘찬 걸음으로 전선으로 향하였다.

바로 그날의 그 길을 이 밤 박성국은 걷고있었다. 걸음마다 말 못할 그 어떤 죄의식과 서글픔이 칭칭 휘감겨도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집이 가까와질수록 고뇌의 착잡한 빛은 박성국의 얼굴에 점점 더 짙어갔다. 이윽하여 박성국은 징검다리를 건너 마을어귀에 들어섰다.

한쪽 큰 가지가 몽청 부러져나간 배나무가 달빛에 어설픈 그림자를 던지며 서있는 집앞에 성국은 섰다.

2 년만에 찾아오는 집이였다. 아늑한 안식의 보금자리와 젊은 안해와 귀여운 아들이 있는 정다운곳이였다. 그리고 마가울이면 흥부네 박만한 시누런 떡호박들이 지붕이 내려앉도록 기막히게 달리고 집오래에 올린 줄당콩넌출이 한여름 마당을 덮군하던 정든 초가이기도 하였다.

하나 소문도 없이 돌아오는 그를 이 밤 그 누가 달려나와 반기겠는가... 그는 묵묵히 마당가에 서있었다.

(이제 안해를 만나면 뭐라구 할가?)

몹시도 서운해할테지... 그러나 이해해줄거야.)

박성국은 한가닥 위안도 해보고 서글퍼지는 마음을 애써 달래어도 보며 토방앞으로 다가섰다. 웬일인지 그 다음엔 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는 할수없이 벗어취였던 물날은 군모를 토방우에 맥없이 놓으며 무겁게 허리를 꺾고앉았다. 어유등의 희미한 불빛이 한줄기 새어나오는 퇴지우엔 삽과 질통이 세워져있었다. 그리고 한켠벽에 기대어 세워놓은 패말이 보였다. 토지개혁때 분여받은 앞내벌의 굴죽같은 썸골논에 높이도 박아세웠던 지경패말이였다. 성국은 어린애를 안듯 두팔을 벌리며 달빛이 흘러내리는 패말을 조용히 얼쓸어내렸다.

부지중 찌릿한 감회가 삽시에 온몸을 휩쓰는 것이였다. 그것은 해방된 이듬해 5 월의 어느날 봄밤이었던가?...

구수한 흙냄새가 흐무지게 퍼져오르는 앞내벌 입김같은 밤안개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시내가 둔덕의 청초한 풀들에는 달빛을 머금은 무수한 밤이슬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그아래 물가의 실버들은 동백기름으로 비다듬은듯 합치르르한 가지가지를 휘영청 드리우고 조용히 흐느적이고있었다.

박성국이와 분임이 첫 살림을 시작하여 분여받

은 땅에 첫 씨앗을 뿌린 행복한 밤이었다. 그들은 별가에 깊이 박은 패말을 마주하고 이윽도록 서있었다.

《장군님께서 주신 우리 땅인데 한뼉 옥같이 잘 가꾸시다. 송곳 하나 박을 땅이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쓰라린 세월이 잊혀지질 않는구려.》하고 말하는 성국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참말 그래요. 이 땅이자 우리의 목숨이 아니예요...》

분임은 조용히 저고리고름을 들어 눈가에 가져갔다.

두사람은 일생의 귀중한 말을 끝없이 속삭이며 별을 적시는 내가에 나란히 앉았다. 한껏 무르녹는 봄밤의 푸른 정적속에 안긴 축복받은 두사람은 중천의 달이 다 지는줄도 몰랐다.

문득 분임이 두눈을 살쾅이 내리깔며 《누가 보는것 같아요.》하고 속삭이는데 《아마 저 달님이...》 하며 성국이 빙글거리며 보름달을 넌지시 가리킨다.

《아이참!》

분임이 불붙는 얼굴을 두손으로 가리는데 달빛이 흐르는 시내물우로는 성국의 꺾꺾 웃는 웃음소리가 실려갔다.

축복받은 시절의 잊지 못할 나날이었다.

성국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불안고 교묘한 보름달을 쳐다보았다. 그 둥근 달님은 어제날의 아름다운 사연을 속삭이며 오늘의 상봉을 재촉하는듯 은근한 빛을 차분히 안겨주고있었다.

《아, 얼마나 그림던 안해와 아들이냐.》 성국은 울리미는 걱정예 몸을 말기고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퇴마루에 한발을 옮겨놓았다. 이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안해와 아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도란도란 울려나왔다. 두해만에 들어보는 정겨운 말소리와 애뜻한 정은 문밖에 있는 성국의 빈가슴에 따뜻한 봄물처럼 흘러들었다. 그러자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끝없이 평온하고 환희로운 감정의 여파가 온몸에 서리서리 퍼져오르면서 머리가 핑그르르 돌았다.

불비 쏟아지는 포화속 그 어디에서도 잊어본적 없는 단란한 가정이었고 그리운 안해와 자식이였다. 그의 가슴은 후둑후둑 뉘뉘었다.

(어서 만나보자!... 얼마나 그리웠대.)

성국은 문앞으로 다가섰다. 가까워진 방문너머로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무춤 귀를 기울였다.

《엄마 뭘 만드냐?》

아들애의 또렷또렷한 목소리였다. 종일토록 땀 흘려 일하고도 황혼이 지는 프락에 들어서며 맑

고 그윽한 저 목소리를 듣노라면 일시에 만시름이 가셔지는듯하던 성국이였다.

《인민군대아저씨들께 보낼 공화국기발을 만든다.》

언제 들어보나 정답고 살뜰한 안해의 음성이였다.

《히야 그럼 올라버지도 받나?》

《그-럼》

다시금 아들애의 목소리가 울린다.

《엄마, 영철이 아버지 혼장랴다구 편지 왔다.》

《너희 아버지는 더 큰 공을 세우구 편질 하실게다.》

《...우리 아버지 제일이야. 아버지 언제 오나?엄마.》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미국놈을 다 몰아내구 영웅이 되신 담에 돌아오신다.》 하는 안해의 말소리가 이어졌다.

(미국놈을 다 몰아내고... 영웅이 된 담에 온다고?)

성국은 저도 모르게 안해의 그 말을 뇌이였다. 순간 그 어떤 격랑의 파도가 일며 문가에 선 성국의 가슴을 세차게 들이쳤다. 문고리를 쥐려던 그는

줄지에 온몸이 굳어져버렸다. 무언가 커다란 기대와 믿음을 산산이 저버린 자신에 대한 질책과 회오가 창끝처럼 가슴을 찔렀다. 시간은 흘렀으나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마당가에는 소슬한 바람이 불고 배나무 우듬지에서 소리없이 락엽이 떨어져내렸다.

문을 열자고 들었던 손이 힘없이 털썩 내려졌다. 안해의 마지막 말이 아니였던들 천근무게를 가진 철문이라도 열었으련만 이때 성국은 제집의 자그마한 지게문 하나 열지 못했다.

온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는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앞에 그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안해에게 고향을 떠나며 남겼던 소중한 약속이 심장의 갈피갈피에서 살아올랐다.

어디선가 파열이 큰 둔중한 포성이 복치듯 은은하게 울려왔다. 방안의 말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엄마 포소리야. 아버지 쏘는 대포소리!...빨리 나가보자.》 하고 아들너석이 줄라대는 소리에 이어 《엄마 이제 다리북구장에 나가봐야 한단다. 인젠 자거라.》 하는 안해의 달래는 음성이 들렸다. 그러나 아들애는 계속 조른다. 이어 응하는 안해의 목소리가 울렸다. 뒤미처 사이문 열리는 소리...

서슬에 박성국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다급히 뒤뜰로 걸음을 놓았다. 그리고는 우물쪽으로 난 길

을 따라 길가에 나섰다. 집이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둔덕을 넘어섰을 때에야 그는 비로소 자기를 의식했다. 그는 어쩌서 반겨 맞아야 할 안해 앞에서 사라져야 하는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피했다. 그것은 순간의 다행한 일이었으나 바람부는 길가에 다시 서고보니 막연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처지에서 그는 다시 마음의 진정을 할수가 없었다. 생각같아선 이제 당장 전선으로 다시 달려가고 싶기도 했지만 불행하게 된 육신은 전투능력을 상실한지도 이미 오래다. 설사 부대를 찾아간들 감정서를 받고 전투대오에서 제명된 자기를 받아줄리는 만무였다. 그는 생각던 끝에 집쪽으로 돌아섰다.

《나야 전상자가 아닌가. 1 차남진시기 락동강까지 나갔었고 전쟁의 두해동안 남부끄럽지 않게 싸웠다. 나에겐 그 어떤 한점의 수치감도 없다. 그 무슨 자신스스로 주저하며 안해앞에 부끄러워할 까닭이 있는가.》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두세발자국 못미쳐서 뿌리가 내린듯 두다리는 움직여질줄 몰랐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한담? 전쟁마당에서 돌아와 안해가 떠주는 물 한그릇 받아보지 못하니 이 어인 일인가...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 몸이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수가 없었다. 장군님 찾아주신 이 땅을 끝까지 지키고 오기전엔 그토록 사랑하는 안해와 아들도 기쁘게 만날수 없다는 생각이 이 시각 가슴을 파고들었다. 원썬놈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온 남편을, 아버지를 보는 안해와 아들의 심정은 어떠하랴.

쿵 쿵-포성은 더 자주 들려왔다.

시간이 갈수록 성국은 시련을 겪는 조국앞에 자신이 무언가 공민으로서의 커다란 죄책을 지고 있는것만 같은 피로운 심정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피흘리는 가렬치절한 전선을 두고 나는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 몸에 부상을 입었다는 그 하나로 자기와 안해와 아들을 위안하며 고향에 와있기에는 지금 조국, 조국은 너무도 큰 상처를 입고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위안한단 말인가?...

박성국은 자신의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다.

우수수- 차고 쌀쌀한 북풍이 길설의 락엽을 캄캄한 허공으로 향방없이 휘몰아갔다. 그로부터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저벅저벅... 허우대가 크고 병약한 박성국이 오

던길로 되돌아 걸음을 옮긴다.

동구밖을 나서 고향의 마지막언덕을 내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전선의 아버지를 찾는 그리운 목소리가 메아리쳐왔다.

《아-버-지!》

성국의 눈굽으로는 달빛에 번쩍이는것이 소리없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고향은 멀어지고 전선은 가까와오고있었다.

그날밤 고향을 떠난 성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에 대해 모르는 새 부대에 《편입》하여 전투대오에 다시 들어설 결심을 가졌다. 그는 고향에서 가까운 중부전선의 부대를 찾아 떠났다. 마침내 그는 오늘 아침 오상호네 련대를 만나게 되었고 일이 될때라 직속구분대의 아는 친구까지 만나 귀중한 방조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것을 숨기고 오상호중대에 실상은 편입이 아니라 복대하게 되었던것이다.

×

다음달 아침. 중대는 드디어 배비변경한 련합부대와 합류하여 새 작전계선으로 출발하였다. 마식령의 철부릉선을 타고 횡단하던 산악행군으로부터 도로행군으로 들어간것은 한낱무렵이였다.

행군대렬은 창부리지대를 련결하는 신작로에 들어섰다. 전선중부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이 전선동부이남으로 신속히 기동하기 위해서는 평강방향으로 곧장 빠지는 이 신작로를 통과해야 하였다.

박성국은 실로 뜻밖의 일앞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이곳 신작로를 타고 시오리가랑 내려가면 이틀전날밤에 들렀던 고향마을이 지척이었던것이다.

그의 마음은 견잡을수 없는 흥분으로 부풀어올랐다. 보병행군대렬은 도로의 량견으로 갈라져 행군중대를 짓고 속보로 전진하였다. 시간을 다투는 긴장한 행군이였다. 도로 한복판으로는 대렬차들과 포차들, 탄약차들이 뽀얀 먼지를 구름처럼 말아올리며 끝없이 달려갔다.

《성국동무! 무기를 바로 휴대하시오.》

그는 곁에 다가서며 엄격히 말하는 오상호의 목소리에 피땀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서둘러 왼쪽어깨에 땀땀 보총을 오른견에 옮겨메었다.

《군사규정의 요구를 떠나 다신 자의대로 무기를 휴대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성국은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을 확 붉히며 대오를 따랐다. 그러나 그는 열마를 걷지 못해 무기에 눌린 오른쪽 반신이 금시 떨어져나가는것 같은 참기 어려운 아픔을 느꼈다. 불시에 입에

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즈막에 와서 오른쪽옆구리에 입은 상처의 통세가 더욱 심해졌던것이다. 무기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편에 옮겨매게 되는 까닭도 실은 그때문이었다.

창부리 고개를 넘어서자 도로주변에는 연신지대사람들이 환영을 나와있었다.

이지대 주민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선것으로 보아 모름지기 안해도 나왔을것이였다. 하다면 오늘엔 몇몇이 안해를 만나봐야 할것이다.

박성국은 부지중 환영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군했다. 그러나 안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행군대오는 거침없이 전진했다. 한낮의 폭양은 불별을 내리쬐고 신작로는 화로바닥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별에 타고 초연에 그울린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땀의 소나기가 뿌려졌다. 숨이 콕콕 막혔다. 년륜같은 소금발이 허영게 내뿜은 군모와 어깨, 배낭뒤에는 해월에 시들고 말라버린 위장물이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새 작전의 성과를 담보하는 더없이 긴장한 행군이였다. 환영대렬의 맨끝에 이르러 행군중대는 자기의 행군속보를 계속 유지하면서 녀인들이 안겨주는 주먹밥들을 받아나갔다. 대오는 끝없이 달려가고 주먹밥은 쉬임없이 전투원들의 손과 손에 안겨졌다.

박성국은 저쯤 앞에서 주먹밥을 안겨주는 녀인들가운데서 한순간 시선에 와 부딪치는 녀자를 재차 살펴보았다.

검정통치마에 땀과 먼지가 뻗 흰적삼을 받쳐 입고 허리를 바짝 동인 그 녀인은 허리 한번 펴사이없이 광주리에 쌓인 주먹밥을 연방 안아서는 전사들에게 재빨리 쥐여주군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가름한 얼굴, 강판처럼 탄력이 넘치는 단단한 몸매에 날렵한 손길. 한쪽팔에 《전선원호대》라는 글발을 두른 그 녀인의 자태는 분명 두해만에 처음 보는 안해의 모습이었다. 쪽진 머리는 펄 성기여졌고 분결같은 얼굴은 감실감실하게 타 사뭇 섬약하고 지어 가 날뜨게까지 보이던 예전 모습은 쉬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행군중대가 쪽쪽 빠지면서 앞병사가 받아가지고나가고 그 다음 성국의 차례가 왔다. 눈시울이 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드리없이 높뛰었다. 성국은 주먹밥을 받아쥐는 그 순간에 안해를 깜짝 놀래우고 만나자는 생각이 들어 한순간 용케 참았다. 안해는 재빨리 광주리의 주먹밥을 안아서 허리를 펴세없이 성국의 손에 쥐여주었다. 박성국은 엉거주춤 허리를 굽히며 따끈한 주먹밥을 열결에 받아들였다. 그 순간 뜨거운 숨결이 꼭 차오르고 푸른하늘이 한바퀴 돌아갔다.

《여보! 나요. 내가 왔소...》

그는 목메여 분임을 불렀다.

《.....》

일순 대오가 흘러가는 온갖 소음이 잦아들고 주위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듯 누리는 고요하였다. 했던만 안해는 번쩍 고개를 들며 성국을 알아보지 않는다. 온 피부의 힘을 다해 안해를 부른것같았는데도...

일순 정지한것 같았던 누리의 모든 운동과 소음이 련속되고 대오는 줄기차게 흘러간다. 그때에야 그는 자기의 목소리가 입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것을 의식했다. 그리고 자기가 한결음도 지체함이없이 걷고있었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지그시 두눈을 내려감았다. 주먹밥을 받으며 안해와 만나려던 그 서슬에 그의 뇌리를 치는 강렬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안해와의 상봉으로 해서 결전장으로 달리는 자기의 행군길과 대오의 전진을 순간인들 멈출수 없다는것이였다. 그리고 자기로 해서 전선원호에 나선 안해의 미쁘고 장찬 일을 잠시나마 지체시킬수가 없다는 생각이였다.

박성국은 주먹밥을 가슴에 꼭 안으며 힘차게 걸음을 내디디었다. 주먹밥에는 그가 좋아하는 시누런 떡호박 한쪽이 같이 싸여있었다. 성국은 몇발자국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안해를 돌아보았다. 하자 금시 안해가 소리쳐 부르며 달려오는것만 같았다. 불시에 눈앞이 확 흐려졌다.

대오를 살피며 뒤따르던 오상호의 다기찬 목소리가 귀전을 때린것은 이때였다.

《박성국동무! 속도 빨릿!》

성국은 총부력을 힘껏 당기여 대오를 따라 앞으로 내달았다. 련합부대의 행군중대는 산과 들을 누비며 줄기차게 흘러갔다. 얼마 안있어 선두 대오는 벌써 또 다른 지역에 들어서고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쪽 행군중대의 아득한 후미로부터 이런 구두전달지시가 대오앞쪽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앞으로 전달! 박성국병사는 기발을 받을것.》

전투원들의 손과 손을 거쳐 대오와 대오를 이으며 어김없이 전달되는것은 차곡차곡 접은 람홍색공화국기발이었다.

영문을 알수 없는 이 놀라운 전달은 미구하여 오상호중대에도 넘어왔다. 아득히 굽이치는 행군중대를 이으며 무수한 전투원들의 손을 거처온 기발은 성국병사에게 닿았다.

참으로 의외의 일이 아닐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 난데없는 기발이 박성국병사에게 전달되었는지 박성국자신은 물론 중대의 그 누구도 몰랐다.

성국은 기발을 펼쳐들었다. 기폭의 한쪽끝 천

오라기에는 《전선원호대-분임》이라고 박아넣은 글자가 보였다. 분임이라면 분명 안해의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고향을 지나며 받아안은 이 기발은 틀림없이 안해가 보내는것이 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성국은 풀길없는 의혹에 잠겼다.

(안해는 내가 여기로 행군해가는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나는 아까 분명 안해앞을 지나가면서도 찾지 않았는데... 만약 아까 나를 봤으면 그자리에서 직접 전달했을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야 의혹의 실머리를 붙잡을수가 없었다.

람홍색 찬연한 공화국기발을 전해준 안해의 심정을 받아안은 박성국의 가슴은 마냥 후덥게 달아올랐다.

성국병사가 고향의 안해앞을 지나가면서도 만나지않고 달려온 사실은 기발이 전달되면서 온 대오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며 삼시에 퍼져갔다. 정든 고향과 집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안해와 누이를 두고온 대오의 모든 전사들은 박성국병사처럼 전승의 날 승리의 기쁨안고 만나리라는 커다란 흥분으로 끓어올랐다.

《성국동무두 참, 아주머니앞을 지나가면서도 만나지 않다니 그게 어디 될말인가요. 이틀전에 만났다고 해도 어찌 서로 마주보고서 그렇게 피할수있습니까? 너무합니다.》

오상호는 자기일처럼 못내 분해하며 진심으로 나무랐다. 그는 편입병사와 보조를 맞춰 오래오래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떠나고싶어하지 않았다.

새로운 작전지역으로 향하는 행군대오는 흡사 용용대하처럼 사품쳐 흐르며 석양의 후광이 가로비낀 보라빛 산발너머로 아득히 굽어쳐갔다.

×

전선동부에 위치한 아군의 익측을 노리면서 전술적방어지대의 중심을 장악해보자는 심산밑에 각종 방어축성물과 수많은 유생력량을 증파한 무명고지에 대한 습격전이 개시된것은 새 계선을 차지하여 이틀째되는 날 밤이었다.

뜻밖에도 적지뢰원으로 하여 부대의 공격로가 일시 좌절된것은 무명고지습격점령이 경각에 달한 시각이었다.

무수한 공병차단물들을 돌라했으나 최후의 저지선인 지뢰구역에 부닥쳐서는 더 전진하지 못했다. 조밀한 매설로 방대한 폭을 형성한 지뢰원은 고지중턱의 수백여평방을 생과 죽음의 무시무시한 점점지대로 이루어놓았다.

고지를 뒤덮은 철혹같은 어둠도 전율하는듯 심

연의 밑창같은 정적속에서 부르르 떨고있었다.

지뢰구역에 접근한 오상호네 해체조는 곧 해체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 무수한 지뢰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식으로 통로를 개척해나가다가는 부대의 총공격을 30 분이나 지연시킬수가 있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방도는?... 우회할수도 없다...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만갔다.

이때 허우대가 큰 한 조원이 어둠속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엎드렷!》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어둠속을 날아갔다. 뒤이어 고지우에서 시뻘건 불줄기가 뻗쳐나왔다. 적들의 기관총이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예광탄이 귀뿌리를 스치고 류산탄이 머리우에서 작렬하였다. 놈들이 그 무슨 불길한 징조를 예감한 모양이었다.

머리털 하나 세울수 없는 정황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기 않아 허우대 큰 조원은 재차 움썽 몸을 세웠다.

《박성국! 엎드렷!》

오상호는 성국의 한팔을 뻗 나꿔채며 그자리에 주저앉혔다.

《중대장동지! 무슨 방도를 대야 할게 아닙니까! 명령을 주십시오!》

성국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비장한 결심이 어려있었다.

《안되오. 모험할수 없소. 방도를 찾을 때까지 해체를 계속하십시오.》

오상호는 잘라 말했다.

적기관총은 계속 불을 토했다. 어떻게 하는가. 시계의 초점은 한초한초 앞으로 달리는데 지뢰의 해체임무앞을 막아선 적의 불길은 악마의...화살마냥 여지없이 날아들었다.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는 오상호의 두눈에는 불식간에 섬광같은 빛이 스쳐지나갔다. 그는 적기관총의 작탄구역을 유인하려고 좌측릉선으로 뻗 몸을 날렸다. 하자 일시에 불줄기가 그에게로 쏘렸다. 머리우에는 조명탄이 주렁주렁 달렸다. 박성국은 불몽치같은것이 목안으로 확 치밀어오르는것을 느끼며 재빨리 탄침을 찍어나갔다. 시선은 저도 모르게 자주 전방쪽으로만 갔다. 지뢰해체때문에 한초라도 시간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송두리채 활활 불타버리는것만 같아 도시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고지는 다시금 활시위처럼 팽배한 긴장속에 피폐한 정적이 도사리였다.

정적...정적... 바싹 허리를 굽히고 탄침을 찍어나가며 전진하던 성국은 왼쪽 군복주머니에서 무엇인가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는것을 감촉하였다.

얼른 어둠속을 더듬어보던 성국은 고향을 떠나며 간수했던 벼이삭을 푹푹 싹 종이봉투를 더듬어쥐었다.

《그렇지, 빨리 이기구 고향에 돌아가 이 씨앗을 뿌려야지!》

불현듯 성국의 귀전으로는 푸른 군복을 입고 동구박 언덕에서 안해에게 남겼던 약속과 더불어 집에 갔던 날 밤 안해의 목소리가 한데 뒤엉켜져 그 어떤 강렬한 신념이 불꽃이런듯 타올랐다.

그는 군복단추를 벗기고 품속에서 소중히 간수했던 기발을 천천히 꺼냈다. 기발을 받쳐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박성국은 어둠속에서 손을 더듬어 총신에 기발을 달았다. 문득 기폭이 바람결에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며 소리없이 가슴우에 안겨졌다. 그러자 그의 온 심장이 분출하는듯 끓어올랐다. 뒤미처 그는 미지의 거대한 힘을 안고 번쩍 몸을 일으키며 땅을 박찼다. 동시에 바람처럼 어둠을 휘감으며 지뢰원으로 몸을 뿌렸다. 편이어 그는 초인간적인 민첩성으로 인발선들을 걸어차며 지뢰구역 한복판으로 비호같이 내달았다.

그러자 박성국의 뒤로는 적지뢰들이 연방 꼬리를 물고 터져올랐다.

광광 광광- 파르릉 썩

충천하는 화광속에 불사신마냥 고지우로 육박하는 영웅전사의 영웅한 모습이 승엄한 화쪽으로 펼쳐져었다. 병사의 뒤로는 부대의 공격로가 곧추 뻗어나갔다.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전신이 파편에 형체없이 찢겨진 거인의 병사는 만신의 힘을 다하여 부대의 공격을 부르며 우뚝 몸을 솟구쳤다. 그리고는 두팔을 한껏 벌려 땅을 그러안으면서 앞으로 폭 고꾸라졌다.

《성국동무!-》

.....

《만세!... 만세에-》

.....

불타는 땅우에 쓰러진 병사의 얼굴에는 순간 미소가 붉게 어리었다.

무명고지습격전투가 있는 뒤로부터 이들이 지나갔다. 오상호는 빼앗긴 고지를 다시 찾아보려고 총공세를 시도하던 적들을 오늘아침까지 완전히 격퇴하고나서 경황없이 봉대소로 향했다. 그가 봉대소에 막 들어서려는데 직일간호원에 막아섰다. 성국병사는 각일각 생명을 위협하는 중태에 빠져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므로 비상응급대책을 편이어 취하고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

전신 파편상, 심한 출혈, 실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다리... 오상호는 금시 가슴 한구석이 꺼져 내려는것만 같았다.

이때 위생복을 입은 너준의가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으며 걸어나왔다. 오상호는 무심중 눈길로 너준의를 건너다보았다. 그 너자도 오상호를 마주바라보았다.

했을 때 두사람은 그만 다 같이 굳어진듯 움직일 줄 몰랐다. 한순간 이럴줄 알았었다는 믿음이 대한의 과도인양 두사람의 가슴속을 동시에 휩쓸어들었다.

세월은 흘러 세해전 고향에서 기약도 없이 헤어져 편지 한장없이 결별했던 두사람이었던만 준엄한 시절에 성전의 길에서 뜻밖에도 다시 만나게됨을 놀라지 않았다.

오상호가 입대 한 뒤 정선이기도 군복을 입었고 야전병원에서 군의로 복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전선배비변경에 따라 연합부대의 화선치료대로 최전방봉대소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상호동무의 입대는 저의 가슴속에 거세찬 파문을 일으켰어요. 전 동무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수 있었어요. 제자신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무에게서 한장의 편지도 받아보지 못하여 안타까울 때도 없지 않았지만 꼭 잘 싸우고 계시리라고...》

전 우리 동지들의 심장을 잘 알고있어요. 요즘 제가 야전병원에 있을 때 감정서를 쓰고 제대시켜 고향에 보낸 한 전사가 또다시 전투대오에 들어서서 한몸바쳐 싸워온것을 보았을 때 정말...》 끝모를 수평선을 비껴담은듯 깊고 그윽한 정선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함초름히 고여있었다.

최정선의 말을 들으며 그 순결한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도 서신 한장 하지 않은 자책에 얼굴 붉히던 상호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듯 급히 들었다.

《아니? 제대시켜 고향에 돌려보낸 전사라니?》

《혹시 이번 무명고지전투때에 적지뢰원을 개척하고 아군의 공격로를 연 병사를 아세요?》 상호의 물음에 정선이는 나직이 반문하였다.

《박성국병사말이요?》

《그래요. 성국병사를 잘 아시는가요?》

《잘 알다뿐이겠소. 그는 나의 대원이요.》오상호는 공지에 넘쳐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정선의 얼굴은 갑자기 해쓱해지었다.

《...그게 사실이란말이에요?... 어쩌면 상호동문 그럴수 있어요. 너무해요.》최정선은 얼굴을 싸쥐며 돌아섰다. 북받치는 오열에 어깨가 마구 떨렸다. 오상호는 어안이 병병하였다.

《성국병사는 제가 담당군의로 있을 때 감정서를 쓴 동무예요. 어깨와 옆구리에 얼마나 심한 중상을 입은 동문지 아세요? 그런 중상자를 어쩌

면...그렇게 전투에 참가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선의 목소리는 눈물에 맺혀 마디마디 흐려졌다

정선으로 말하면 얼마전에는 야전병원에서 박성국병사의 담당군의로 있었고 최전방봉대소에 나온 지금에 또다시 뜻밖에도 두번째로 후송되어 온 중상자 박성국병사를 담당하여 치료하고있었던 것이었다.

오상호는 정선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그렇다면 성국동무는 전투능력상실로 제대된 사람이었던말이요?》 오상호는 그만 억이 막히었다.

(아, 나는 사람이 아니였구나. 나같은것이 무슨 지휘관이란말인가?)

처음 상봉의 날에 퇴원증을 보자고 하는 그앞에 그토록 초조해하던 성국이, 뜨거운 폭양이 쏟아지는 창부리의 진군길에서 창백한 얼굴로 왼쪽에 메였던 총을 황급히 오른쪽어깨로 가져가던 성국이, 그러나 추호도 주저함이 없이 육탄이 되어 부대의 공격로를 열어나가던 성국이, 이것이 바로 한 보통병사가 조국의 수호신으로 걸어온 그 간고하고도 자랑찬 길이 아닌가!... 허나 나는 그런 병사앞에 너무도 큰 죄를 저질렀다...

오상호는 뼈아픈 체념과 복받쳐오르는 걱정은 누를길이 없었다. 그는 박성국병사가 누워있는 처치실로 누가 막을 사이도 없이 뛰어들어갔다.

성국병사는 여전히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

《성국동무!...》

대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목메여 흐느끼는 젊은 중대장의 두눈에서는 뜨거운것이 비발처럼 흘날렸다...

맑은 가을날이다.

봉대소가 자리잡고있는 산기슭의 뉘엿한 자드락에는 들국화가 구름처럼 피어 떨기떨기 춤을 추었다.

오늘 영웅전사 박성국은 사흘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다,

빗쭈, 쪼르릉- 새벽이슬을 털며 산새들이 날아에는 잡관목 숲속에선 한물진 개암이 이따금 후두두 떨어지고 푸른 송림아래로는 울긋불긋 단풍이 불타올랐다.

이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을 다 떨쳐입고 나선 듯 눈부신 미모를 갖추고 승리한 전선의 가을날은 소생한 박성국병사를 정답게 맞이했다. 성국은 전쟁의 열파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의 수려함을 자랑떨치는 조국산천을 취한듯 바라보았다.

이윽하여 그는 방금 간호원이 가져다 침대의 머리맡에 포개여놓는 기발에 시선을 가져갔다. 그가 파편자국이 송송한 기폭을 천천히 집어드는데 정선이와 오상호가 들어섰다. 최정선이 다급히 다가서며 상반신을 일으킨 성국을 침대에 조심히 눕히었다.

《몸에 무리를 주면 안됩니다.》 하고 나무라며 정선은 성국이 들고있는 기발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박성국이 무명고지에 휘날린 기발이었다. 언뜻 기폭의 한끝 천오라기에 새겨진 글발이 정선의 눈길을 끌었다.

《전선원호대-분임》 정선은 부지중 입속으로 뇌이였다. 그는 자못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 창부리계선에서 전달받은것이 아니에요?》 그는 다그쳐 물었다.

성국이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별안간 정선은 입가에 손을 가져가며 흠칫 놀라 속삭이였다.

《이 기발은 창부리신작로를 통과할 때 제가 한 아주머니에게서 부탁받고 행군중대에 전달한것이 예요.》

박성국은 놀랐다. 기발이 어떻게 되어 자기에게 전달되게 되었는지는 당사자인 그도 아직은 모르고있느터였다.

《군의동지! 어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어서 말하오.》

두사람은 흥분한 어조로 재촉하였다.

정선은 이야기하였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화선치료대를 책임진 최정선은 행군대렬의 후미에서 따르고있었다. 창부리신작로를 지날 때 주먹밥을 마감 대오에까지 안겨준 한 젊은 녀인이 너군의인 정선에게 부탁을 하나 하자고 했다. 그는 좀전에 젊은 지휘관이 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속도를 높이라는 소리에 문득 고개를 들어봤는데 아니나다를가 그 허우대 큰 사람이 애 아버지였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전선으로 가는 그의 바쁜 행군길을 지체할가봐 부르지 못했고 대오에 주먹밥을 하나라도 더 안겨주어야 하겠기에 차마 몸을 뜰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 전달하자고 했던 기발이 생각나서 아들에게 시켜 집에 가 가져오게 하여 후미에서 행군하고있던 정선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기발을 전해야 할 애아버지의 이름이 박성국이라는 말에 정선은 놀랐으나 세상엔 같은 이름도 많고 더우기 얼마전에 제대된 박성국병사가 다시 대오에 섰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전진하는 대오에 기발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정말 더없이 훌륭한 아주머니입니다!...》

오상호의 감격에 젖은 말이였다.

《성국동문 것처럼 훌륭한 아주머님에게 왜 그때 잠시나마 만나 따뜻한 얘기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가말입니다.》

오상호는 그때의 섭섭하고 애수하던 일이 아직도 내려가질 않아 박성국을 나무랐다. 한동안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이윽하여 박성국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저는 전선으로 떠나면서 안해와 약속했습니다.

그건 안해는 고향을 지킨 자랑없인 절 만나지 않겠노라는것이구 전 이 전쟁에서 미국놈을 모조리 죽지구 장군님 찾아주신 우리 땅을 끝까지 지키기전엔 고향집 문턱을 넘어서지 않으리라 약속이 있지요. 그러니...》

오상호는 그들이 어떠한 의지와 신념과 맹세를 서로서로 간직하고있었기에 그토록 몸과 마음 다바쳐 성실하게 싸울수 있었음을 가슴 후더이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애오라지 영명하신 장군님을 길이 받들어모실 조국을 위한 그 한길에 삶의 진부를 바치여갈 고귀한 약속과 믿음. 의지와 리념이 열화같이 불타올랐기에 한목숨 기꺼이 바쳐 싸울수 있었고 바로 그러한 공민들이 조국해방전쟁에 떨쳐나섰기에 전승의 날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내가에서 간호원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바람결에 은은히 실려왔다.

.....

미국놈 백놈이나 쓰러눕히고
불탄 고지 지켰으니 영웅되셨네
나라의 자랑인 우리의 영웅을
그대로야 점찍해 어찌 만나나

아침이였다. 피로써 사수한 무명고지너머 남쪽 하늘가에서 진격의 포성이 은은하게 울려왔다.

그동안 비상구급처치를 받고 다시 소생한 박성국은 오늘 야전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다.

박성국병사와 오상호중대장은 언덕길우에 오래도록 마주 서있었다.

《치료를 받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받아주시겠지요? ...》 떠나는 박성국의 마지막 말이자 절절한 부탁이였다. 오상호는 성국의 왼쪽다리를 불안한 눈길로 일별하였다. 그러나 그는 힘주어 충심으로의 약속을 하였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꼭 다시 함께 싸웁시다!》

두사람은 뜨겁게 포옹하였다.

노을빛같이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들에 방울방울 맺혔던 령롱한 아침이슬이 눈물처럼 주르르 흘러내렸다. 오상호는 헤어져야 하는 대원에게 상관으로서의 마지막 한가지 엄격한 지시를 주었다.

《고향의 아주머님에게 전선에서 잘 싸운 소식을 꼭 전하도록 하십시오!》박성국은 축축한 눈길을 들며 젊은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잘 알았습니다.》

《자, 빨리 차에 오르십시오.》상호는 애뜻한 눈길을 돌려 재촉하는 위생차운전수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성국이는 아쉬운듯 다시한번 락엽이 흘날리는 산락을 멀리 둘러보고 상호의 두손을 꼭 잡은후 힘겹게 차에 올랐다.

위생차 문열에 서서 문고리만 만지작거리던 최정선은 오상호가 내민 손을 보고 주춤거리더니 얼굴을 활짝 붉히고 우뚝진 그 손을 잡았다.

《전승의 그날 승리의 기쁨안고 다시 만납시다!》

《네, 잘 싸워주세요.》

물결우에 해빛이 부서져 반짝이는듯한 정선의 두눈은 무한정 밝게 빛났다. 오상호는 흠뻑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최정선은 깨끗하게 닦은 권총을 오상호에게 내밀며 열렬한 눈길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오상호는 물기어린 작별의 침묵을 깨뜨리려는데 차에 대고 호탕하게 소리쳤다.

《성국동무, 전쟁이 끝나면 정선동무와 함께 동무네 고향을 꼭 한번 찾아가겠으니 아주머님에게 잊지 말고 전해주시요. 허허...》 오상호의 웅글진 웃음소리는 산골의 메아리로 되어 멀리 울려 퍼진다.

아마도 그날에 박성국병사의 가정을 찾게 된다면 오상호중대장은 거기서 또 하나의 가슴치는 사연을 알게 되리라. 그것은 중대장도, 아니 고향의 안해도, 아들도 아직 몰랐으니 그것은 오직 병사가 피흘려지킨 조국만이 알고있었다.

조국이 귀중했기에 성스러이 하나의 길을 걸어왔고 바로 이 조국을 영원토록 빛내이기 위해 번치 않고 하나의 길을 걸어갈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이 땅의 수호자들인 그들은 드디어 단풍붉은 작별의 언덕에 승리의 약속을 남기며 헤어졌다.

그들 세사람. 아니 네 전우가 다시 만날 그날은 전승의 날일것이였다....

가리라, 더 깊은 막장으로!

백일호

간데라 손에 들고
출근길에 나서니
오늘도 새벽대기를 흔들며
나를 불러세우는
발구름소리 차바퀴소리...

은룽덕 아득한 굽이 굽이
언젠가는 모래자갈이 오르고
어제는 세멘트며 철기둥이 오르더니
이 아침엔 달리는 적재함우에서
선광기계들이 번쩍이누나

벌써 새 선광장은 다 일떠섰는가
아버이수령님 불러주신
150 만 은금보화의 산악을 향해
금골땅에 흐르는
불같은 시간을 깨우쳐주며
눈앞에 굽이치는 벅찬 흐름이여!

오늘은 그 몇번 발파소리 울려야
내 이 시간에 발을 맞추랴
이 하루 내 뿔고 가야 할
굴진의 먼 지점을 짚어보는 마음

구름발 휘감기는 아슬한 산정
새 선광장지붕밑에 들어앉을
특대형마광기의 산갈은 무게는
막장을 지켜선 나의 어깨우에
그대로 조국의 당부가 되어 없어지는듯

내 가슴 쿵쿵 울려주는구나
춤노래를 안고 오르는
소년단원들의 작은 발걸음소리도
일떠서는 새 제련소 그 소식을 실고온듯
금골행렬차의 저 기적소리도

아, 《80 년대속도》 창조에
내 걸음도 실어주며
금골에 굽이치는 불같은 이 시간
내 지금쯤 그 어디에 서있다면
굴진공의 통이 큰 가슴을 헤치고
저 흐름을 자신만만히 바라볼것이나

막장으로 막장으로 달리는 마음이여
석수에 젖은 암벽도
달아오른 가슴으로 맛비비고싶구나
발파의 메아리 발부리에 휘감고
높은 광석무지우에서 한껏 웃고싶구나

금골의 래일이 더욱 빛나게
조국의 새 아침이 더욱 빛나게
아버이수령님 바라시고
우리 당중앙이 부르는 길에
무한대한 광석발을 섬기고 섬기리니

오, 가리라, 더 깊은 막장으로!
쌍으리라, 더 높은 보화의 산악을!
굴진공 나를 빌어 힘차게 울리는
발구름소리 차바퀴소리...
저 벅찬 흐름을 이끌고 이끌고

용해공의 노래

한 호

날마다 보아도
볼수록 아름답더라
시간마다 뚫어도
더 뚫이고싶더라
너 쇠물이어

네 불길 타올라
나의 숨결 이리도 뚫고
내 열정 불붙어
너는 그리도 장쾌한것이나

사랑하노라
언제 들어도 좋은
출강의 다정한 메아리를

사랑하노라
쇠물처럼 뜨거운
벗들의 목소리를

화광이 비낀
저 구내길은
못잇을 갈림길을 지나시여
우리를 찾아주셨던
그 감격으로 새로웁고

화광에 물들어
설레는 백양나무는
우리와 무릎을 마주하셨던
그 뜨거움으로 가슴을 뚫여주거니
쇠물의 흐름을 안고
산갈은 수자를 안고
충성의 나날을 적어가는
용해공의 기쁨이며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난국을 헤치자고 하시던 그 믿음

동무들이 뚫어야
온 나라가 뚫는다고
손잡아주시던 그 사랑

그 사랑 그 믿음
충성의 불길로
가슴마다에 뚫어
무쇠가마가 뚫고
온 나라가 뚫나니

흰구름 하늘아래
봄날의 대지우에
계급의 전위대로
우리를 세워주신
어버이 우리 수령님!

그때문에
하늘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하늘이 된다 해도
우리의 신념 강철로 굳고
우리의 충성 쇠물처럼 뚫어라
날마다 보아도 아름답고
날마다 뚫어도 장쾌함을
노래로 위훈으로 전하며
철의 산악을 쌓으리라

하늘을 메우며
이 쇠물로 첩탈들을 세우고
이 쇠물로 금나락 안아오고
이 쇠물로 언제를 쌓으며
이 쇠물로 은빛지붕들을 올리며

뚫자, 쇠물이어
흐르라. 쇠물이어
우리 열정처럼!
우리 충성의 마음처럼!

가사

망양나루

홍순련

오산덕 떠나실제 새기신 짚신자욱
망양나루기슭에 오늘도 어려있네
아, 어머님 그날의 그 영상
물결도 못잊어 끝없이 출렁이네

이 강을 건느시며 품으신 굳은 맹세
물결넘어 세월넘어 변함이 있었으랴

아, 어머님 불같은 한평생
장군님 모신 길에 영원히 꽃피었네

시련의 곱이곱이 그립던 조국산천
망양나루 물결우에 락원으로 비끼었네
아, 어머님 바라신 그 념원
당중앙 해빛아래 꽃으로 만발했네

우러러 사는 마음

-삼지연대기념비군상앞에서

서봉재

세월은 많이도 흘렸건만
할머니의 두볼엔
어찌하여 오늘도
뜨거운 눈물이
청동으로 맺혀있는것이나

장군님 품에 안겨
못다 흘린 그 눈물
뜨거이 솟구쳐올라
감격의 이슬을 흘리고있는것이나

부르고 또 불렀어도
목이 메여 못다 부른
저 늙으신 할머니와 함께
장군님 영상 우러러
나도 만세를 터치거니

험악한 세상을 짚고섰던
저 작은 지팡이 받아
내 두손잡아 이끌며
위대한 장군님 우러르는
이 마음

얼마나 기다리던 품이던가
한숨속에 날이 밝고
시름속에 어둠이 깃들 때면

조용히 귀틀집 피창을 열고
그리워 장군별을 우러르던 저 할머니

어둡던 그 세월
피멍든 가슴에
눈물은 다 타버린줄 알았더니
그 어떤 빛발이
설음의 얼음장을 녹였기에
더운 눈물은 저러히도 그칠줄 몰랐던것
이나

한생에 품고살던 그 소원
장군님 품에 안기여
순간에 다 이룬
그 행복, 그 기쁨이
여기 청동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로 굳어졌구나!

아, 날이 가고 세월이 가도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의 한마음
그날처럼 그날처럼
감격에 젖어 우러르노라!
이 세상의 오직 한분
아,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농민 박길호

차승철

나와 동행한 관리위원회 기술지도원은 매우 리치적인 청년이었다. 그는 서른살이란 나이에 비해서는 놀라울만한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있었으나 욕심스럽다할만치 더 많은것을 알고싶어했고 의문스러워했다. 그는 수도에서 내려온 취재기자를 안내한다는 체면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거퍼 나에게 질문을 들이대군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신중한 문제들이었다. 나는 알고있는것만치 성의껏 대답을 주면서도 직업적 습관대로 알아야 할 농사일을 물어보군하였다. 청년은 여느 사람들같으면 퍼그나 지루한 설명을 늘어놓아야할 문제에 대해서도 간결하고 석연하게 이야기할줄 알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짧은 시간동안에 펍 친숙해진 청년은 나의 취재내용에 대해서까지 호기심을 찾기 시작하였다. 나는 저으기 딱했지만 독자로 될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미리 들어두는것이 썩 나쁘지 않겠다고 여겨 실화감중에서 두가지를 선택하여 룬곽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청년은 첫번째실화감에 대해서는 전적인 공감을 표했으나 두번째것에 대하여는 그닥 달가와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좀 불쾌하였다.

기술지도원이 불만스러워하는 그 글감으로 말하면 나를 매우 흥분시킨 실화감이기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비치지 않고 청년과 나란히 걸어가며 앞으로 써야 할 기사의 주인공, 나의 머리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한 평범한 농민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

토지개혁이 실시된지도 반년이 지난 초가을의 어느날이었다. 강냉이 개포리만큼씩 실한 벼이삭이 일매지게 돌아난 논판에 한 농민이 서있었다. 장대한 체구에 모난 아래턱을 감싼 구레나룻이 유표한 40 대의 사나이였다. 팔 한섬을 지게에 짊어진채로 박우물에 었디여 물을 마시고 일어난다는 힘군인 그로 말하면 이곳 정산면 일판에서 농군으로 소문이 난 박길호였다. 벼포기 사이를 유유히 누벼가며 돌피를 고르는것이 퍼그나 굵떠보였으나 손놀림은 놀라우리만큼 재빨라서 잠간사이에 돌피아름이 차군하였다. 중낮이 기울무렵 마지막 논배미의 돌피까지 말끔히 고르고난 그는 논뚝에 올라섰다. 풍만한 수확을 약속하며 파도

쳐 설레이는 벼포기들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이마의 땀을 대충 문지르고난 그는 아직 돌피를 채 고르지 못한 다른 논배미에 눈길을 멈추었다. 고개를 드리우기 시작하는 벼이삭들사이에 체멋대로 솟아있는 돌피들이 퍼그나 볼풀사나왔다. 토지를 분여받은 올봄부터 품앗이를 하며 함께 농사를 짓는 오도식이네 논이었다. 그는 허아래소리로 뭐라 두덜거리며 입맛을 쓰겁게 다시더니 논에 성큼 들어섰다.

맞은켄 논뚝까지 몇차례 오가며 돌피를 한참 잡고났을 때 어디선가 건드려진 노래가락이 울려왔다.

읍거리에서 들판으로 뻗어나온 들길로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걸어나오고있었다. 아무렇게나 풀어헤쳐진 앞설과 한쪽으로 삐딱하니 쓰인 농립모, 자기 논판을 찾아나오는 오도식이였다. 자그마한 키에 딱바라진 어깨며 주름살 하나 없이 팽팽한 철색얼굴이 펍 건강해보인다. 그래도 잔등에서는 농민의 본색대로 불나무낫자루가 삐죽이 내민 올망태가 덜렁대며 춤춘다.

그는 논머리에 이르자 몸의 중심을 가누며 멈추어서더니 소리쳤다.

《누가 자네더러 돌피 골라달랬나? 나오라구.》

박길호가 들은척도 않고 제 할일만 하자 오도식은 목대를 높이였다.

《논임자의 말을 정 안들올텐가.》

그제서야 고개를 돌린 박길호의 얼굴에는 능청스러운 웃음이 피어나는듯하더니 곧 정색해졌다.

《누가 논임자란말인가. 이건 주인이 없는 논이야.》

《아니 이것봐라.》

오도식은 사뭇 억이 막히는듯 팔꼭질을 몇번 하더니 삿대질을 하며 고아댔다.

《이건 이 오도식이가 분여받은 천오백평짜리 국개논이야. 어쩜놈이 자네에게 그따위 소릴 하던가?》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지. 이제부턴 누구도 이논을 자네의것이라고 하지 않을게세. 주인이 있는 논엔 돌피가 이렇게 성해날수 없어.》

조용하면서도 마디진 그 소리에 오도식이는 정통을 찢리운듯 한결 누그러졌다.

《술만 마시고 다니며 돌피를 제대로 안고른다는 소리겠지. 옳은 말일세. 하지만 나라도 찾았겠

다, 땅도 생겼겠다 이 좋은 때에 맨송맨송하게만 살수없지 않아. 어제날에 숨 한번 크게 못쉬고 살던 이 오도식이기도 이제 제 세상을 만났다고 소리치며 마시겠네.》

《쓸개짜진 소리 작작 하라구. 농사꾼들뿐아니라 땅도 자네를 손가락질하고있어. 나는 방금 이 논판이 자네를 욕하는 소릴 들었네. 변변치 못한 입자를 만나서 고생을 하겠다구말이야.》

오도식이는 금시 술기운이 다 달아난듯 초점이 똑바른 눈매를 지었다. 어느때에는 별로 말이 없던 길호에게서 나온 궁냥깊은 편잔에 속이 뜨겁해난것이다.

...해방되기 훨씬 전인 젊었을 때에 평안도 맹산의 어느 부자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야밤도주하여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던 끝에 이고장에 온 박길호는 정산면의 토배기농군인 오도식이의 알선으로 이 지방에 주저앉았다. 남의 땅을 얻어부치며 함께 농사를 짓던 그들은 어느해 겨울 오도식이의 추동으로 벌이가 좋다는 원산에 계절로동을 하러 갔다가 뜻밖의 변을 당했다. 워낙 술을 좋아하는데다 뼈힘을 들이지 않는 《형제》를 곧잘 넘겨다보곤하는 오도식이가 왜놈 어업회사에서 정어리기름을 은밀히 빼내어 팔아먹곤하는 협잡꾼들에게 말려들어 《도적》으로 몰리운것이다. 푼전 몇잎을 바라다가 온갖 루명을 혼자 뒤집어쓰게 된 도식이를 두고 탄식을 하던 박길호는 그 교활한 권모술수군들을 때려눕히고 도식이를 구출했다. 그 밤으로 그곳을 떠나 내려온 두사람은 추녀끝을 맞대고 함께 농사를 짓다가 해방을 맞았다.

오도식이는 유순하면서도 씨가 박힌 길호의 말을 듣는 이 시각 따라 토지를 분여받던 날 제땅이된 논판에 퍼더버리고 앉아 채 녹지도 않은 흙덩이를 손톱눈이 젖혀지도록 긁어쥐고 주물러보던 박길호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와 함께 제땅을 찾게 된 오도식이기도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가. 그해 봄부터 두사람은 서로 품앗이를 하며 농사를 지었다. 한데 고르지 못한것은 농사에 쪼들렸다고 하는 오도식이기도 힘세고 일손 걸찬 박길호에 비할때에는 항상 일자리를 절반도 못내는것이였다. 그것을 늘 미안하게 여기던 오도식이는 어느날 박길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힘이 자네만치 못한 나와 품앗이를 하느라니 입자가 고생이구만.》

《제 힘만큼 육신을 놀리는데 무슨 고생이라고 그러나. 나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이렇게 일했을 거네.》

《좌우간 가을걷이나 해놓고는 자네의 품값을 따로 치릅세.》

그러자 박길호는 시무룩해졌다.

《그렇게 따질내기를 하려면 품앗이구 뭐구 썩

집어치워야지. 그런 조물썩한 소리를 다시는 말라구.》

이러한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의중계 지내며 농사를 지었다.

오도식이가 어제날의 박길호를 더듬어 보는동안 박길호 역시 오도식이를 두고 깊은 생각을 갖고있었다.

(땅을 분여받은 다음부터 그렇게 부지런하고 직심스러워졌던 오도식이가 요즘에 와서는 왜 술마시는 일이 또 잦아지며 농사에 덜통해지는가.)

해방이 되자부터 똑바른 정신으로만 살아보고 술을 딱 끊어버린 길호에게는 이런 오도식이가 여간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길호의 속심을 읽은듯 도식이는 변명하듯 뇌이었다.

《뽕이 뒤틀린김에 한잔 했네. 글썽 흥치덕이란 녀석이말이야 돈으로 물어주게 한 비료값을 쌀로 쳐서 내라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모아들인 날알로 쌀장사를 하자는 수작이 뻔해.》

흥치덕이란 토지개혁때 숙청당한 지주인 《김전사》놈과 먼 친척벌이 되는 알부랑자로서 은밀히 모리간상을 하고있는자였다. 탐욕에 타는 눈초리가 항상 번쩍이는 그자의 모습을 역겨웁게 여겨오던 길호는 성급하게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나?》

《상판을 힘껏 갈겨주고싶었지만 매년에 가서 비료작이나 또 얻어 쓰자니 그렇게 할수는 없구해서 쌀로 물어주고말았네. 그래, 화김에 술만 마셨어.》

제김에 우둘거리는 오도식이를 물끄러미 여겨보던 박길호는 가벼운 코숨을 몇번 내쉬고나서 느지력느지력 뇌이었다.

《내가 뭐라던가. 제 주먹을 깨뜨려서 땀을 걸 굴지언정 그들과는 상종 말라지 않던가.》

오도식이는 미간을 좁히며 박길호를 치며보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작두날에라도 올라설 이 오도식이 성미에 오죽하면 지고말았겠나. 평잡는거 매라구 무슨 수를 써서든지 농사를 잘 지어놓고 보아야지.》

박길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젖더니 눈가에 잔주름을 모았다.

《그런 핑계는 듣기도 싫네, 제땅만 있으면 누구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보란듯이 농사를 짓겠노라던 자네가 아닌가. 그런 본심은 어데다 췌버리고 남에게 빌붙는 버릇이 붙었나.》

벌거우리하게 달아오르던 오도식이의 낮빛은 갑자기 험상스러워졌다.

《말이면 다 하는줄 아나. 빌붙긴 누가 빌붙었다구그래.》

《내 말을 마저 들으라구.》

오도식이를 가볍게 제지시키고난 박길호는 신통한 말이 인차 떠오르지 않는듯 짙은 되초연기

를 물씬물씬 내뿜고나서 나직이 이었다.

《자네도 올봄에 동네에 와있던 공산당파견원의 말을 잊지 않았겠지. 우리가 부치는 이 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땅이야. 그런 헛판놈들의 손때가 오른 비료로 더럽힐 땅이 아니란말일세. 땅의 주인구실을 잘해야 한다는 파견원의 말을 뿔로 들었나.》

《마음놓으라구. 나도 들어야 할 말은 채심하는 사람이야.》

보다 심각하게 이어지려던 그들의 대화는 길호의 딸 분녀가 달려나오는 바람에 동강이 났다. 읍에 새로 생긴 중학교에 다니는 분녀는 공부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를 찾아 이렇게 논판에 나타나곤하였다.

축기가 빨라보이는 여물찬 논매로 논배미를 빙 둘러보던 분녀는 방금 아버지가 하던것처럼 오도식이네 논판에 들어서서 돌피를 뽑기 시작했다.

도두룩한 이마와 동그란 턱, 늘씬하면서도 압광진 몸매가 신통히 아버지를 닮았는데 까만 세라복과 어울려 더욱 희뽕아보이는 얼굴이 여간 귀엽성스럽지 않았다. 허리를 감신대며 바지런히 돌피를 뽑는 분녀를 이윽히 지켜보는 박길호와 오도식은 언제 말씨름을 했느냐는듯 마음이 개운해졌다. 박길호네 외딸인 분녀를 오도식도 제자식 못지 않게 귀히 여겼던것이다.

서산마루에서 부채살처럼 비쳐오는 은금색 석양빛을 받으며 춤추듯 움직이는 소녀를 정겹게 바라보던 오도식은 박길호에게 낯을 돌리었다.

《저애가 지금 몇살이지?》

새삼스러운 물음에 박길호는 뜨직이 대꾸했다.

《열여섯이네. 원산에서 자네가 봉변을 당하던 그해에 태어났으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긴 오도식의 얼굴에는 전에 없이 다감한 빛이 어리었다.

《참 세월이 빠르긴하군. 벌써 저 애가 저렇게 자랐으니... 뉘를 보게 됐네.》

《뉘는 무슨놈의 뉘야.》

《아닐세. 이제 두고보라구. 얼싸한 사위감이 생기지 않나.》

《채 크지도 않은 아이를 놓고 무슨 그런소릴 하나. 나는 애당초 자식덕을 바라지도 않네.》

허파 빈 웃음을 치며 고개를 외로 트는 오도식을 넋지시 바라보는 박길호의 얼굴에는 밝고 아늑한 미소가 서서히 피어났다. 온갖 시름을 놓은듯한 그 표징에는 비록 외딸이긴 하지만 열아들 부럽지 않다는 대견함이 력력히 어리여있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또 한차례 돌피잡이를 하고난 그들은 초가을의 선기를 머금은 저녁 어스름이 깃들무렵에야 논머리를 떠났다.

읍거리 초어구에 자리잡은 집으로 향하던 두사람은 주막거리의 국수집앞에서 멈추어섰다. 저녁녘의 고즈넉한 대기를 타고 풍겨오는 구수한 양념냄새가 출출한 배속을 자극하였던것이다.

좁처럼 음식점에 드나들지 않는 박길호였으나 오늘은 오도식과 딸의 팔소매를 슬며시 잡아끌었다. 친구도 친구지만 저만큼 키우도록 색다른 음식 한번 제대로 구경 못시킨 딸에게 국수라도 한그릇 사먹이고싶었던것이다.

그들이 문턱을 넘어서자 국수집 너주인이 중년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수선을 떨며 소문난 농군들을 맞아들였다.

박길호는 배잡뱅이의 피춤속에 꼬기꼬기 접어 넣었던 돈을 꺼내들더니 국수 세그릇을 청했다. 잠시후 육수국에 편육조차를 놓은 메밀국수와 함께 오도식이 산 소주 한병이 들어왔다. 오도식은 선주후면이라는 술꾼들의 말을 뇌이며 사기잔에 술을 가득히 부어 박길호앞에 놓았다. 하나 박길호는 잔을 밀어놓으며 국수그릇부터 들었다.

권커니 사양커니 하며 한참 싱갱이를 하는데 어떤 투박스러운 손이 오도식과 등뒤에서 넘어와 술잔을 가로챘다. 두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보니 술기운이 잔뜩 오른 세루양복차림의 사나이가 뻔치고서서 알곳은 웃음을 띠우고있었다. 홍치덕였다. 그자와 한패거리인듯 저쪽에 술상을 퍼놓고 앉아있던 놈쟁이들 몇이 이쪽을 향해 뭐라고 이죽거리고있었다. 박길호는 그들을 본 순간 돌아오지말아야 할곳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후회가 들며 정신이 팔쩍 들었다. 곁에 앉아있던 오도식도 홍치덕의 무례한 행동에 격분한듯 눈을 지름떴다.

《여보, 왜 점잔치 못하게 그러우.》

치덕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비위 좋게 받았다.

《성은 왜 내나. 허물없는 사이에 너무 그렇게 푸점없이 굴지 말라구.》

《건어치우라구요. 그렇게 허물이 없는 사이가 돼서 비료값을 그따위로 받아먹소? 험잡군같은니.》

오도식이 당장 주먹질이라도 할듯 열을 올리며 대들자 홍치덕이도 낯색이 퍼릿해지며 맞섰다.

《뭐가 어찌구어제? 험잡군이란건 도대체 어대다 대고 하는 수작이야.》

거품을 물고 고야대는 홍치덕이의 주먹이 상을 내려치는 서술에 박길호의 국수사발이 방바닥에 떨어져 깨어졌다.

박길호는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언제나 유순하게 껌벽이던 눈이 가늘게 좁혀지며 린광과도 같은 퍼런 불씨가 일었다. 손에 쥐고있던 뚝저가락이 부르르 떨리며 꺾 쥐여지는

억센 손가락사이에서 삭정이처럼 부러졌다.

흥치덕이는 말할것 없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소름이 끼치도록 사납게 돌변한 박길호를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았다.

그도 그럴것이 마음이 어지고 일밖에 모르던 박길호가 이렇게 독이 오른것을 처음 보았기때문이었다. 사실 박길호가 이 정산땅에 온지도 거의 스무해가 되어오지만 좀처럼 제 매력을 비치지 않는 이 억대우같은 사나이의 과거를 딱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모르나 길호가 젊어서 공사판을 떠돌아다닐 때에 로동자들을 못살게 굴던 왜놈십장을 쳐죽였다는 말도 있다. 오도식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우겨댔으나 많은 사람들은 힘과 손탁이 남달리 드센 길호를 보통 농사군으로만 보려하지 않았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철기둥처럼 뻗치고 서있던 박길호는 겁을 먹고 잦게 오르내리는 흥치덕이의 어깨를 짊어 버려주었다. 당장 태를 쳐버릴 기세였다. 곁에 있던 몇몇 농민들도 농사군을 알보는 그 버르장머리를 떼놓아야 한다고 울러매며 박길호를 두둔해나섰다.

그러나 잠시후 흥치덕이를 틀어쥐었던 길호의 집게같은 손이 서서히 풀리며 아래로 드리워졌다. 박길호는 주체 못할 극도의 흥분속에서도 낮빛이 새하얗게 질린채 곁에 서있는 딸을 보았던것이다.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손에 태우는것만큼 거뭇먹이며 애지중지 길러온 딸이다. 일손이 걸싼 제 주먹 하나만을 믿을뿐 남의것이란 티끌만치도 넘겨다볼줄 모르는 박길호는 해방이 되자 더욱 근면하고 청백해진 제 모습만을 딸에게 보이며 살아왔다. 분녀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배운게 없어 공부는 도와주지 못했지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과 함께 숨쉬며 사는 농부의 진정을 딸에게 보여주는것을 아버지로서의 마땅한 의무로, 행복으로 여겨온 박길호였다. 마흔고개를 넘어서면서 벌써 머리가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자신을 개탄하곤하는 길호는 보고 들은 대로 셈이 들어가는 딸앞에 자신을 자주 비취보곤하였다. 그 딸이 지금 겁에 한껏 질린 눈으로 아버지인 자기를 지켜보고있는것이다. 순간 길호는 그러한 딸에게 험악해진 제 모습을 보인것이 이세상을 즐겨움속에서만 보기에 익숙된 딸을 놀래운것이 무척 괴롭게 느껴지였다. 금시 터지길라고할듯 뽐뽐뽐 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하는 딸의 손을 이끌며 밖으로 나왔다.

마누라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물리고나서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아 궁시거리기만 하던 그는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놓이는대로 한참동안 걷던 그는 체판에도 놀라운듯 무춤 멈춰섰다. 그것은 바로 자기네 논머리였던것이다. 그는 어

스름한 달빛을 받으며 가벼이 설레이는 벼포기들과 무슨 이야기라도 나누려는듯 노전조박을 퍼놓은 논둑에 걸터앉았다. 가까운 논판에서 물닭이 퍽퍽퍽 울어예자 거기에 화답이나 하듯 찌르러기와 배짱이의 선률적인 합창이 울려왔다. 가벼운 하늬바람에 흔들리우는 벼포기가 얼굴을 스치며 코에 익은 풋벼 냄새를 풍기였다. 거창하면서도 다감한 들판의 정취에 휩싸인 박길호는 삼시에 머리속이 건똥하게 더 정신이 맑아졌다. 자기다운 리성을 회복한 그의 눈길은 자기의 이름 석자가 큼직하게 씌여있는 논머리의 표말에 머물렀다. 어떤 비바람과 벌에도 곱삭지 말라고 참기름을 바르고 양초대우를 낸덕에 처음 박을 때처럼 생생한 그대로이다. 그 표말과 좀 등튼 저쪽 논머리에는 오도식의 표말이 서있었다. 한낱한시에 꽃았는데도 퍼그나 킁킁해보인다. 마누라가 내온 참기름을 나누어 발라줬는데도 왜 저렇게 빛이 죽어보이는가. 그 꺼칠한 표말이 오도식의 얼굴로 바뀌어보이며 다시금 마음속이 착잡해졌다. 뒤이어 가증스러운 흥치덕이의 낮짝이 떠오르자 그는 오도식이 앞에 앉아있기라도 한듯 속으로 부르짖었다.

(여보게 도식이, 얼마나 변변치 못하게 굴고다녔으면 쪽정이같은 그놈들에게 그런 얼굴뜨거운 변을 당하나. 어떻게 되어 곁의 친구까지도 참지 못할 그따위 희롱을 당하느냐말이야. 말썽은 바로 그 술때문일세. 술이란 온전한 사람도 반편으로 만들며 길을 헛들게 하는 도깨비장물이야. 제 땅이 생긴 오늘까지도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술을 끊고 새조선의 농부답게 맑은 정신으로 살아보라구. 그러면 그 지저분한 잡쓰레기들이 곁코 곁에 붙지 못할걸세.)

논둑에서 음쭉 일어난 박길호는 오도식이네 논판에 들어섰다. 그는 달빛의 도움을 받으며 낮에 채 뽑지 못한 돌피를 골라나갔다.

×

그때로부터 2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섬광같이 번쩍이며 흘러간 새조국건설의 나날은 사람들을 달라지게 하였다.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활기에 넘쳐 일했다. 지난날에는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아갈 걱정밖에 모르던 그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민감하게 주의를 돌리며 지지와 반감을 표시했다.

이무렵 박길호의 딸 분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단기정치강습반을 거쳐 면분주소의 내무원이 되었다.

3 천여호가 실히 되는 정산면 일판에서는 평범한 농민인 박길호의 딸이 내무원이 된것을 두고 큰 파문이 일어났다.

《새 나라가 좋기는 하군. 때물은 농사군의 딸이 나무원이 되다니...》

《그 아비에 그 딸이란 말이 있지 않나... 그 처녀는 자기 아버지를 보아서도 우리 농사군들을 모른다고는 안할걸세.》

부러움과 믿음이 어린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듣곤하는 박길호는 더욱 기가 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남달리 근면하면서도 속대가 바른 그는 리농민동맹위원이 되었다.

당대야야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던 길호의 집에는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엇을 물어보기도 하고 의논도 하였다.

하니 오도식은 이전이나 다름없이 사람들의 말밥에 자주 오르곤하였다. 길호가 하도 극성스레 권하는 바람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몇번이고 다짐을 했지만 아직까지 종시 끊지 못했다. 더우기 길호의 비위를 거슬리게 한것은 오도식이가 홍치덕이와 자주 섭쓸려다니는 그것이었다. 이래전 주막거리의 객주집에서 충돌이 있을 때 갈아서는 영영 서로 마주할것 같지 않더니 참말 이상한 노릇이었다.

길호는 이런 도식이를 두고 여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공화국이 창건된 첫해도 거의 저물어가는 12월의 어느날, 길목거리 어귀에 자리잡고있는 정산녀자중학교의 교사결에서 서성거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박길호였다. 추운 날 바깥출입을 할 때면 늘쌍 머리에 엮고다니는 밤색 풍덩이를 쓰고 손에는 도끼를 들고있었다. 아마 학부형들과 함께 장작을 패리왔던 모양이었다. 집에 학교 다니는 아이는 없지만 면분주소의 나무원으로 일하는 딸이 다니던 이 학교의 일이라면 즐겨 도와나서곤하는 그였던것이다. 교실안에 주련이 앉아있는 녀학생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의 어진 얼굴은 해방직후 분녀가 학교에 다닐 때 교실결에 자주 나타나서 안을 기웃이 들여다보곤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때마침 곁으로 지나가던 교장이 박길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추운데 안으로 들어갑시다.》

《일없습시다. 교실이 비좁은걸 보니 학생이 많이 늘어난게구만요. 짓고있는 새 교사를 빨리 끝내야겠수다.》

교장은 새 교사 내부에 쓸 세멘트와 널판자가 5리밖에 있는 정거장에 며칠전부터 와 있는것을 미처 운반해오지 못해서 일이 지연된다고 걱정을 했다.

어떤 궁리를 더듬는듯 시퍼런 도끼날을 매만지며 한참동안 묵묵히 서있던 박길호는 집에 돌아오자 나무단가리에 기대세웠던 굵직한 참나무를 도끼로 깎기 시작했다. 부러진 달구지체를 갈아

맞추어가지고 래일부터 학교의 세멘트를 날라들일 작정이였다. 그는 도끼질도 매우 능숙했다. 발구채나 보습들같은 큰 잡은것으로부터 합지나 절구공이 등의 부엌세간까지도 도끼 하나면 맵시있게 만들줄 알았다. 그는 퇴마루에 던져고리를 벗어놓고는 힘히하며 도끼질을 했다. 도끼날이 규칙적으로 번쩍일 때마다 손두께만큼씩한 도끼밥이 사방에 휘뿌러지며 울퉁불퉁하던 참나무가 대패를 놓은것처럼 매끈하게 다스려졌다. 한참동안 일에 정신을 팔고있는데 딸 분녀가 프락에 들어섰다. 나무원 제복인 흑곤색치마와 보위색상의를 입고 어깨우로 견피까지 졸라맨 날씬한 몸매는 매우 단정했다. 달구지체를 잡아주기도 하고 끝구멍을 파기도 하며 일을 거들던 분녀는 정기가 도는 오목한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다.

《오도식아저씨가 요즘엔 왜 우리 집에 오지 않나요?》

딸에게서 이외의 질문을 받는 길호는 대답이 궁해졌다. 사실 농민동맹의 분공으로 도식이에 대한 술단속에 날을 세우는 요즘에 와서 도식이는 걸음이 떠졌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다니지 않으니까 섭섭하지?》

《섭섭하지 않구요. 어머니도 늘 오던 아저씨가 안오니까 집이 빈것 같다구 해요.》

이마의 땀을 팔소매로 문지르고난 길호는 전에 없이 궁냥이 넓어지고 활발해진 딸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다. 처녀아이들은 나이가 차면 수집음을 탄다고 하지만 딸은 수집음을 타기는커녕 더욱 활달해졌다. 동네어른들과 아낙네들은 분녀가 나무원이 되더니 리면과 레절이 더욱 밝아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박길호는 이런 딸을 보는 때가 제일 기뻐다. 그럴 때면 날이 갈수록 더욱 펴이기만 하는 자기 집 일을 두고 제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새살을 누리는 농민된 보람을 두고 생각이 깊어 지곤하였다.

그때마다 의례히 오도식이를 생각하곤하였다.

어찌하여 그는 일을 할수록 즐겁기만한 이 좋은 세상에서조차 늘 술에 취해 비적이며 다니는가.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오도식이가 전에 없이 민망스럽고 측은하게 여겨지는것이였다.

분녀는 딸다운 기민한 감촉으로 아버지의 속심을 읽은듯 조용히 물었다.

《한가지 이야기해도 좋아요?》

《어서 말해라.》

분녀는 아래입술을 지그시 감쌀때 아버지를 뻔히 쳐다보더니 웅단을 내린듯 말했다.

《도식아저씨가 또 홍치덕이를 따라 술집에 드나든대요.》

박길호는 풀고있던 도끼를 모래에 탁 박으며 세모논을 지었다.

《분주소에서 그러더냐?》

분너는 난감한 기색을 짓더니 뽀로통해졌다.

《어디서 들었지 뭐.》

박길호는 량미간에 깊은 주름을 지으며 띠얌띠얌 뇌이였다.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내가 알바 아니지. 하지만 도식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술이라면 오금을 못써도 그따위놈의 술은 얻어먹지 않아. 푹푹히 듣거라. 그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야. 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을 옳게 가려 볼 줄 알아야 한다.》

길호는 딸에게 그루를 박듯 말하기는 했으나 불안뎌 굴뚝에 연기가 날리 없다고 오도식의 일이 못내 궁금스러웠다. 저녁밥을 치르곤 나서도 친구의 일로 마음을 쓰던 그는 짚이는바가 있어 슬그머니 집을 나섰다.

큰길울 벗어나 골목길을 한참 누벼가던 그는 굵길듯 마는듯 들리는 소방울소리에 귀를 바짝 강구었다. 분명 오도식이 네 부림소인 점박이의 방울소리였다. 작년가을 현물세를 바치고 박길호와 오도식이 함께 두마리의 황소를 사오던 날 길호는 야장간에 달려가 똑같은 한쌍의 소방울을 만들었다. 번쩍번쩍 팽택을 내는 소방울을 점박이의 목에 척 달아주던 그날 도식이는 너무도 좋아서 으쓱거리며 어깨춤까지 추었다. 그때로부터 청아한 그 방울소리는 들판으로 뻗은 수레길과 논밭에서 쉬임없이 울리곤하였었다...

방울소리가 점점 가까와지더니 무슨 짐인가를 가득히 실은 소달구지가 나타났다. 소의 입과 코에서 뿜겨나오는 단김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멍에 곁에서는 술에 거나하게 취한 오도식이 휘청휘청 따라오고있었다.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로 가나?》

도식이는 길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뚏하게 대꾸했다.

《어데로 가긴. 촌으로 돈벌이를 가네.》

달구지를 멈추어세운 길호는 수레우에 실린 짐을 살펴보았다. 가마니를 두텁게 덮어놓은 께짝들에는 키작같은 가재미와 횃대어가 가득가득 담겨져있었다.

《홍치덕이네 것이구만.》

《그렇네.》

움츠러드는 것 같으면서도 태연스러운 도식이와 짐바리를 번갈아 여겨보는 길호의 눈매는 차츰 꽃꽃해졌다.

박길호는 홍치덕이가 요즘 발동선을 한척 구해가지고 허가없는 고기잡이를 남몰래하며 폭리를 얻고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거기에 도식이가 섬슬려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다.

속히운듯한 분기가 치민 길호는 자기를 가까스로 다잡으며 물었다.

《치덕이네 고기를 팔아주려 촌으로 간단말이지?》

《.....》

길호는 대답을 못찾고 주뭇거리는 도식이에게 낮게 소리쳤다.

《당장 돌아서게.》

이때 얼마간 뒤떨어져서 달구지를 따라오던 두 사나이가 다가왔다.

《아니 이거 길호형님 아니요. 우리는 내무원에게 걸려든줄 알구 가슴이...》

여느때없이 아는체하며 수선을 떠는 거간군의 말끝에 홍치덕이가 뇌까리였다.

《내무원은 아니래도 딸이 그 일을 하니까 내무원과 다름없지.》

길호는 홍치덕이를 똑바로 겨누어보았다.

《어째 내무서에 일러바칠가봐 겁이 나오?》

홍치덕이는 길숨한 말상에 음흉한 미소를 띠었다.

《겁날거야 있소. 제 돈으로 산 배와 그물로 고기를 좀 잡았을뿐인데.》

길호는 코웃음을 치며 치덕이에게 한걸음 다가섰다.

《뻔뻔스럽기라군. 모리간상질을 하다못해 이제는 이따위 도적질까지 하는구만.》

《아니 도적질이라니.》

《나라의 눈을 속이며 허가없이 고기를 마구 잡아먹는게 도적질과 뭐 다른게 있소. 바다로 말하면 나라의 터밭이라고 할수 있구. 거기에 사는 물고기는 땅에서 자란 곡식과 같은거요. 그걸 제멋대로 후려다가 제 욕심을 채우는게 도적질이 아니란말이요?》

홍치덕이와 거간군을 무섭게 노려보고난 길호는 도식이에게 낮을 돌리였다.

《답답한노릇이구만. 여느 말은 그만두고라도 자네는 집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번 가보기라도 했나. 거기서는 정거장에서 짐을 미쳐 실어들이지 못해서 교사를 못짓고있더군. 이따위 더러운 일에 끼여들 짬이 있으면 학교의 짐이나 실어나르라구.》

길호의 눈은 자기를 독살스럽게 훑쳐보는 홍치덕이에게 다시 겨누어졌다.

《그래 당신네가 이따위로 막 놀아먹으라구 해방이 되구 나라가 선줄 아오. 경을 치지 않으려거든 이 놀음을 당장 그만두라구요.》

길호는 달구지채를 버쩍 들고 소를 빼냈다. 그리고는 도식이의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도식이는 뭐라고 소리치며 팔을 빼내려했으나 길호의 드센 완력에 이끌리어 집에까지 왔다. 소를 외양간에 매여놓은 길호는 구유안에 남아있는 저녁여물을 어썩어썩 맛나게 먹어대는 점박이를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도식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방안에

들어섰다. 그러자 도식이는 푸쩍없이 두덜거렸다.

《이렇게 자주 쫓아다니지만 말구 농민동맹이나 내무서에 고해바치게나. 오도식이가 법에 거슬리는 돈벌이를 한다구...》

길호는 어이가 없다는듯 허파 빈 웃음을 쳤다.

《그런 해식은 소리는 그만두고 어떻게 되어 홍치덕이에게 다시 물어다니게 되었는지 그거나 말해보라구.》

《심문을 하려드나. 좋네. 말이 난감에 털어놓자구.》

쌈지에서 퇴초를 꺼내여 두툼히 말아문 도식은 입을 열었다.

...지난 초겨울의 어느날, 야장간에 농쟁기를 버리러 갔다오던 오도식이는 길에서 꾀낫이나 아는 거간군을 만났다. 가까이에 있는 객주집에서 막걸리를 한대로 사주고난 거간군은 새 달구지를 하나 구해줄테니 농사를 짓지 않는 동삼에 돈벌이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무슨 꿍꿍이속인지 몰라서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으나 곤때하나 오르지 않은 새 달구지를 척 끌어다주는 바람에 마음이 동해났다. 거간군과 함께 물고기바리를 몇행보 날라보니 벌이도 꽤찮았다. 도식은 얼마후에야 자기가 끌려든 이 일이 홍치덕이가 주관하는 도섭이라는것을 알고 깨름함을 금치 못했으나 한해겨울이나 채우고는 물러나리라 결심하고 아직까지 그럭저럭 따라다니는것 이었다....

《난들 홍치덕이의 낫짝이 고와서 이 일을 하겠나. 날아가는 푼돈이라도 붙들어 쓰자는거야.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다? 기와집도 지었겠다, 이 오도식이도 프르르하게 차려놓고 살고 싶단말일세.》

벽에 비스듬히 기대여 도식이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던 길호는 앓음새를 고치였다.

《자네 마음을 전혀 모르는건 아니야. 하지만 나라에서 준 땅을 타고앉아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노릇인가. 농사만 잘 지어도 잘살게 될게 아닌가?》

《말이야 옳지. 하지만 굴러들어오는 복덩이를 차던질수가 없지 않나... 허. 이제 그만두겠네. 현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모든걸 남못지 않게 갖추어놓아야 해. 친구의 이런 본심을 몰라주는 자네가 야속하구만. 털어놓고 말하네만 자네는 분녀가 내무원이 된 다음부터는 좀 달라졌어. 제 친구까지도 속보는 그 참견질이 달갑지 않네.》

점점 기가 돌아서 열을 올리는 도식이 생 각깊은 눈매로 마주보던 길호는 낮으나 웅글은 청으로 타일렸다.

《달갑지 않아도 해줄 말은 해야겠네. 어떻던간에 다시는 그놈들을 쫓아다니지 말라구. 그러다

간 농사밀천을 얻기는 고사하고 땅과 목숨까지도 잃을수있어. 그 어느때 가서도 승냥이가 양으로 는 될수없네. 우리가 만약 황재만 바라고 그것을 잇으면 아무때건 제 본분을 잃게 될걸게.》

오도식이의 눈에는 비양조의 미소가 얼핏 비끼었다.

《흥, 제법 유식한 말을 쓰는군. 그쭙한건 나도 아네. 이 오도식이도 뼈가 굳기전부터 눈치밥을 먹은 놈이란말이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걱정말게. 무슨 록갑을 놀아서라도 농사를 남만 치 지어보고싶구만.》

박길호는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런 속통으로는 결코 농사를 잘 지을수 없어.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주신 이 땅은 티 하나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심고 거두어야 할 땅일세. 우리가 씨앗을 똑바로 심어놓아야 먼 후날에 가서도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수확을 거둘게 아닌 가.》

오도식이는 진정이 어린 길호의 절절한 말마디가 가슴에 흘러드는듯 고개를 수긋하고 앉아있었다. 오래만에 나갔던 오도식의 안해가 돌아오는듯 사립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리에서 일어난 길호는 밖에 나섰다.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길호의 눈앞에는 자기들사이에 뜻하지 않은 충돌을 야기시키군하는 도식이의 결점보다도 피나리보짐을 지고 이고장에 처음 나타난 자기를 각근히 맞아주던 잊지 못할 도식이의 모습만이 확대되어 비껴올뿐이었다. 뒤이어 분여받은 논배미에서 사시절 함께 일하던 화목한 나날이며 커가는 두집 아이들이 너무도 대견하여 사돈을 맺자고 하던 스스럼없는 룡담 등이 그림계 돌이켜지는것이였다. 저대로의 고뇌에 시달리며 온 밤을 뒤척이던 그는 이른새벽에 두엄무지로 나가 거름을 부리나게 채워넣으며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도식이가 결코 저런 나쁜 길을 걷게 해서는 안돼. 오늘 농민동맹에 다시 찾아가서 저 홍치덕이를 단단히 단속하도록 의논해야 한다.)

×

초여름에 잡히면서 박길호는 매우 분명한 나날을 보냈다. 급격히 아지를 치며 우쭐우쭐 자라나는 벼가 농부의 일손을 더 많이 기다렸기때문이었다. 나라에서 대주는 화확비료로 아지비료를 치고난 그는 두벌거름으로는 썩은 고등어뿔을 재워놓은 어비를 쓰기로 하였다. 물고기거름을 여러 무지 장만해놓은 바다가에서 국개논까지는 서너마장이나 실히 되는 먼 거리였으나 억척스럽게 실어나르기 시작했다. 낮에는 뱃쇠호미로 덩이질을 하고 밤이면 거름나르기를 했는데 달구지체가

휘도록 짐을 처실고도 성차지 않아 바소고리에 한짐씩 짊어지고 소를 몰고다녔다. 덩이질을 다 하고 논흙을 주물러주기에 앞서 거름을 쳐야 했기때문이었다.

그날밤은 초여름치고 류달리 무더운 날씨였다. 거름을 두차례 실어나르고 세탕째 접어들었을 때에는 자정도 훨씬 넘어서 포항산마루로 휘영청 밝은 하현달이 떠올랐다. 새벽녘이 가까와오면서 서늘한 바다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밤이슬에 축축이 젖은 가라지며 능쟁이가 소슬바람에 흐느적이며 달빛의 애무를 받는 길센을 따라 달구지를 몰아가는 길호의 기분은 전에없이 상쾌했다. 어느덧 국개벌이 어슴푸레 바라보이는 포항재에 올라선 길호는 실박한 가슴에 시원한 밤바람을 한껏 들이켰다. 앞에는 엇구수한 흙내가 풍겨오는 기름진 들판, 뒤에는 쉬임없이 설레이는 드넓은 바다. 그는 속절없이 흘러보낸 젊은 때가 되돌아 오기라도한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딸 분녀가 즐겨 부르곤하던 《산업건국의 노래》였다.

반만년 처음 보는 우리의 자랑
발가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빛나는 로동법령 같길을 밝혀
새조선 굳은 반석 마련되였다
.....

타령조로 제법 건드러지게 노래가락을 넘기고 난 그는 손에 쥔 버드나무 회초리로 소잔등을 가볍게 때렸다.

조는듯 느지럭거리며 여드레 팔십리걸음을 하던 누렁소는 엉치를 흠칠하더니 걸음이 빨라졌다. 소고삐를 쥐고 부지런히 따라걸던 박길호는 금시 숨이 넘어갈듯 험뻑이며 마주 달려오는 오도식이와 맞다들었다. 시퍼렇게 멍이 든 볼편과 사납게 충혈된 눈, 볼품없이 찢기운 옷자락...

오도식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대바람 직감한 길호는 다급히 물었다.

《무슨 일인가?》

지나친 흥분과 성급함으로 하여 허까지 굳어버린 도식은 도간도간 기우는 발음으로 겨우 대답했다.

《저놈들이 도망을 치네... 며칠전부터 그런 껌새를 눈치챈 나를 죽여없애려고 했지...!》

날카로와진 박길호의 시선은 오도식이가 허겁지겁 가리키는 저쪽 도래굽이의 외진 선창에 닿아있는 한척의 병선에 못박혀있었다.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파도에 흔들리우는 배머리에서는 검은 그림자 몇이 어물거리고있었다. 그놈들은 무섭게 노려보는 길호의 등뒤에서는 도식이의 절통한

부르짖음이 울려왔다.

《아! 나는 저 새끼들이 저런놈들인줄은 모르구 따라다니며 아...》

순간 길호는 몸을 휙 돌리더니 솔뚜껑같은 손으로 도식이의 뺨을 붙이 나게 후려했다.

《더러운놈 같으니. 차라리 그 자리에 엎드려 죽어버리라. 저것들과 섞쓸려다니며 농사군의 본분을 더럽힌 너를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거다.》

갈범이 우는것 같은 소리로 내뻗고난 길호는 달구지에 꽂혀있던 참나무 뺨침대를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아 녀두리를 하는 도식이를 힐긋 쏘아보고는 선창가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배머리에 다달은 박길호는 홍치덕이 앞에 떡막아섰다.

《남으로 달아빠자는 수작이지?》

치덕이는 배포유하게 한결을 나섰다.

《웁다. 남으로 가련다. 너같은것들이 없는 거기에 가서 편안히 살련다.》

박길호는 어금이를 부서지게 앙다물며 볼편을 썰룩거렸다.

《네놈을 벌써 요정냈어야 하는건데... 그래도 사람질을 할가 하고 여직 살려준 나라를 배반하구 도망을 쳐? 이 룡실할 반동놈아!》

박길호가 주먹을 틀어쥐고 다가서자 홍치덕이도 독을 쓰며 대들었다.

《반동이면 어쩔레냐. 그래 여기가 너희 딸이 다니는 내무서 울안인줄 아니? 주리를 틀어놓고 전에 비켜라.》

《어리석은 수작말야. 여기는 우리 땅이다. 너같은 반동놈을 깨끗이 없애버려야 할 공화국땅이란 말이다. 이 땅의 주인인 내 손에 걸려든 이상 빠져나가지 못해.》

이때 곁에 있던 농쟁이들이 박길호에게 일제히 덤벼들었다. 길호는 비호같이 몸을 날리며 농들과 맹렬히 싸웠다. 참나무 몽둥이에 맞바로 얻어맞은 농들이 얼굴을 싸쥐고 물가에 나뿔굴었다. 위협의 막바지에 다달은 홍치덕이는 짐바리에서 령총을 꺼내들더니 사납게 달려드는 길호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박길호는 여러알의 산탄이 가슴에 박혔으나 농의 손에서 총을 나꾸어채가지고는 우쩍 꺾어버렸다.

《이파위 장난감같은걸 가지구 누굴...!》

얼굴이 까맣게 질리어 뒤로 비실비실 물러서는 홍치덕이에게 한결음한결을 다가서던 박길호는 움쭉 멈추어서더니 밀등을 잘리운 거목처럼 천천히 쓰러졌다. 이때 얼마전부터 농들의 동태를 은밀히 감시하던 내무원들과 마을사람들이 달려왔다. 그들속에는 분녀도 있었다. 도망을 치다가 불

들린 흥치덕이와 그 패거리들은 내무서에 끌려가고 오도식이만이 사람들에게 떠밀리워왔다. 모두가 돌맹이와 몽둥이를 들고 오도식을 당장 처죽일것처럼 떠들어댔다. 딸에게 부축되어 조용히 누워있던 길호는 한손을 가까스로 들어 사람들을 멀리였다. 그는 도식을 가까이로 부르더니 손목을 감싸잡았다.

《뺨을 친 나를 욕하라구. 나는 자네와 함께 농사나 짓는 품앗이군이였지. 귀뺨을 쳐도 노여움이 안갈 친구로는 되지 못했더. 그런 사이였다면 우리는 벌써 저놈들을 결단내고말았을거네. 자네가 길을 잘못들면 한데는 내 불찰도 많아.》

의식이 혼미해지는듯 힘없이 눈을 감았던 길호는 급히 달려온 의사가 구급치료를 해서야 다시 눈을 떴다. 그는 눈충기를 돈구며 딸과 도식이랑 올려다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뇌이었다.

《우리가 술한 배를 곬으며 고생을 할 때 얼마나 땅을 갖고싶어했나. 그러던 우리한테 장군님께서는 땅을 주셨지. 그 땅의 근본을 죽어도 잊지 말아야 해...》

어느덧 먼동이 터오고있었다. 푸르스름히 밝아오는 새벽빛속에 거름을 실은채로 자드락길에 서있는 달구지가 뚜렷이 드러났다. 그것을 떠여본 박길호는 눈물을 삼키며 손을 맞잡고있는 도식에게 말했다.

《나머지 거름을 마저 날라주게. 이제 뒤행보만 하면 될거야. 그리고 자네가 쓸 거름도 그 곁에 재워놓았으니 빨리 실어다 치라구.》

오도식은 어깨를 세차게 들먹거렸다.

《아! 이놈이 죽일놈이지. 자네가 이 지경이 된 건 아!...》

박길호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오도식을 바라보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울기는 넌장할것 쟤이나 쏘는 납철알에 내가 죽을것 같은가...》

오도식은 오열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길호는 이런 오도식의 손목을 더욱 으스러지게 감싸잡았다. 《아,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다 농사를 실컷 지어보자했는데...》

이것은 박길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

나는 바로 어제 협동농장 초기부터 20 여년동안을 농산작업반장으로 일했다는 오도식로인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기술지도원과 함께 동쪽길에 올라서니 때마침 맞은편 보둑우에 그 로인이 나타났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오도식로인은 작업반장사업을 젊은이에게 넘겨준지도 10년이 가깝지만 땅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수 없다고 하며 농장원들과 함께 사철 벌에서 살고있었다.

작업반의 고문이자 논물관리원격인 로인의 기력은 아직도 정정하였다. 이것저것 보충취재를 하는 나와 기탄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정기를 잃지 않은 기민한 눈으로 벼꽃이 한창 피어나는 들판을 바라보며 웅글은 청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박길호 그 사람에게 친구로서 씻을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지요. 아직 살아있다면 많은 일을 했겠는데 그만...》

우리는 금잔디가 고루 입혀진 양수장의 보둑우에 나란히 앉았다. 로인은 입에 물었던 참대 물주리를 작업복주머니에 찔러넣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쟁때 군량미를 실이나르던 험한 밤길에서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협동조합을 무을 때에나 박길호를 늘 생각했지요. 나뿐이 아니라 박길호를 알고있는 축들 모두가 말이외다. 땅의 주인구실을 똑바로 하자면 나라앞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친구나 자식앞에까지도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걸 깨우쳐준 박길호를 말이외다.》

나의 눈앞에는 순박하면서도 높은 리념을 지닌 농군인 박길호의 모습이 뚜렷이 안겨오는것과 함께 그에 대한 추억을 즐겨 이야기해주던 사람들, 자기들이 걸어온 그 길우에 이 땅에 땀과 피를 뿌린 박길호의 자국도 찍혀있다는것을 말해주던 모습들이 비껴오는것이였다. 깊은 사색에 잠겨드는데 오도식로인이 나의 팔소매를 가벼이 건드리며 저쪽 논판에서 논물온도를 재고있는 농장원처녀에게 뭔가 열심히 가르쳐주고있는 기술지도원청년을 가리키였다.

《바로 저 사람이 박길호의 손자외다. 내무원을 하던 분녀의 아들이지요.》

《!?!》

짜릿한 충격을 느끼며 그 자리에 굳어져있던 나는 청년이 나의 실화감에 대하여 왜 선뜻 공감하지 않았는가를 알수 있었다.

《저 사람의 어머니는 도에서 중한 일을 맡아보고있지요. 가까이에서 함께 일할수도 있겠지만 제발로 여기에 와서 저렇게 뿌리를 내렸수다. 어찌면 그렇게도 제 할애비를 신통히 닳았는지...》

은 들판에 차고넘치는 해빛이 푸르른 논판에서있는 청년을 따사로이 비쳐주고있었다. 나는 랑만과 열정이 넘쳐나는 그 모습에서 땅의 주인, 참된 농사군의 본도를 실천으로 보여준 박길호를 다시 보는듯하여 마음이 숭엄해졌다.

로인과 나는 청년이 일하는 논판으로 향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박길호를 만나러 간다는 그 마음을 안고...

출근길

리 화

도중앙병원 외과과장 최진우는 아침 일곱시반 경에 집을 나섰다. 사십줄에 들어서면서 몸이 나기 시작한 그는 실한 양어깨를 알릴듯말듯 기울거리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직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흐름속에 학교로 가는 학생들까지 섞여들자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도소재지에 남아있는 유일한 해방전 건물인 체신소앞을 지날 때였다. 마주 걸어오던 뚱뚱한 여인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아 아주머니군요. 그래 몸이 좀 어땡습니까?》

《건강해요. 수술후에 이렇게 몸까지 난답니다.》

녀인은 무언가 하고싶은 말이 많은 모양이었다. 허나 최진우는 출근길이 지체될가봐 《그럼 몸조리 잘하십시오.》 하고는 걸음을 계속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오.》

의학대학을 졸업한후 줄곧 이 도시에서 15여년째 외과의사를 하는 그에게는 천우들도 많았지만 손수 치료해준 환자들도 많았다. 하여 거리에 나서면 이렇게 인사를 받기도 바쁠지경이다. 아침저녁매대의 문을 닫던 판매원녀성도 존경어린 눈길로 진우를 지켜보았다.

종합식료상점옆을 지나자 앞에 가로질린 큰 길이 나졌다. 아직은 자동차의 왕래가 별로 없었다.

진우는 두손을 봄외투주머니속에 꼭 찌른채 외과입원실에 입원중인 중환자들의 병상태를 더듬어보며 묵묵히 걸어나갔다.

이때 《호르륵!》하고 야무진 호각소리가 났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든 진우는 자기가 건늬길표식도 없는곳으로 큰길을 지나가고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가던 걸음을 계속하려 했다. 그러자 등뒤에서 《호르륵 호르륵...》 하는 소리가 려달라 지긋게 울렸다. 그쪽으로 시선을 준 최진우는 미간을 찌프렸다. 체격이 미끈한 애젊은 교통안전원이 그를 손짓하여 부르는것이였다.

진우는 《헛 참》하고 중얼거리며 네거리 한복판에 서있는 젊은 안전원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사람 좋은 등실한 얼굴에 멧적은 미소를 지으며 어물어물 뇌이였다.

《안됐습니다. 그만...》

순간 진우의 입이 벅글서해지고 눈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키가 늘씬한 안전원의 모습이 무척 낮익어보였다.

지난해 언제인가 이 젊은이가 그에게서 여러번 외과치료를 받은것이 생각났던것이다.

안전원도 진우를 알아본듯 두눈이 등싯해졌다. 그러나 그는 정색하고 간단히 말했다.

《저 가로등옆에 가서 좀 기다리십시오.》

최진우는 낮이 확 달아올랐으나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어쨌든 그가 교통질서를 위반한것은 사실이었으니말이다.

자동차들이 앞뒤에서 연방 들이닥쳤다. 젊은 안전원은 지휘봉을 쳐들고 몸을 뺄 돌리면서 차들을 멈춰세우미 없이 통과시켰다, 차들이 지나가자 진우는 애써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그만 실수를 한것 같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

젊은이는 엄한 눈초리로 진우를 이윽도록 내려다보더니 잘라말했다.

《미안하지만 저기 가서 좀 기다려주십시오. 초보적인 교통질서두 모르시는걸 보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젊은 안전원은 지휘봉을 들며 또 저쪽으로 돌아섰다.

진우는 어이없는 눈초리로 젊은이의 뒤모습을 야속하게 지켜보다가 천천히 물러나 가로등옆에 갔다. 그는 초조한 눈길로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15분전 여덟시, 지금쯤 파성원들이 주사업총화를 위해 모두 그의 방에 모였을것이다. 그런데 그 모임을 주관할 사람이 이렇게 붙잡혀있으니 어쩌면 중단말인가.

그는 참을성있게 기다렸다. 얼마후 근무를 교대한 교통안전원이 다가왔다. 그는 정색하고 말했다.

《갑시다.》

《어디로말아요?》

《교통안전교양을 좀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안전교양이라구요? 동무!》

진우는 통명스레 뇌이었다.

《난 일이 바쁘오, 술한 사람들이 내 지시를 기다리고있단말이요.》

하나 짧은 안전원은 막무가내로 자기의 요구를 했다.

《갑시다.》

그리고는 제먼저 앞서서 걸었다. 최진우는 진정 노여움에 차서 짧은이를 바라보았다.

(전혀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어쩌다가 우연히 한번 그리 된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딱딱스레 구는법이 어디 있단.)

최진우는 오던 길을 되짚어서 그를 뒤따라가지 않을수 없었다. 한참만에야 그는 체신소옆에 자리잡고있는 《교통안전교양실》앞에 당도했다. 이미 시간은 8시가 지났으니 파주사업총화모임은 완전히 파란되고만것이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전교양실》로 들어섰다. 널찍한 방안의 사면벽에는 교통질서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직관물들이 가득 걸려있었다.

짧은 안전원은 헉피에 손을 넣어 주름잡힌 상의를 바로잡더니 침착한 어조로 교통질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는것이였다.

그는 어린애의 손목을 잡고 건늌길을 건너가는 녀인이 그려진 직관물을 가리키며 포박포박 힘주어 말했다.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하나 진우는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았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던것이다.

얼마후 그는 짧은 안전원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언짢은 기색으로 교양실을 나섰다.

그후 그는 십자로 한가운데 서있는 교통안전원을 보게 되면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며 노여운 생각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은후부터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 때에도 꼭 건늌길표식이 있는곳으로 찾아가 길을 건너가군했다.

그때로부터 십여일이 지난 어느 겨울저녁이였다.

최진우는 불의에 제기된 어려운 수술을 끝내고 피곤하여 고개를 짓수긋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고있었다. 그는 열빠진 사람처럼 머리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어쩌다가 자기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스스로 리해가 되지 않았다. 만약 수술도구를 섬겨주던 평리한 간호원처녀가 《선생님, 살균솜방울을 하나 더 꺼내야 하지 않습니까.》하고 야무지게 귀뜸해주지 않았더라면 어쩔번했는가.

환자의 복부속에 남은 솜방울은 무서운 독소가 되어 내장을 녹여내고야 말았을것이다. 그는 분명 수술부위를 꿰매기전에 해당부위에 넣었던 솜방울을 하나, 둘 하고 세기까지 하였었다. 그런데 이 무슨 실수란말인가.

그는 착잡한 생각에 잠겨 정신없이 행길로 들어서고있었다.

찰나 《윙-》하는 소리가 귀뿌리를 스치고 먼지를 왈각 들썩였다. 집을 만재한 대형화물자동차가 그의 코앞으로 썰하니 지나갔던것이다.

진우는 몸서리를 쳤다. 아차하여 한걸음만 앞으로 내디뎠더라면 어쩔번하였는가. 그는 진땀이 내뻘 이마를 손수건으로 문대며 주위를 휘휘 둘러보았다.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구원했다는 안도감에 앞서 불현듯 기억속에 희미해진 짧은 안전원의 말이 귀전에서 울리는듯했다.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그렇다.》

진우는 전률하며 마음속으로 뇌이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사업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때문에 당에서는 귀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업에서는 그 어느곳보다 엄한 질서와 제도를 세우도록 했다. 그러니 그전날 짧은 교통안전원의 <물인정>하고 뻥뻥한 요구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얼마나 뜨거운것이 깃들어있는것이랴.

이제야 진우는 석연히 깨달았다. 그가 방금전 수술장에서 저지른 실수도 자기에겐 그런 요구가 부족했기때문이었던것이다. 수술중에는 그 누구도 드나들지 않게 되어있는 그곳에 누가 다른과의 간호원들까지 덧대로 드나드는것을 허용했는가...

한치의 양보는 백결음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고 순간을 소홀히 하면 영원을 잃게 되는것이 아닐가.

최진우는 어둠이 짙어가는 거리 한가운데 서서 신호봉을 절도있게 휘젓는 교통안전원을 뜻깊은 눈길로 이윽도록 지켜보고있었다.

씨앗

신병우

《통통통》 -

모내는기계로 풍년모를 내던 농장원들과 직원 자들의 흥겨운 웃음소리 노래소리도 뜸해진 점심 참이었다.

마지막 거두매를 하던 나는 논고에 흠어진 한대의 모라도 허실할세라 모춤을 묶으며 정성스레 거두고있는 봉희아주머니를 보고 저절로 걸음을 멈추었다.

누가보건 말건 한대의 모라도 더 잘 키우려고 랭상모판을 그토록 애지중지 키워 오늘은 줄대같은 벼모를 농장벌에 낸 우리 분조의 말없는 아주머니였다.

나는 저 아주머니와 10년을 함께 농장벌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나는 너무도 몰랐다.

우리 작업반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동무가 아니었다라면 저 아주머니의 알뜰하고 깐진 일숨씨도 나는 지금처럼 새로운 눈으로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는 우리 농장에 파견되어 온지 얼마 오래지 않았지만 우리 농장원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속속들이 꿰뚫고있을뿐아니라 우리모두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농업전사로 키워주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이다.

진정 소조원의 손길에 이끌려 푸르러가는 전야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중요한 목적은 간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이 요구하는대로 일을 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를 더욱 빨리, 더욱 원만히 발전시켜나가기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온 마을이 따르는 우리 소조원! 그가 어쩌다 군에 회의가도 온 벌이 빈것만 같아 모두들 못내 서운해하였다.

실로 꽃피는 봄날 우리 마을에 찾아온 그는 농장벌에 만풍년의 씨앗만을 뿌린것이 아니었다. 논고에 다가가 그 아주머니와 함께 흠어진 모춤을 쟁겨놓느라니 초봄에 있었던 일이 생각키웠다.

이른아침 랭상모판에 나온 나는 그만 화가 벌컥났었다.

어린 모를 단련시키기 위해 비닐박막 벗기는

랭상모판 관리원인 봉희아주머니의 일손이 너무도 느렸던것이다.

《아니 이렇게 일하다가는 아침해가 다 솟겠는데...》

본래 성미가 급한 나는 더 말할 사이 없이 다짜고짜로 다가가 와락와락 비닐박막을 벗기였다.

부지깽이도 편다는 바쁜 농사철에 우물거리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고 나는 지청구를 했다.

화김에 하는 일이라 10분어간에 그 아주머니가 말은 랭상모판 비닐박막을 나는 전부 벗길수 있었지만 일이 거칠어졌다.

그 아주머니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 어린 모를 다칠세라 모판에 떨어지는 흙을 주으며 말없이 구겨진 박막을 펴서 정성스레 개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거침없이 목청을 돋구었다.

《아주머니 정 이렇게 일하려면 우리 분조에 있을 자격이 없단말이요.》

하지만 내가 어성을 높일수록 그 아주머니는 말이 없으면서도 무엇을 못마땅해하는 기색이였다.

휴식참에 양지바른 논둑에 앉아 소조원의 이야기들을 고즈넉이 들으며 이따금 흐느끼는 아주머니를 보았었다.

그제야 나는 봉희아주머니가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일로 하여 나의 자책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것을 나는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미풍이 불어오는 보폭으로 소조원동무와 나란히 걸었다.

먼저 소조원동무가 말을 꺼냈다.

《분조장동무, 난 오늘 분조장동무의 행동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머니한테는 그보다 더한 욕을 해도 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바쁜 때 그렇게 일손을 놀리다가는...》

나는 통명스럽게 말하였다.

소조원동무의 목소리는 낮으나 엄하였다.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시간도 사람이 결정하는것이요. 동무와 같은 사업방법으로 일한다면 비록 오늘은 한명의 농장원이 분조장과 사업에서 될수 있지만 래일은 두명, 세명 아니 분조원 80여명이 다 동무를 싫다고 할거요. 그렇게 동무 혼자서 농사를 짓겠소.》

계속하여 소조원동무는 내가 그 아주머니의 일

손을 도와주면서 버모를 튼튼히 기르자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어린 모를 일찍부터 단련시켜야 하는데 해가 뜨기전에 일찍 박막을 벗겨야 어린 모가 해빛에 상하지 않는다는것을 찬찬히 일깨워 주었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하는것이였다.

또한 내가 늘 성격타발만 하면서 기본주의적으로 사람을 대하여 오늘처럼 때로 분조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군하는데 강한 요구성과 관료주의는 엄밀히 구별된다는것을 차근차근 일깨워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말대로 그 아주머니가 분조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 그가 가면 도대체 어디로 가겠는가고 묻는것이였다.

소조원의 질책은 나의 가슴에 마디마디 파고들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저멀리 산마루에 불타던 노을도 사라지고 배봉산아래 양지바른곳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동산마을의 굴뚝들에서는 너인들이 저녁밥을 짓느라고 지퍼울린 연기가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우듬지사이로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우리들은 마을로 통하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이윽고 소조원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며칠전 갑자기 찬바람 불던 저녁 이맘때였소.

저녁밥을 짓던 봉희아주머니가 철없는 사내애에게 불을 때라고 이르고는 모판으로 나갔소. 집에 있는 나래를 한입 안고말ियो.

찬바람이 스며들세라 모판에 비닐박막도 여미여놓고 나래를 덮어주었소. 집에서는 가마의 밥이 까맣게 타고있었소. 그 아주머니 말인즉 밥이 탔으면 다시 지을수 있지만 어린 모를 한번 열구면 어찌겠느냐고 하는것이였소.

분조장동무. 이런 아주머니의 가혹한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할게 아니요.》

나는 그만 고개가 수그러졌다. 그날 저녁 소조원은 봉희아주머니와 함께 밤늦도록 팽상모판에 나와 어린 모를 돌보았던것이다.

그런데 분조장인 나는 찬바람이 미칠세라 자기 집집승우리들을 돌보면서도 팽상모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미치지 못하였던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분조의 살림꾼인 봉희아주머니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일손이 금뜨다고 타발만 한것이다.

봉희아주머니의 일손을 거슬리게 보기전에 그 가혹한 마음의 싹을 먼저 보고 소중히 키워주어야 할것이였다.

사실상 그 아주머니가 분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전에 먼저 분조를 책임진 나 자신이 분조장자격이 없다 해야 할것이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자책속에 잠기었다.

《분조장동무. 좀 생각해보시오, 동무도 예술영화 <조선의 별>을 보면서 느꼈겠지만 난 그 격동적인 장면이 생각나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 한명의 혁명전사라도 혁명대오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동무들은 물론 가족들과도 멀리 헤어져 외진 강가에서 홀로 전염병으로 앓으며 죽음의 시각만을 기다리는 소심을 찾아가시지 않았소.》

어느덧 그의 이야기에 이끌린 나의 눈앞에는 영화의 화면이 방불히 펼쳐졌다.

소심은 전염병때문에 그렇게도 당부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손목을 억세게 잡아주시며 얼마나 크나큰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었던가.

그리고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저녁을 지으시고 그와 함께 다정히 하루밤 초막집에서 지내시면서 혁명의 큰뜻을 뜨겁게 심어주시었던것이다.

나는 소조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자책을 가가스로 억누르고있는데 소조원동무는 나의 두손을 억세게잡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분조장동무!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러하였소. 어버이수령님께서 부어주신 혁명동지들에 대한 그렇듯 숭고한 의리와 뜨거운 동지애를 생각하면 난 솟구치는 눈물을 금할수 없소. 우리모두 어버이수령님의 그 고매한 공산주의적품모와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없는 혁명적동지애를 따라배웁시다.》

소조원동무의 격동적인 이야기는 나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려주었다.

생활의 걸음 걸음을 삶의 순간 순간을 불타는 충성으로 불려일으켜주는 우리 소조원!

정녕 그는 우리 농장, 우리 작업반에 만풍년의 씨앗만을 뿌린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가슴에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참되게 살며 일해나가도록 충성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어느덧 우리는 아담한 문화주택앞에 이르렀다.

나는 진심으로 소조원에게 우리 집에 함께 들어가자고 그의 팔을 끌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중계 웃으며 다음날에 꼭 오겠다면서 굳이 사양하는것이였다.

자기는 이제 재너머 마을에 모내기기계운전공들이 속도보장과 평당포기수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꼭 가봐야겠다면서... 하늘에 못별들이 총총한 밤길을 다리쉽도 없이 떠나가는것이였다.

아, 바로 저 사람이 나 하나만이 아닌 온 마을이 그렇게도 따르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파견해준 3대혁명소조원동무이구나!

나는 불같은 격정을 안고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나는 푸르러가는 벌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도 충성의 열정이 더더욱 불타오르고있음을 가슴뿌듯이 느끼었다.

이른 봄날에

황승병

봄도

나는 이른봄이 좋더라
내앞에 펼쳐질
화창한 봄날이
래일에 있기에

얼음장밑에서도 강물이
봄을 속삭이더니
표척기가 날리고
우등불이 타오르던 버들방천에
움트는 새싹이 반갑네.

살을 에이는 눈바람이 없었다면
봄빛이 이리도 정다우랴
내 만약 따뜻한 방안에
앉아서 맞는 봄이라면...

살얼음을 헤치고
언제의 기초를 다지며
몇밤을 지새웠다
이름없던 강줄기도
빛이 피고
생명수가 되어 흐를

그날을 위하여

조업식의 환성과
꽃보라에 묻힐
그날도 멀지 않구나
은혜로운 해빛아래
끝없는 행복이 무지개로 비낀
락원의 강산이여

언제나 시작에서
끝을 보며
누리는 기쁨보다
마련해가는 보람으로
한없이 심장이 뛴뛰는
나는 젊은이

꽃도 나는
방울이 좋더라
나를 반겨 웃어줄
고운 꽃송이
그 아름다움이
갈수록 더하기에